

조선시대 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 -몽골과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박원길



연구수행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단국대학교	박원길	
동국대학교		김장구
동국대학교		왕수연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오늘날 동아시아는 역사논쟁의 시기라 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 간에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황국사관 등 심히 우려를 낳는 역사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역사사실에 대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특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몽골을 대상으로 했던 북방공정(1985)을 통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영토 및 민족이론을 구축하고 “중화민족”이란 인위적인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관에 따라 중국은 자신 및 주변민족들의 모든 역사를 새로 집필하는 국사수정공정(國史修正工程, 2005~2015)을 전개했고, 2015년 4월 백두산을 중국 및 건주여진의 성산으로 반포함에 이르렀다. 또 이러한 자의적인 역사관에 입각하여 1911년 외몽골의 독립은 논리적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강 이북에 위치한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의 지방자치정권사로 간주하고 있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몽골과 건주여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문헌이나 연행록에 수록된 몽골·여진 관련기록의 종합적 연구를 통해 15세기부터 19세기에 조선 지배층인 관료나 선비들이 지닌 동아시아 인식과 대청제국의 성격을 살펴보는데 있다. 조선시대의 동아시아 인식은 크게 ①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 ② 정묘호란 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 ③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연행록 170편, 문집 1101개 및 기타 저작 26개를 대상으로,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조선 선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몽골과 건주여진(대청제국)에 관련된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170개 연행록에서 몽골은 73개(43%), 건주여진은 32개(19%), 조사대상 1101개 문집에서 몽골은 470개(42.7%), 건주여진은 560개(50.9%)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조선 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즉 이들은 주자학적 질서를 통치와 인식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방면에서는 문화와 군사를 분리해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대청제국이 만·몽 연합통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구체적인 사례분석으로 17세기 조선에서 태어난 어느 한 몽골군의 이야기인 <김승경(金勝京)전>과 이갑(李瑛, 1737~1795)의 <연행기사(燕行記事)>를 소개하였다.

조선시대의 문집이나 연행록에 수록된 몽골·여진 관련기록은 몽골과 건주여진이 중원의 한족과 기원 및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특히 본 연구는 1636년 이후 조선선비들이 대청제국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보고서는 중국의 민족이론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허상과 함께 동북공정의 모순을 밝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핵심어 : 연행록, 동북공정, 통일적다민족국가론, 연행기사(燕行記事)

목 차

1. 서론	1
2. 조선시대 선비들의 오랑캐 용어 개념 정의 및 인식	3
2.1. 오랑캐 용어의 개념 및 종류	3
2.1.1 오랑캐 용어의 개념	3
2.1.2 오랑캐 용어의 종류	10
2.2.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외인식에 관한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16
2.2.1 설문조사 항목	16
2.2.2 조사 결과	38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 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 일람표	40
3.1. 조선시대 문헌의 종류 및 가치와 연구방법	40
3.1.1 조선시대 문헌의 종류	40
3.1.2 연행록의 가치와 북방관련 기록 연구의 필요성	41
3.1.3 연구방법	46
3.2. 연행록 170편에 수록된 몽골, 건주여진의 기사분석	50
3.2.1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까지의 분석일람표	50
3.2.2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까지의 분석일람표	52
3.2.3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까지의 분석일람표	55
3.3. 문집 1101개 및 기타 저작에 수록된 몽골, 건주여진의 기사분석	57
3.3.1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까지의 분석일람표	57
3.3.2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까지의 분석일람표	73
3.3.3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까지의 분석일람표	87
3.3.4 출생연대 미상 문집 6개 및 기타 관련저작 26개의 분석일람표	93

4.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 건주여진의 기사의 상세 분석 사례	97
4.1. 이갑(李珥, 1737~1795)의 여행기사(燕行記事)에 수록된 몽골 및 건주 여진 기록의 분석	97
4.1.1 이갑(李珥)의 약력과 여행기사	97
4.1.2 여행기사의 몽골 및 건주여진 기록 분석	99
4.1.3 여행기사의 가치와 의미	174
4.2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의 곡운집(谷雲集) 「잡문(雜文)」에 수록된 김승경사실(金勝京事實)의 분석	176
4.2.1 김수증(金壽增)의 약력과 17세기 차하르몽골(Chakhar Monggol)의 중요기록 김승경사실	176
4.2.2 17세기 조선에서 태어난 어느 한 몽골군의 이야기 김승경사실의 내용 분석	179
5. 결론	184
참고 문헌	187
Abstract	192

1. 서론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류가 북방(유라시아-알타이어족 계열의 민족)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역사는 아직도 철학적이거나 역사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민족의 건국설화조차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비전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문명과 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남북문제에 있어서조차 6자회담이란 용어가 나타내주듯 주변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적 관점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나라이다. 우리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면, 영토가 작고 자원도 적으며 인구가 많아 세계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 그 위에 남북한이 분단 상태이다. 이는 결국 해외진출과 교역의 확보만이 우리의 생명선으로서, 세계를 보는 눈이 매우 필요한 민족임을 뜻한다.

세계를 보는 눈은 역사에서 나온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사 연구는 영역이나 사상에서 북방사와 고립되어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국사를 통해 세계를 볼 수 없었고, 북방민족들이 제시했던 이념도 공유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 우리민족의 정체성이나 역사교육, 대외정책도 뿌리 없이 흔들렸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1950년대 냉전시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 주변국에 대한 역사인식을 잃어버린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2010년 새해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외교정책 원칙인 유소작위(有所作為: 일이 있으면 할 일을 한다)였다. 즉 중국은 G2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제 힘이 생겼으니 거침없이 뜻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2010년 3월 26일)을 기점으로 먼저 한국에 적용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나 외교는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 한국은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2010년 4월)”는 말이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은 김영삼 정권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은밀하게 추구해온 북방정책이다. 그러나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북방 진출에서 찾는 21세기의 한민족 생존전략은 우리의 북방 역사관 미비로 인해 해당 국가들과 불협화음을 낳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의 간섭과 제동으로 인해 현재 급격히 좌초되고 있다.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반복되는 법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형세는 19세기 말의 정세와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19세기 말의 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고 또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주변 4강은 물론 1990년대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 등 유라시아-알타이 계열의 국가들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역사관부터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역사관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잃어 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오래된 중국의 격언이 있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중원의 역사에서 남송의 사대부와 같이 인류역사상 가장 배움이 큰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떤 시대이념을 가졌고 역정을 겪었던 간에 그들이 남긴 문헌들은 우리들의 소중한 역사자산이자 미래로 향하는 토대이다. 따라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립해야 한다. 정책연구의 성립이나 추진은 그 민족의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민족을 구성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바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 - 몽골과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 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것을 위해 기획되고 집필된 것이다.

본 연구는 연행록 170편, 문집 1101개 및 기타 저작 26개를 대상으로 몽골과 건주여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것이다. 몽골과 건주여진은 주자학을 시대이념으로 소중화의 세계를 꿈꾸었던 조선 사대부들에게 대외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실제적인 나라들이다. 조선 선비들의 대외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①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 ②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 ③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910)의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심화연구의 사례로 실제로 몽골군이 되어 활약했

던 조선인 김승경(金勝京) 이야기, 몽골사 연구에서 조선시대 문헌의 세계적인 사료가치를 입증하는 이갑의 연행기사(燕行記事)를 소개했다.

2. 조선시대 선비들의 오랑캐 용어 개념 정의 및 인식

2.1 오랑캐 용어의 개념 및 종류

2.1.1 오랑캐 용어의 개념

학문에서 용어의 개념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논증하는 역사학에서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주변의 이민족을 적대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모두 오랑캐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팩트(fact)를 증시하는 학문영역에서도 일상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정확한 번역을 추구해야 되는 고전문헌 번역에서도 통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오랑캐가 실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원문을 보지 않을 경우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번역 책임연구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의 번역사례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의 검색 사이트에 “오랑캐”라고 치면 “오랑캐에 대해 총 9996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고전번역서(5430건의 사례), 고전원문(3건의 사례), 조선왕조실록(3377건의 사례), 승정원일기(1016건의 사례), 일성록(151건의 사례), 한국문집총간해제(19건의 사례) 순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이곳에서 공통적으로 번역되고 있는 오랑캐는 도대체 언제 시작된 용어이며,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과연 우리 선조들은 주변의 적대세력을 오랑캐란 두루뭉술한 용어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일까. 그 의문점을 답하지 않고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사상누각에 빠질 수 있다.

우선 오랑캐란 번역의 허구성은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오랑캐 번역사례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원전출처】 이곡(李穀, 1298~1351) 가정집(稼亭集) 제9권 서(序) : 합포(合浦)로 출진(出鎭)하는 홍밀직(洪密直)을 전송한 글(送洪密直出鎭合浦序)

【번역】 아티기를 “저 조무래기 섬 오랑캐 따위는 우리 천조(天朝)에서 굳이 소탕할 가치도 없습니다(謂叢爾島夷,不足加以天誅)”.

“섬 오랑캐”라 번역된 도이(島夷)는 일본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경멸적 용어로는 倭虜, 橘虜, 倭寇, 倭奴, 倭賊, 西賊 등 다양한 표현법이 등장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인류역사상 남송의 사대부들과 함께 배움이 가장 큰 학자들에 속하며 사용하는 용어도 극히 정제되어 있다. 주자학의 고려 전파 이래 중원의 전통적인 사상교육을 받고 자라난 고려 말이나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조어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자들이다.

이들은 1368년 명나라의 건국과 함께 대원올로스(Yeke Yuan Ulus)가 중원을 포기하고 막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10여 년 간의 사태를 관망하다가 양 세력이 병립하는 국면이 지속되자 종래의 대원올로스를 북원(北元)이라는 묘한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북원은 명나라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대원올로스의 실체도 인정하는 외교적 배려의 성격이 짙게 가미된 절묘한 용어이다. 고려 말에 최초로 사용된 이 용어는 현재 세계 역사학계에서 공식적인 역사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주자학을 한국에 최초로 전파하고 제자를 가르친 대표적인 학자는 “만권의 책을 읽지 않고 만 리를 여행하지 않는 자는 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이계현(李齊賢, 1287~1367)이다. 그의 시집인 『익재난고(益齋亂藁)』는 실제 만 권의 책을 읽어야만 시 곳곳에 숨어 있는 문구의 출처를 알아낼 수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중원의 지적 유산이 숨어 있다. 중원의 시시콜콜한 고사까지 죄다 인용한 그의 시집은 어느 면에서 중원 문화의 고수가 쓴 중원의 역사고사 모음집과도 같다. 이로 인해 그의 시집은 이후 고려나 조선보다 중원에서 더 선호되었다.

이러한 지식이 출중한 고려 말이나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한자어가 아닌 오랑캐로 중국 이외의 민족을 두루몽술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실로 상상키 어렵다. 특히 조선선비들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말처럼 공자의 사상을 이은

중화사상의 완성국이란 자부심이 강했다. 따라서 중원에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東夷의 夷란 용어를 쓰는 것도 극히 기피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夷人에 대한 조선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충재(冲齋) 권벌(權撥, 1478~1548)의 『조천록(朝天錄)』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540년 11월 11일: 맑음. 조회를 보지 않음. 통사 이응성(李應星)과 최세영(崔世瀛)을 예부(禮部)에 보내어 종계(宗系)에 관한 복본을 베풀어 왔다. 이응성 등이 제본(題本) 안의 이(夷)와 관련된 말을 지적하며 허낭중(許郎中)에게 청하였다. “우리나라가 하(夏)로써 이(夷)를 변화시킨 것은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 제본을 보니 ‘이인(夷人)’란 말이 있는데 알맞지 않은 듯합니다. 대인께서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낭중이 웃으며 대답하고 즉시 상서(尙書)에게 아뢰어 ‘이인(夷人)’ 두 글자를 ‘외국’으로 고쳤다고 한다(十一月十一日,晴,免朝,遣通事李應星,崔世瀛于禮部,謄書宗系覆本而來,李應星等摘題本內緣係夷人之語,請許郎中曰,本國用夏變夷,有自來矣,今見題本,有夷人之語,竊所未安,望大人酌量何如,郎中笑而答之,卽稟于尙書,改夷人二字爲外國云.)

『조천록』은 권벌이 ‘개종계주청사(改宗系奏請使)’의 자격으로 중국에 다녀온 뒤 작성한 기행문이다. 1539년 윤7월 17일 중종이 주청사(奏請使) 권벌과 동지사(冬至使) 임권(任權, 1486~1557)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부터 12월 16일 홍려시(鴻臚寺)에 사단(辭單: 하직하는 단자)을 올리는 일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일기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가 중에서도 오랑캐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오랑캐(Uriyangkhai)라는 명칭은 몽골족의 기원 및 칭기스칸의 영욕을 읊은 대몽골제국의 정사인 『몽골비사』의 시조설화에도 “[코털라르타이-메르겐(Khorilartai-Mergen)과 그 딸인 알랑-고아(Alan-Go'a)는] 보르칸갈둔[산]의 주인이자 보르칸[이라는 신당(神堂)]을 열은 신치-바얀의 오리양카이[씨족의 곳으]로 이주해 왔다(『몽골비사』 제9절: “Burkhan-Khaldun-nu göre'esün görü'üli sayitu gajar sayin ke'en Burkhan- Khaldun-nu ejed Burkhan

boskhagsan Shichi-Bayan Uriyangkhai-dur ne'üjü ayisun aju'u.”)처럼 등장할 정도로 연원이 깊은 부족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전 「명흐하이르항산 주변 알타이-오리양하이족의 역사와 민속학적 연구현황」(『몽골학』32, 2012), 「토바의 역사와 대외관계」(『중앙아시아의 유목민 투바인의 삶과 문화』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5, pp.66-91), 「오리양카이 삼위」(『조선과 몽골 — 최덕중, 박지원, 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나는 몽골인식』서울, 소나무, 2010, pp.190-199)라는 논문을 통해 오랑캐의 한 어원을 이루는 몽골족 계열의 오리양카이(Uriyangkhai) 부족의 역사를 추적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몽골족 계열의 오리양카이 부족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오랑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사실 조선시대에서 병자호란 이전까지의 문헌기록을 조사해볼 경우 오랑캐를 뜻하는 상용어는 이적(夷狄)이며, “이적금수(夷狄禽獸)”나 “이적시랑(夷狄豺狼)”이라는 연어(連語)로 주로 표현되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오랑캐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며, 과연 이 용어가 주변의 이민족을 통칭하는 용어로 성립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논증을 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조선시대에서 오랑캐란 용어가 언제 출현했는가를 밝혀주는 기록이 조선 후기의 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그리고 그 밖의 일부 외국까지 포함해 역대의 제도·역사·경학·천문·지리·불교·도교·서학(西學)·예제(禮制)·재이(災異)·문학·음악·음운·병법·광물·초목·어충·의학·농업·광업·화폐 등 총 1,417항목에 달하는 내용을 변증설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해설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이규경은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을 지내고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를 지은 이덕무(李德懋)의 손자로, 사상적 개방성을 지닌 박학(博學)한 인물이다. 그는 「동국전사중간변증설(東國全史重刊辨證說)」, 「이십삼대사급동국정사변증설(二十三代史及東國正史辨證說)」 등 중국의 역사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 애정을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치밀하게 고증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고증은 문헌적으로 매우 신빙성을 지니는

데, 오랑캐에 대해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천지편(天地篇), 지리류(地理類), 인종(人種) 항목의 「울양합변증설(兀良哈辨證說)」조항에서 “오랑캐는 울양합(兀良哈)이며, 속어로는 오낭견(五囊犬)이라 한다(兀良哈, 俗以爲五囊犬)”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오랑캐는 건주여진을 말한다는 뜻이다.

그의 이러한 논증은 실제 1619년 3월 사르후(薩爾滸, Sarhu) 즉 심하(深河) 전투 때 청군의 포로가 되어 건주여진에 들어가 누루하치를 만나는 등 누구보다도 생생한 목격기를 남긴 조선 군관 이민환(李民奩, 1573~1649)의 『건주견문록(建州聞見錄)』에서도 입증된다. 『건주견문록』은 누루하치 통솔하의 만주족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군제인 팔기제(八旗制)를 비롯하여 생활습관, 혼인과 복장에 대한 기록까지 자세히 서술한 만주족 연구의 1급 사료이다. 이 속에 건주여진의 시조와 관련된 기록이 다음처럼 수록되어 있다.

개는 건주여진의 습속에서 시조로 간주하고 있으며, 절대로 도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가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말한다(犬則胡俗以爲始祖, 切不幸殺, 我國人有挾狗皮者, 大惡之云).

이 기록은 시대적으로 오낭견(五囊犬) 설화에 대한 최초의 관찰기록이다. 이 귀중한 기록을 남긴 이민환의 행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민환은 1618년 7월 명나라의 징병요구에 따라 원수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의 종사관[明赴援軍從事官]으로 요동에 출병하였다. 이때 광혜군의 인척인 관향사(管餉使) 박엽(朴燁, 1570~1623)을 군량운반 문제로 견책하여 서로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그는 심하(深河) 전투 때 부차(富車)에서 청군(淸軍)의 포로가 된 후 17개월 동안 건주여진 지역에 억류되었다.

1620년 억류에서 풀려나 만포(滿浦)에 도착했지만 박엽이 그를 무고하여 1623년 4월까지 4년간 의주(義州)에서 대죄하다가 박엽이 피살된 후 석방되었다. 박엽은 당시 평안감사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1623년 4월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제거 대상 1호로 꼽혀 임지인 평양에서 재판도 없이 비밀리에 죽임을 당했다.

이민환은 1624년 이괄(李适, 1587~1624)의 난 때 호종하고, 1627년 정묘호란

에서 전공도 세웠지만, 심하 전투 때 적에게 항복하여 절의를 저버렸다는 것 때문에 비겁자라는 비난을 종신토록 받다가 1649년 4월 77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문집인 『자암집(紫巖集)』에는 1618년 4월 명나라의 징병요청에서부터 1620년 만포진(滿浦鎭)에 도달하기까지의 일기인 『책중일록(柵中日錄)』과 함께 그가 포로생활에서 일기 형태로 남긴 『건주문견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은 광해군 시대의 정치 상황은 물론 당시 조선과 명, 청의 3국 입장과 동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민환의 『건주문견록』에서 목격된 건주여진의 시조설화인 오낭견(五囊犬) 설화는 윤봉조(尹鳳朝, 1680~1761)의 『포암집(圃巖集)』 권17 「순변사신공북관전승비명(巡邊使申公北關戰勝碑銘)」에도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萬曆癸未(1583)]드디어 도강하여 그 소굴을 쓸어냈다. 군사들의 함성이 크게 일어나자 한 건주여진의 여인이 군대 앞에 이르러 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미모가 아주 뛰어나 좌우에서 그녀를 죽이지 말 것을 권했다. 그러나 공이 휘하의 [장수들을] 꾸짖으며 그녀를 참수했는데, 말하기를 “이 [여인은] 개다”라고 했다(遂渡江盪其巢穴,軍聲大振,一胡女詣軍乞命,容色殊美,左右不忍殺,公叱麾下斬之曰,此犬物也).

신공(申公)은 신립(申砬, 1546~1592) 장군이다. 신립 장군은 투항한 뛰어난 미모의 건주여인을 개의 후예로 간주하여 참수하였는데, “이 여인은 개다”라는 표현은 건주여진의 오낭견 시조설화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기록을 문집에 수록한 윤봉조의 행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1705년(숙종 3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713년 암행어사가 되었다. 이어 이조좌랑·부교리·사인·응교 등을 역임하고 1719년 8월 승지가 되었다. 1727년 이조참의 방만규(方萬規)의 상소사건에 관련되어 하옥되었다가 삭주에 귀양 갔으나 곧 석방되었으며,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에 의하여 홍문관대제학에 천거되었으나 영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광좌(李光佐)가 정권을 획득하자 1728년 1월 정의현(旌義縣)에 귀양 가서 안치되었다. 1741년 관직이 복구되어 공조참판이 되었으며 1743년에 부제학, 1758년에 대제학이 되었다. 문장에 능하였는데 특히 소차(疏筭)의 작성

에 뛰어났다.

오낭건 설화는 누르하치(Aisin gioro Nurgaci, 愛新覺羅努爾哈赤, 1559~1626, 재위 1616~1626, 몽골어로 텡게린 보속토카간(Tenggeri-yin Boshugtu Khagan)이라고 부른다) 건주여진의 기원설화로 두만강 유역 일대의 만주족에게 널리 퍼져 있으며, 1920년대 한국 및 일본 학자들의 저서에도 채집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일본학자 이마니시류(今西龍, 1875~1932)는 간도(間島) 지방에서 채록한 오리양카이 씨족의 족조전승을 근거로 이 단어는 오리양(Uriyang)이라는 여신 숭배와 개(Khai)토템을 가진 씨족이 결합하여 생긴 말로 간주하고 있다(今西龍, 『朱蒙傳說及老獺稚傳說』 『朝鮮古史の研究』東京, 1937, p.504). 한국학자 장지량(張之亮)도 청실내력(淸室來歷)의 일설(一說)로 함경도 회령군(會寧郡)에서 전승되는 오낭건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張之亮, 『滿蒙及熱河誌』京城, 漢城圖書株式會社, 1929, pp.42-44)가 있다. 이마니시류나 장지량이 소개한 설화는 모두 건주여진족인 올랑합(兀良哈)이나 건주위(建州衛)와 연계된 시조설화로, 시대적으로는 조선 중기 즉 건주여진의 흥기와 관련되어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와 『건주건문록』, 『순변사신공복관전승비명』 및 근대 초 두만강 일대에서 청실내력(淸室來歷)으로 전승되는 오낭건 설화는 모두 오랑캐가 건주여진과 관계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오늘날 이적(夷狄) 대신에 우리가 사용하는 있는 오랑캐는 『조선왕조실록』등에 올랑합(兀良哈)이라고 표기된 건주여진이며, 몽골계열의 부족은 아니다. 왜냐하면 몽골족 계열의 오리양카이 삼위(兀良哈三衛)를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는 삼위달단(三衛韃靼), 삼위달자(三衛撻子), 삼위달자(三衛撻子) 등으로 명료하게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오랑캐는 우리의 역사과정(병자호란)에서 발생한 특정 부족(건주여진)의 명칭으로 이적(夷狄)을 구성하는 한 구체적인 명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북방민족 인식은 조선시대의 인식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시대 어느 때부터인가 북방민족의 통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오랑캐라는 표현이다. 북방민족사에서 오랑캐라는 명칭은 그 자체 내에 역사적인 전변이 아주 많다. 따라서 건주여

진 즉 오랑캐 부족 이외의 다른 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증시하는 역사용어로는 그 명칭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번역서에는 몽골이건, 만주족이건, 흉노건 일본이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으레 적대적 주변민족이면 모두 오랑캐로 번역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도 예외는 아니다. 북방민족이나 적대적 주변민족을 가리키는 다양한 한자들을 번역할 때에는 그 말이 통칭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려 표기해야 할 것이다.

2.1.2 오랑캐 용어의 종류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몽골이나 건주여진, 흉노나 돌궐 등 북방민족을 표현할 때 다양한 한자들을 동원하여 표기하였다. 조선 선비들은 위낙 조어능력이 뛰어난 학자들이라 중원지역의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용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 용어는 개인의 취향과 북방인식의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 선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방민족 특히 몽골과 건주여진에 대한 호칭을 특정하지 않은 100여개 문집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제시하면 다음 도표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호칭은 일반적인 칭호 대신 조어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선정하여 수록했다.

[표 1] 오랑캐 용어의 종류

문집명	저자	생년월일	호칭
15세기			
四佳集	四佳亭 徐居正	1420(世宗2)~1488(成宗19)	元朝
虛白亭集	虛白亭 洪貴達	1438(世宗20)~1504(燕山君10)	韃賊, 靺子
憂亭集	憂亭 金克成	1474(成宗5)~1540(中宗35)	北戎
默齋集	默齋 洪彥弼	1476(成宗7)~1549(明宗4)	獯虜, 黠虜
慕齋集	慕齋 金安國	1478(成宗9)~1543(中宗38)	獯虜
大谷集	大谷 成運	1497(燕山君3)~1579(宣祖12)	北賊

16세기			
嘯臯集	嘯臯 朴承任	1517(中宗12)~1586(宣祖19)	元朝
松川遺集	松川 梁應鼎	1519(中宗14)~1581(宣祖14)	羯虜
岐峯集	岐峯 白光弘	1522(中宗17)~1556(明宗11)	狂胡
藥圃集	藥圃 鄭琢	1526(中宗21)~1605(宣祖38)	老虜
拙翁集	拙翁 洪聖民	1536(中宗31)~1594(宣祖27)	大元
沙村集	沙村 張經世	1547(明宗2)~1615(光海君7)	夷酋
知集堂集	知集堂 李廷馨	1549(明宗4)~1607(宣祖40)	建州三衛野人
慕堂集	慕堂 孫處訥	1553(明宗8)~1634(仁祖12)	蒙戎
五峯集	五峯 李好閔	1553(明宗8)~1634(仁祖12)	獫狁
海月集	海月 黃汝一	1556(明宗11)~1622(光海君14)	三衛獫狁, 朝貢獫狁, 北獫, 酋虜
秋灘集	秋灘 吳允謙	1559(明宗14)~1636(仁祖14)	賊虜
梧峯集	梧峯 申之梯	1562(明宗17)~1624(仁祖2)	獫虜
艮庭集	艮庭 李惟弘	1566(明宗21)~1619(光海君11)	老賊
苟全集	苟全 金中淸	1566(明宗21)~1629(仁祖7)	獫奴
敬菴集	敬菴 盧景任	1569(宣祖2)~1620(光海君12)	奴賊
東岳集	東岳 李安訥	1571(宣祖4)~1637(仁祖15)	奴獫
灌圃集	灌圃 朴弘美	1571(宣祖4)~1642(仁祖20)	建州小醜
紫巖集	紫巖 李民寔	1573(宣祖6)~1649(仁祖27)	差胡
雙峯集	雙峯 鄭克後	1577(宣祖10)~1658(孝宗9)	元兵
南礪集	南礪 羅海鳳	1584(宣祖17)~1638(仁祖16)	虜賊
白江集	白江 李敬輿	1585(宣祖18)~1657(孝宗8)	驕虜, 奴虜

惺所覆蛄藁	惺所 許筠	1569(宣祖2)~1618(光海君10)	天驕
遲川集	遲川 崔鳴吉	1586(宣祖19)~1647(仁祖25)	建州夷, 撻兵, 差人, 暴虜
龍洲遺稿	龍洲 趙綱	1586(宣祖19)~1669(顯宗10)	藩奴
谿谷集	谿谷 張維	1587(宣祖20)~1638(仁祖16)	奴差
東溟集	東溟 金世濂	1593(宣祖26)~1646(仁祖24)	金汗
松崖集	松崖 金慶餘	1596(宣祖29)~1653(孝宗4)	清皇帝
17세기			
柏谷集	柏谷 金得臣	1604(宣祖37)~1684(肅宗10)	丙子撻亂
石湖遺稿	石湖 尹文學	1606(宣祖39)~1672(顯宗13)	虜汗
宋子大全	尤菴 宋時烈	1607(宣祖40)~1689(肅宗15)	兇虜, 金汗, 戎醜, 撻將
晦谷集	晦谷 曹漢英	1608(宣祖41)~1670(顯宗11)	金主
滄洲遺稿	滄洲 金益熙	1610(光海君2)~1656(孝宗7)	西獮
魯西遺稿	魯西 尹宣學	1610(光海君2)~1669(顯宗10)	西虜
葵窓遺稿	葵窓 李健	1614(光海君6)~1662(顯宗3)	萬柱
明谷集	明谷 具峯	1614(光海君6)~1683(肅宗9)	兇酋
歸巖集	歸巖 李元禎	1622(光海君14)~1680(肅宗6)	建州酋
谷雲集	谷雲 金壽增	1624(仁祖2)~1701(肅宗27)	大元獮子
退憂堂集	退憂堂 金壽興	1626(仁祖4)~1690(肅宗16)	北使
靜觀齋集	靜觀齋 李端相	1628(仁祖6)~1669(顯宗10)	胡狄
東山遺稿	東山 趙晟漢	1628(仁祖6)~1686(肅宗12)	清國, 清兵, 西虜
德浦遺稿	德浦 尹摺	1631(仁祖9)~1698(肅宗24)	北庭(清朝)
退堂集	退堂 柳命天	1633(仁祖11)~1705(肅宗31)	奴胡, 北戎

2. 조선시대 선비들의 오랑캐 용어 개념 정의 및 인식

一峯集	一峯 趙顯期	1634(仁祖12)~1685(肅宗11)	蒙胡, 金胡
恬軒集	恬軒 任相元	1638(仁祖16)~1697(肅宗23)	建胡
迂齋集	迂齋 趙持謙	1639(仁祖17)~1685(肅宗11)	奴夷
壺隱集	壺隱 洪受疇	1642(仁祖20)~1704(肅宗30)	戎狄
觀復齋遺稿	觀復齋 金構	1649(仁祖27)~1704(肅宗30)	清國
密菴集	密菴 李栽	1657(孝宗8)~1730(英祖6)	蒙人
柳下集	柳下 洪世泰	1653(孝宗4)~1725(英祖1)	虜皇
老稼齋集	老稼齋 金昌業	1658(孝宗9)~1721(景宗1)	驕胡
昆侖集	昆侖 崔昌大	1669(顯宗10)~1720(肅宗46)	滿洲虜
北軒集	北軒 金春澤	1670(顯宗11)~1717(肅宗43)	元代
和隱集	和隱 李時恒	1672(顯宗13)~1736(英祖12)	滿住, 酋胡
西堂私載	西堂 李德壽	1673(顯宗14)~1744(英祖20)	清朝
寄翁集	寄翁 南漢紀	1675(肅宗1)~1748(英祖24)	蒙酋
鶴巖集	鶴巖 趙文命	1680(肅宗6)~1746(英祖22)	蒙軍, 汗胡, 胡皇
鶴塘遺稿	鶴塘 趙尙綱	1681(肅宗7)~1746(英祖22)	臊獫
青泉集	青泉 申維翰	1681(肅宗7)~1752(英祖28)	金胡
南塘集	南塘 韓元震	1682(肅宗8)~1751(英祖27)	獫馬, 元太祖
屏溪集	屏溪 尹鳳九	1683(肅宗9)~1767(英祖43)	虜元, 韃胡, 韃女, 韃子
樗村遺稿	樗村 沈鎭	1685(肅宗11)~1753(英祖29)	虜雛
石門集	石門 尹鳳五	1688(肅宗14)~1769(英祖45)	金酋, 清酋, 賊酋
立齋遺稿	立齋 姜再恒	1689(肅宗15)~1756(英祖32)	蒙寇, 孽胡, 蒙元
冠陽集	冠陽 李匡德	1690(肅宗16)~1748(英祖24)	健奴, 獫騎

雷淵集	雷淵 南有容	1698(肅宗24)~1773(英祖49)	撻蒙
歸鹿集	歸鹿 趙顯命	1691(肅宗17)~1752(英祖28)	建胡
沙村集	沙村 金致堉	1692(肅宗18)~1742(英祖18)	桀虜, 虜王
18세기			
洙湖集	洙湖 金元行	1702(肅宗28)~1772(英祖48)	虜帝
江漢集	江漢 黃景源	1709(肅宗35)~1787(正祖11)	達人
在澗集	在澗 任希聖	1712(肅宗38)~1783(正祖7)	胡使
石北集	石北 申光洙	1712(肅宗38)~1775(英祖51)	滿洲汗
雪橋集	雪橋 安錫傲	1718(肅宗44)~1774(英祖50)	元虜, 胡帝
良翁集	良翁 李獻慶	1719(肅宗45)~1791(正祖15)	淸使
竹下集	竹下 金煜	1722(景宗3)~1790(正祖14)	老魯
海左集	海左 丁範祖	1723(景宗3)~1801(純祖1)	藩虜, 胡魯, 胡皇
存齋集	存齋 魏伯珪	1727(英祖3)~1798(正祖22)	滿住國
頤齋遺藁	頤齋 黃胤錫	1729(英祖5)~1791(正祖15)	淸胡
履園遺稿	履翁 李晚秀	1752(英祖28)~1820(純祖20)	滿虜
研經齋全集	研經齋 成海應	1760(英祖36)~1839(憲宗5)	胡淸, 淸帝
金陵集	金陵 南公轍	1760(英祖36)~1840(憲宗6)	滿人
碩齋稿	碩齋 尹行恁	1762(英祖38)~1801(純祖1)	滿州, 滿州虜
與猶堂全書	茶山 丁若鏞	1762(英祖38)~1836(憲宗2)	虜奴, 蒙太祖, 蒙太宗, 蒙憲宗, 蒙主, 蒙古主, 建州女眞
老洲集	老洲 吳熙常	1763(英祖39)~1833(純祖33)	漢面胡腸
警修堂全藁	紫霞 申緯	1769(英祖45)~1845(憲宗11)	蒙王
定齋集	定齋 柳致明	1777(正祖1)~1861(哲宗12)	元皇

錦谷集	錦谷 宋來熙	1791(正祖15)~1867(高宗4)	夷虜, 戎虜
19세기			
省齋集	省齋 柳重教	1832(純祖32)~1893(高宗30)	元君, 西胡
后山集	后山 許愈	1833(純祖33)~1904(高宗41)	漢虜, 唐胡
勉菴集	勉菴 崔益鉉	1833(純祖33)~1906(高宗13)	滿虜, 臬虜, 狷虜, 淸虜
舫山集	舫山 許薰	1836(憲宗2)~1907(純宗1)	建奴
良齋集	良齋 田愚	1841(憲宗7)~1922	元君
松沙集	松沙 奇宇萬	1846(憲宗12)~1916	藩虜, 北寇
明美堂集	寧齋 李建昌	1852(哲宗3)~1898(高宗35)	滿州人
俛宇集	俛宇 郭鍾錫	1846(憲宗12)~1919	髡虜

이상의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에는 몽골이나 건주여진을 부르는 호칭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것과 함께 여타의 문집에 나타난 것을 합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蒙古, 蒙元, 蒙兵, 蒙王, 蒙人, 蒙胡, 蒙寇, 韃靼, 鞑子, 胡元, 元虜, 元人, 元朝, 元胡, 皇元, 大元, 北人, 北虜, 北狄, 北賊, 北戎, 戎狄, 北胡, 藩胡, 蕃胡, 番胡, 胡賊, 胡虜, 胡淸, 胡差, 虜差, 虜使, 北使, 胡使, 差胡, 差人, 淸使, 胡雛, 建虜, 健奴, 建州, 建州衛, 建州虜, 建州夷, 建州胡, 建州賊, 建州小醜, 建州野人, 建州衛獐子, 建州三衛野人, 建夷, 淸虜, 金虜, 金胡, 淸胡, 淸人, 滿人, 滿洲虜, 滿州, 滿住, 淸主, 淸帝, 淸皇, 醜虜, 建酋, 建州酋, 虜酋, 虜主, 虜王, 虜汗, 胡酋, 胡皇, 胡帝, 奴酋, 老酋, 奴賊, 老賊, 虜賊, 夷奴, 夷狄, 達達, 達賊, 韃賊, 達人, 達子, 撻子, 韃子, 撻子, 西撻, 西撻蒙古, 西韃蒙古, 西獮, 北撻, 東撻, 東撻, 眞撻, 假撻, 撻虜, 撻奴, 撻寇, 撻賊, 撻種, 撻兵, 撻蒙, 撻騎, 撻將, 西賊, 狷夷, 凶奴, 狡虜, 狂寇, 狂虜, 狂賊, 狂胡, 奴胡, 驕胡,

孽胡, 夷虜, 戎虜, 獯虜, 黠虜, 孽虜, 悍虜, 猾虜, 勁虜, 強虜, 賊虜, 驕虜, 奴虜, 暴虜, 寇虜, 桀虜, 讎虜, 羯虜, 西虜

이러한 호칭은 조선선비들이 이적(夷狄)의 칭호에 대한 조어능력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이적(夷狄)들을 구분하는 방식의 정교하고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문헌에 나오는 수많은 이민족들을 오늘날 단순히 오랑캐라는 단어 하나로 통일하여 번역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2.2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외인식에 관한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2.2.1 설문조사 항목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 2015년 8월 24일 ~ 2015년 9월 12일 (20일)

○ 설문개요

본 설문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 [조선시대 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 - 몽골과 건주여진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사)미래전략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몽골, 한국-중국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논리구축 및 추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이메일 설문조사(10항목)와 인터뷰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이메일 설문조사의 경우 국내 전문분야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들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내 전문분야 연구자들의 북방인식과 제언을 통해 한국과 몽골, 한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미래관계설정 및 이를 통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논리적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연구원 전문위원 및 국내 전문분야 연구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나은 한·몽, 한·중 관계와 남북통일 후 한국의 미래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입장에서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며, 다른 용

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협력은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협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연구원 박원길 올림

<설문 참가자의 비밀 보장>

모든 설문조사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유되거나 수집되지 않습니다. 응답자의 개별 응답 내용이 보호된 총합적 데이터 형식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2) 설문 문항

가. 조선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총론적 설문 2개

오늘날 동아시아는 역사논쟁의 시기라 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 간에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황국사관 등 심히 우려를 낳는 역사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역사사실에 대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인류역사상 남송의 사대부들과 함께 배움이 가장 큰 학자들에 속하며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는 전쟁 등 격변이나 주도세력의 성격 및 사회상의 변천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볼 때 크게 ①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 ②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 ③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로 나누어집니다. 조선 지배층인 관료나 선비들이 지닌 동아시아 인식도 위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바탕 한 총론적인 질문 2개입니다.

① Post-동북공정에 대한 설문입니다.

특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몽골을 대상으로 했던 북방공정(1985)을 통해 영토 및 민족이론을 구축하고 이어 서남공정(티베트, 1986), 남방공정(베트남, 1997), 서북공정(신장, 2002), 동북공정(만

주 및 한반도, 2002),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1996~2000), 중국고대문명 탐원공정(中國古代文明探源工程, 2001~2010)을 통해 초원과 중원의 민족 및 역사는 모두 황제(黃帝) 시원(始源)의 동일 기원을 갖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 및 민족이론을 구축기간 동안 가장 강한 반발을 나타낸 나라가 한국과 몽골이었습니다. 따라서 몽골국과 한국의 반발에 대해 중국은 이들이 반발할 수 없는 논리적 후속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양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요하문명론입니다. 홍산문화(紅山文化)로 잘 알려진 요하문명론은 시기적으로 동아시아의 최고문명(B.C.7000-B.C.2000)이며 한국과 몽골 양쪽에 모두 관계된 북방문화계열의 문명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Y자 벨트라는 문명교류 이론을 개발하여 이것을 황하문명과 연결시킨 뒤, 홍산문화(요하문명)가 황제를 시원으로 하는 문명이라는 것을 입증 중입니다. 황제 시원의 요하문명론은 흉노 및 고조선의 기원과도 맞물린 Post-북방공정, Post-동북공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요하문명론이 완성될 경우 몽골과 한국의 시원(始源) 및 고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역사관에 따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역사를 새로 집필하는 국사수정공정(國史修正工程, 2005~2015)을 전개했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2015년 4월 백두산을 중국 및 건주여진의 성산으로 반포함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들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외교관계구축을 위해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역사이념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위원님은 Post-동북공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가. 모른다 ()

나. 알고 있다 ()

☞ 알고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조선시대 오랑캐 용어의 개념에 대한 설문입니다.

학문에서 용어의 개념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논증하는 역사학에서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주변의 이민족을 적대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모두 오랑캐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팩트(fact)를 중시하는 학문영역에서도 일상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정확한 번역을 추구해야 되는 고전문헌 번역에서도 통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오랑캐가 실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원문을 보지 않을 경우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조선시대에서 병자호란 이전까지의 문헌기록을 조사해볼 경우 오랑캐를 뜻하는 상용어는 이적(夷狄)이며, 오랑캐는 건주여진을 가리키는 특정 용어(역사용어)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용어가 오늘날 주변의 이민족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로 성립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위원님은 지금까지 오랑캐란 용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일반용어가 아닌 역사용어로 인식하고 계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 일반용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

나. 역사용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

☞ 역사용어로 인식하셨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조선시대 문헌사료 종류 및 이용에 대한 총론적 설문 2개

주자학을 시대이념을 가지고 있는 조선은 모든 일의 기록과 보존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정부 공식기록물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

록, 비변사등록이 있습니다. 또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 다녀올 경우 공식 출장 보고서와 함께 개인적으로 여행기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조선시대는 사대부의 시대답게 거의 모든 양반들이 자신들의 문집을 남기고 있으며, 그 아래 계층인 역관 등 중인들이 남긴 문집도 적잖습니다. 이 기록물들은 동아시아의 방대한 기록유산이자 국제성을 띤 학문자료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문 2개입니다.

③ 조선시대의 정부 공식기록물에 대한 설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정부 공식기록물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책 이름입니다. 즉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 25대에 걸친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年月日順)에 따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실록으로 약칭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는 연산군 일기(燕山君日記)나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와 같이 ‘일기’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체제나 성격은 다른 실록들과 똑같습니다. 대부분 왕대마다 1종의 실록을 편찬하였지만 선조실록, 현종실록, 경종실록은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여 후에 수정(修正) 혹은 개수(改修) 실록을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광해군일기는 인쇄되지 못한 정초본(正草本: 鼎足山本)과 중초본(中草本: 太白山本)이 함께 전하는데, 중초본에는 최종적으로 산삭한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록에 수록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왕과 신하들의 인물 정보, 외교·군사 관계, 국정 의논의 과정, 의례(儀禮)의 진행, 천문 관측 자료, 천재지변 기록, 법령과 전례 자료, 호구와 부세(賦稅)·요역(役)의 통계자료, 지방정보와 민간 동향, 계문(啓聞)·차자(箚子)·상소(上疏)와 비답(批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록의 찬수 때마다 일정한 범례를 만들어 기사의 취사선택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는 하지만, 국정의 운영이나 사회의 동향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실록에 수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초기의 실록에는 유교적 규범의 관점에서 수록하기 곤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실록의 기사가 정치적 내용에 치우쳐 다양성을 잃게 되고 기록이 빈약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왕의 실록은 반드시 해당 왕의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사관들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부여 받아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신(史臣)은 논한다. …”라는 형식으로 사관의 의견(일종의 논평)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 및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 행정 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일기입니다. 승정원은 조선 정종 때 창설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 건국 초부터 정리되었으나 조선전기분(朝鮮前期分)은 임진왜란 등의 병화(兵火)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는 1623년(인조1) 3월부터 1894년(고종 31) 6월까지 272년간 승정원에서 처리한 국정 기록과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규장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1910년(융희 4)까지의 총 3,243책만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계품(啓稟), 전지(傳旨), 청패(請牌), 청추(請推), 정사(呈辭), 상소(上疏), 선유(宣諭), 전교(傳敎)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책의 기재 방식은 한 달을 기준으로 책머리에 월간 경연상황, 내전(內殿)의 동향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승정원의 관리 및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실태를 표시한 뒤 마지막에 승정원의 업무현황, 왕 및 내전의 문안, 승정원의 인사관계(人事關係) 등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국사(國史)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군사 등 모든 학문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인 승정원일기는 세계 최대 및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성록(日省錄)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151년 동안의 국정 운영 내용을 매일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입니다. 일성록

(日省錄)이란 명칭은 논어(論語)에서 증자(曾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吾日三省吾身)”에서 유래했습니다. 일성록의 서문에는 “옛날을 보는 것은 지금을 살피는 것만 못하고,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반추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최초 개인 일기적인 성격을 지닌 일성록은 정조 때부터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규장각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매일매일 일기를 작성한 다음 5일마다 일기를 정서하여 이를 국왕에게 올려 결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정조는 일성록이 자기 시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승정원일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성록을 편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성록은 국정의 주요 현안들을 강(綱: 표제)과 목(目: 세부 사실)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국정 운영에 참고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는 체제로 편찬되었습니다. 일성록은 18~20세기 동·서양의 정치·문화적 교류의 구체적 실상과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기록물을 넘어서는 세계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은 임진왜란 이후 250여 년 동안 국정을 총괄한 비변사의 일기체 기록으로서 조선 후기 국정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일급 1차 사료입니다. 현재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276년의 분량이 273책의 필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의 기재방식은 왕의 시대와 연월일, 매월마다 비변사의 구성원들을 기재한 좌목(座目)이 있고, 그 뒤에 회의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 시대마다 국가중대사의 전모와 경과, 그리고 사후처리까지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구위원님께서는 자신들의 연구분야의 논저 집필에 위의 기록물을 언급하거나 인용한 일이 계신지요?

가. 없음 ()

나. 있음 ()

☞ 있음으로 답할 경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④ 연행록에 대한 설문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헌 중 가장 많은 대외관계 기록과 인식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조선시대의 대외 여행기인 연행록입니다. 연행록의 명칭은 명대에는 조천록(朝天錄), 청대에는 연행록(燕行錄)으로 일반화 되었지만 명대에 연행록, 청대에 조천록이라 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조천록, 연행록이란 명칭에 앞에 간지(干支)나 저자의 호(號)를 붙여 쓴 경우도 많고 조천기(朝天記), 조천일기(朝天日記), 조천록(朝天錄), 조천시(朝天詩), 조천일승(朝天日乘), 서행기(西行記), 북정기(北征記), 북행록(北行錄), 북행일기(北行日記)도 있습니다.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이었던 시기에는 심양일기(瀋陽日記), 심양일록(瀋陽日錄), 심양일승(瀋陽日乘), 심관록(瀋館錄) 등도 있습니다. 청대에는 연행록 외에 연행기(燕行記), 연행시(燕行詩), 연행일록(燕行日錄), 연행잡기(燕行雜記), 연행잡식(燕行雜識), 연기(燕記), 연행별록(燕行別錄), 부연시(赴燕詩), 연행가(燕行歌), 연행일승(燕行日乘), 연행기사(燕行記事), 사행록(槎行錄), 승사록(乘槎錄), 연사록(燕槎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연행록이라 함은 조선시대에 명나라와 청나라의 수도였던 북경과 심양, 열하(熱河) 등지를 다녀온 조선 지식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시문, 기행문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여 놓은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술방법은 시, 일기, 수필체 형식의 기행문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또 모든 형체를 아우르는 저술도 있습니다. 연행록의 저자들은 사행에 참가한 정사, 부사, 서장관 외에 이를 수행하는 군관, 군관자제, 보좌관들입니다. 글의 성격은 비교적 자유롭고 자신을 나타내는 창의적인 글이 많습니다. 사행은 주로 정례적인 동지사(冬至使), 하지사(夏至使), 춘신사(春信使), 성절사(聖節使) 그리고 조선 측의 안전과 관련하여 계품사(啓稟使), 고부사(告訃使), 가계주청사(家系奏請使) 등과 중국 측 사안과 관련하여 진하사(進賀使), 진주사(陳奏使), 진위사(陳慰使) 등이며, 매년 정해진 노정의 문물을 접하기 때문에 연행록은 해당 지방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는 정밀한 고증이 가능할 정도로 사료가치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연행록은 오늘날 외국학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한국 자료 중 최고일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행록은 둔황학(敦煌學)처럼

연행학(燕行學)이란 특수학문분야로 독립해야 할 정도로 동아시아의 방대한 기록유산이자 국제성을 띤 학문자료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연행록은 약 600여종에 이릅니다. 현재 연행록에 대해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혹시 연구위원님께서서는 자신들의 연구분야의 논저 집필에 연행록을 언급하거나 인용한 일이 계신지요?

가. 없음 ()

나. 있음 ()

☞ 있음으로 답할 경우 그 정치나 외교 등 구체적인 분야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중국이 요동을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 관한 설문 1개

요동은 옛 고구려 영토로 조선의 북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이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이 지역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요동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원세력이나 북방세력, 해양세력들 간에 점유를 위한 각축이 전개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미래 한국의 요동진출에 대비한 역사적 논리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문 1개입니다.

⑤ 임진왜란과 요동에 대한 명나라 지식인들의 조선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요동지역에 대한 중원왕조의 인식은 당나라 태종의 “요동은 옛 중국의 땅이며, 도적 막리지가 그 군주를 죽였으므로 짐이 친히 경략하려 한다.”라는 말처럼 본래부터 자기들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역사에서 요동지역의 실력자에게 주는 명칭 중 고구려 멸망 이후 고려왕이란 칭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조선왕의 칭호가 부활됩니다. 이러한 중원왕조의 요동 인식은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두고도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정(趙靖, 1555~1636)의 검간집(黔澗集)에 수록된 명나라 유학자 許儀俊의 “1590년 경인(庚寅) 5월에 고려(조선)가 일본에 사절단

을 보냈다. 또 선봉이 되어 대명(大明)에 쳐들어가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庚寅五月,高麗遣使貢驢于日本,且爲先鋒,約入大明云).”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명나라 유학자 許儀俊가 1592년 1월에 본국에 보낸 편지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계략을 꾸며 명나라를 친다는 인식 중 가장 파괴력이 컸던 것이 1598년 9월 임진왜란에 참가한 명나라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가 “만력(萬曆) 20년(1592)에 마침내 그들 나라에 세거(世居)하고 있던 왜호(倭戶)로 하여금 여러 섬의 왜노(倭奴)를 불러들여 군사를 일으켜 함께 천조(天朝=명나라)를 침범하여 요하(遼河) 이동 지방을 탈취해 고려(高麗) 옛 강토를 회복하여 하였다.”라고 본국에 보고한 소위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誣奏)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宣祖修正實錄』「三十一年(1598) 九月一日(癸未)」)에도 특기되어 있고, 당시 선비들이 개인문집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조선의 영의정은 유성룡(柳成龍, 1542~1607)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러 명나라에 가는 대신 명령불복종의 파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1604년(선조 37년)까지 1592년(선조 25)에서 1598년(선조 31)까지 7년 동안의 일을 기록한 징비록(懲毖錄)을 남겼습니다. 징비록(懲毖錄)은 ‘알면 행하여야 한다’는 유성룡의 철학인 지행병진설(知行並進說)이 반영된 책으로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수난이 되풀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임진왜란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조정의 실책, 백성들의 임금과 조정에 대한 원망 등이 담겨 있습니다. 유성룡은 자신의 문집인 『서애집(西厓集)』에 “옛말에 ‘남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그 지혜가 깊다’고 한 것은 참으로 피가 깊어서가 아니라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古語云,迫於人者其智深,非眞計深,勢使然也).”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대외인식과 외교노선을 상징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연구위원님은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둘러싸고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정응태의 무주(誣奏)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가. 몰랐다 ()

나. 알고 있다 ()

☞ 알고 있을 경우 그 정보입수 경위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 임진왜란에 참가한 명나라 군대의 실체에 관한 설문 1개

임진왜란은 전쟁당사자인 조선과 일본만이 아니라 몽골과 건주여진까지도 개입한 국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고대일록(孤臺日錄)의 기록 중 “[1597년 4월 18일] 왜적들은 밤낮으로 우리나라를 도모하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니 가슴 아프다! ... [1608년 7월 26일] 요동 자사(遼東刺史) 이성량(李成樑)의 아들 여송(汝松) 등이 천자(天子)에게 주문(奏聞)하기를, ‘조선의 왕자들이 왕위를 다투니, 빈틈을 타고 들어가 쳐서 군현(郡縣)으로 삼읍시다.’라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해진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의 지배세력은 광해군 때 요동에 파견된 조선군이 심하(深河, Sarhu) 전투에서 청군을 배반하고 명나라 측에 선 김응하(金應河, 1580~1619)를 요동백(遼東伯)이라 기린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명나라와 그 군대를 천조(天朝)와 천병(天兵)으로 칭하면서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문 1개입니다.

⑥ 임진왜란 때 최초로 참가한 명나라 군사의 실체에 대한 조선 선비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쇄미록(鎖尾錄),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난중일기(亂中日記),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 등 근 40여종에 이릅니다. 함양 선비 정경운(鄭慶雲, 1556~?)의 고대일록(孤臺日錄)도 이러한 임진왜란의 체험 기록 중 하나로 1986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1592년 4월 23일부터 1609년 10월 7일까지 일기체 형식으로 써진 고대일록은 직접 목격한 것 이외에 관보(官報)·격문(檄文)·교문(敎文)·통문(通文)·사신(私信) 등을 이용한 실기(實記)로 임금의 행적과 관료들의 행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경운은 전쟁 초기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소모유사(召募有司)와 의병장 김면(金沔, 1541~1593)의 소모사

(召募使)였으며, 전쟁 중 큰 딸이 왜적을 피해 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임진왜란 때 최초로 참가한 명나라의 기병대가 실제로는 몽골의 용병부대이며 이들이 최초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명나라 군대는 실력도 없이 조선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기록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92년 7월 13일]광녕(廣寧)의 총병(摠兵) 양원(楊元)이 친히 몽골용병(向義獋子) 5천을 거느리고 왔다. … [1592년 11월 5일]남경(南京)의 포수(炮手) 6만 명과 몽골용병가정달자(家丁獋子) 5만 명이 9월 15일 강을 건너와 진(鎭)에 머물고 있다. … [1593년 2월 2일]요동 총병관(遼東摠兵官) 이성량(李成樞)의 아들 이여송(李如松) · 이여백(李如栢) · 이여매(李如梅) · 이여오(李如梧) 등이 각기 가병(家兵) 천여 명씩을 거느리고 와서는 왜놈을 토멸했다. … [1593년 4월 26일] 명나라 5천여 명의 기병(騎兵)은 각자 사흘 치의 양식을 지참해서, 적의 무리를 추격하며 곧바로 영남으로 내려갔다. … [1593년 7월 11일] 명나라 군대가 사방으로 나가 남의 빈집을 뒤지니, 백성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 … [1593년 7월 14일] 명나라 군대가 군(郡)에 가득하고 주민은 텅 비었으니, 굶어모으는 피해가 왜노(倭奴)와 다를 바가 없다. … [1595년 11월 5일] 명나라 병사 다섯 명이 또 우리 집에 들어와 병아리를 모두 죽였다. 또한 곡물을 빼앗고, 술과 고기를 내놓으라고 화를 내는데, 성화(星火)보다 급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나무와 돌을 다루듯이 마음대로 때렸다. 나는 말세에 태어나서 어찌 이다지도 불행한가.” 이 기록속의 향의달자(向義獋子)나 가정달자(家丁獋子), 가병(家兵)은 모두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몽골의 용병부대이며 명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고대일록에는 “관군은 약탈을 일삼고 관리들은 매관매직을 일삼는다. 상벌은 원칙이 없으며 조정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기록처럼 임란 당시 무능과 부패에 물든 조선의 지배층에 대한 원망이 실려 있습니다.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의 문집인 상촌고(象村稿)에는 명나라 측으로 참전한 몽골장군들의 이름과 행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해생(解生, Khaisan): 자(字)는 문영(文英) 호는 순천(順泉)으로 선부(宣府) 전위(前衛) 사람이다. 정유년에 흠차비왜좌익부총병(欽差備倭左翼副摠兵) 서도독침사로 대동(大同)의 기마병 2천 5백 명을 이끌고 7월에 나와

8월에 수원(水原)으로 내려가서 적을 쳤으며 9월에 남하하였다가 기해년 8월에 돌아갔다. 용맹스러웠고 전투를 잘 했으며 전진(戰陣)에 임해서는 반드시 앞장을 섰다. 부하들을 매우 엄하게 단속하고 성품 역시 공손하였는데, 늘 나라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獐軍(몽골군)으로서 외람스럽게도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나 천승(千乘)의 임금과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받는 것(抗禮)을 어떻게 감히 감당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상[선조]이 접대할 때마다 번번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술잔을 비운 뒤 절하고 일어나는 등 매우 깎듯이 행동하였다. ②파새(擺賽: Bars): 호는 서하(西河)로 대동(大同) 우위(右衛) 사람이다. 파귀(頗貴)·해생(解生)·양등산(楊登山)과 마찬가지로 몽골장군[獐將]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파새가 가장 용맹스러웠다. 정유년 8월에 흠차통령선대초모이병유격장군(欽差統領宣大招募夷兵游擊將軍) 도지휘첨사로 마병 3천을 이끌고 나왔다가 무술년 정월에 병으로 죽었다. 도산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경리가 장차 회군하려 할 때 파새가 홀로 결전(決戰)할 것을 청했는데 경리가 들어주지 않자 파새가 말 앞에 가로 누워 일어나지 않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비평하였다.” 위의 두 책은 임진왜란이 우리와 일본, 명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몽골과 건주여진까지 개입된 국제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진왜란 때 몽골군이 조선을 위해 큰 힘을 발휘했을 뿐만이 아니라 명나라를 조심하라는 말까지 해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연구위원님은 명나라 군대의 실체를 폭로한 고대일록이나 상촌고를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가. 없다 ()

나. 있다 ()

☞ 있다고 답한 경우 몽골부분도 읽으셨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 17~18세기 조선 선비들이 중국과 북방을 보는 시각에 관한 설문 2개
조선 지배층인 관료나 선비들에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대외인식을 보는 눈을 키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 만주족에 의한 대청제국(Yeke Jusin Ulus)의 성립과 함께 “코가 큰 몽골인”이라 불리는 대비달자(大鼻

撻子), 즉 러시아인들이 동방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17~18세기는 조선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그 대응책도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문 2개입니다.

⑦ **조선 군관 최덕중의 몽골인식을 통해본 고대의 알타이문화 국가연합의 현대적 부활 필요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1712년 11월, 조선에서 정사(正使) 김창집(金昌集), 부사(副使) 윤지인(尹趾仁), 서장관(書狀官) 노세하(盧世夏)로 구성된 사절단(冬至兼謝恩使)을 북경에 파견했습니다. 이 사절단은 1712년 조선과 청의 경계를 확정한 일, 청에서 예단을 줄여준 일, 진공하던 금을 혁파하고 표피를 줄여준 일 등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국내정세 상 이러한 표면적인 명분 이외에, 청나라의 군사력이나 방어시설 등을 은밀히 염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주안점이 두어졌습니다. 최덕중(崔德中)은 군사정보 수집과 판세분석에 뛰어난 전문가로서 윤지인의 수행군관 자격으로 이 사절단에 참가했으며 정세분석보고서인 연행록(燕行錄)이라는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군사정탐 스파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조선 군관 최덕중이 누구인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덕중의 여행기에는 청나라의 성곽 방어시설, 군사 규모, 군사 재정 등에 관하여 탐문한 기록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연합정권을 이룬 몽골이나 그들에게 복속한 한족 관리들의 동태도 꼼꼼하게 살피려는 노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세분석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는 조선이 북진정책 등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몽골과 군사 연합을 맺어야 한다는 조·몽 군사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고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후대 박지원(朴趾源)(1737~1805)이 열하일기(熱河日記)에서 “오늘 날 천하정세를 분석해 볼 때 몽골이 미래의 주역이다.”라는 결론과도 유사합니다. 주자학 시대 이념과 사대주의의 외교정책을 지닌 조선에서 이 같은 견해가 표출했다는 것은 조선이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과 생존인식에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평소 그의 역사 인식과도 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조선 학자들의 문집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내적으로 지독한 한면한장(韓面漢腸: 한국인 얼굴에 중국인의 심장을 가진 인물)의 학자들이 쓴 중화사상으로 채워져 있음이 나타난다. 중원의 사상을 이은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자신들의 문집에서 인류역사에서 팍스몽골리카라는 조화와 융합이 사상을 건립한 대몽골제국 및 대원올로스 문화의 성격을 “중원 문화의 파괴자”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나갔다. 심지어 조선 여인들의 머리 형태나 복장도 몽골 것으로 간주하여 공격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신봉했던 주자학이 북방의 역사와 철학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나 고려의 균형 잡힌 대외인식도 붕괴되었습니다.

지나온 역사는 현재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원칙을 줍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과 알타이문화권 국가의 대립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남북대립이 행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흉노-중앙아시아-고조선 연합이나 유연-고구려-백제-일본이나 돌궐-고구려-백제-일본 연합으로 이어졌던 연합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포위선을 뚫기 위해 시대별로 중앙아시아와 고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해 복속시키거나 멸망시켰고, 신라를 교묘하게 이용해 결국 ‘고대의 알타이문화 국가연합’은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패권을 두고 중국과 대립중인 미국이 일본이나 몽골을 보는 눈은 두 나라가 중국과 화합보다는 대립에 선 민족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연구위원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알타이문화권 연합을 이룬 것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연구위원님은 현재는 물론 남북통일 후 우리민족의 생존의 위해 ‘고대의 알타이문화 국가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활되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가. 동의한다 ()

나. 동의하지 않는다 ()

☞ 동의할 경우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⑧ 서호수의 몽골인식과 북방문화원형의 현대적 부활 필요성에 대한 설문입

니다.

서호수(徐浩修, 1736~1799)는 정조시대의 이념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인물이지만 한국역사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저술한 책이 천문이나 농업서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서호수는 문벌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집안 그 자체가 소규모 학자 군단입니다. 아버지인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은 정조 시절 대제학(大提學), 작은 아버지인 서명선(徐命善, 1728~1791)은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그의 큰아들인 서유본(徐有本, 1762~1822)은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였으며, 둘째아들인 서유구(徐有渠, 1764~1845)도 농업의 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집필했습니다. 서유본의 부인인 빙허각 이씨(1759~1824)도 의식주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생활경제 백과사전인 규합총서(閩閩叢書)를 남겼습니다. 서호수의 동생인 서형수(徐滢修, 1749~1824)도 명고전집(明臯全集)이란 문집을 남길 정도로 문사에 뛰어났으며, 1799년 7월에는 진하겸사은사(進賀兼謝恩使)의 부사로 임명되어 북경에 다녀왔다. 즉 서호수의 집안은 세상의 부러움을 사고도 남을 정도로 조선의 지배층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기회를 마음껏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서호수의 사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그가 내세운 이념이 주자학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다가올 조선의 종말을 본 것일까요?

오늘날 그의 학문적 태도와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은 몽골과 중앙아시아 기록이 가득 담긴 그의 여행기뿐입니다. 서호수는 예조판서로 있을 때인 1790년에 건륭제(乾隆帝, 1711~1799, 재위 1735~1796) 만수절(萬壽節) 축하 사절의 부사로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는데, 이때 남긴 여행기가 바로 연행기(燕行紀)입니다. 1790년 5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일들이 일기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여행기는 사행길이 몽골 지역을 통과한 까닭에 몽골에 대한 견문 기술이 실려 있는데, 조선시대의 여행기 중에서 몽골 관련 기록으로서는 가장 방대하고 정확하며 몽골과 몽골인을 보는 시각도 매우 객관적입니다. 서호수의 몽골에 대한 기록은 1910~1920년대에 작성된 일본 학자들의 초기 몽골 보고서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며 내용도 분야를 달리하는 학자들이 연합해야

가능할 정도로 다방면에 걸친 세밀한 관찰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나 가능한 기록이 18세기 말에, 그것도 주자학적 세계인 조선에서 나왔다는 것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연행기』 속에 숨겨진 시대반역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조선이나 중국에서 전통적 이념을 지닌 사대부들은 물론 스스로 개혁과라 자처하고 있는 자들의 이념까지도 모두 엉망진창이라는 시대에 대한 반역선언이 실려 있습니다.

서호수의 여행기에는 주자학적 그림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두가 금기시 하는 코빌라이 카간과 노재(魯齋) 허형(許衡), 몽골인과 만주인의 품성과 우수한 재질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 대청제국에 대해 “청나라가 천하를 차지하여 몽골과 회회(回回) 등의 여러 부족들을 등용하니, 조정의 태반이 색목인이다. 중화의 화합을 외이(外夷)와 더불어 하는 까닭에 변방의 소요를 경계하지 않은 지가 이미 100여 년이 되었다. 지금은 밭과 들이 서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린다. 따라서 낮에 길을 가고 밤에 숙박하는데 조금도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삼위(三衛)의 백전지(百戰之地)가 모두 낙토(樂土)로 변했으니, 이것은 역대의 제왕이 하지 못했던 일이다.(『연행기』 1790년 7월 4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원왕조보다 북방왕조들이 더 좋은 이념과 통치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인재들이 한낮에 태양과 빛을 다투는 시대는 정착지역의 문명보다는 초원의 이동문명 지역에 더 많았습니다. 이론이 제시되면 보는 각 문명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의 하나인 G. 들뢰즈(Deleuze, 1925~1995)는 1980년에 출판된 <천개의 고원> 속의 「1227년 - 유목론 또는 전쟁기계」라는 항목을 통해 유라시아-알타이 문화의 특징을 리조믹 노매드(rhizomic nomads)로 요약하면서, 이 이념이 21세기 현대의 인류가 열어나가야 할 정신적 지도와 그를 뒷받침해 주는 시대의 철학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적은 우리의 문화 및 사상의 원형을 이루는 유라시아-알타이 민족의 문화정체성(Northern Cultural Identity)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뜻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자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관계를 정립하고 추진

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은 세조시대 양성지(梁誠之, 1415~1482)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남준(白南準, 1932~2006)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칭기스칸의 복권”과 “몽골 게르”란 전위예술작품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지만 백남준의 철학과 예술세계의 바탕에는 자연법적 인식체계(샤마니즘)를 바탕으로 한 북방문화원형적 사고패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학과 비전이 없는 학문이나 국가는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 정체성(identity)이 서로 다른 문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민족을 지탱하는 철학과 비전은 우리가 속한 문화의 원류를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과 건강한 교류를 할 때 우리민족은 진정 인류사에 기억되는 가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북방외교는 민족원류와 북방민족사에 대한 건강한 역사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박한 경제논리만이 추진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Nordpolitik: Northern Policy)”,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론(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New Asia Initiative)”,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등 그동안 한국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북방외교정책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연구위원님은 오늘날 한국의 북방외교가 우리민족의 원류인 유라시아-알타이 민족의 문화정체성의 중심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가. 동의한다 ()

나. 동의하지 않는다 ()

☞ 동의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북방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2개

세계 각지에 정체성(identity)이 서로 다른 문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민족을 지탱하는 철학과 비전은 우리가 속한 문화의 원류를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우리의 문화 및 사상의 원형을 이루는

북방문화정체성(Northern Cultural Identity) 탐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북방문화정체성은 국가정체성 확립 및 역사적 비전정립의 기초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우리문화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설문 2개입니다.

⑨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했던 금나라의 역사를 번역 출간할 필요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금나라는 1115년 여진족의 수령인 완안아골타(完顏阿骨打)가 황제를 칭하며 세운 나라[大金國]입니다. 태종 천회(天會) 3년(1125)에는 요나라를 멸망시켰고, 천회 5년(1127)에는 북송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송 및 서하(西夏), 고려와 함께 장기간 공존 및 대치를 하다가, 애종(哀宗) 천흥(天興) 2년(1234) 1월 대몽골제국(Yeke Monggol Ulus)의 어거데이카간(Ögödei Khagan)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금나라는 10명의 황제를 배출하면서 120년간 존속했습니다. 금나라는 고구려의 후예임을 공식적으로 자처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금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금사(金史)입니다. 금사는 대원올로스(Yeke Yuan Ulus) 때 메르키드(Merkid) 부족 출신의 토포(Togto, 脫脫)의 지휘아래 어사대부(御使大夫) 테무르-타스(Temür-Tas, 鐵陸爾達世)가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편찬한 책으로 북방적인 철학과 시각을 담고 있는 중국의 정사입니다. 금사에는 훌륭한 인재가 뜻을 펴지 못하고 죽자 “옥의 티가 빛나는 광채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 곧은 관리들이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음이 오래되었도다! 아!”라는 찬(贊)을 붙여 안타까움을 나타낸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말에 이르기를 ‘나라에 팔관(八觀)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인재를 보는 눈에 대한 기준을 남기고 있습니다. 팔관은 여씨춘추(呂氏春秋)의 논인(論人)에 나오는 말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여덟 가지 관찰 방법, 즉 ①순조로울 때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지 본다(通則觀其所禮), ②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기용하는지 본다(貴則觀其所進), ③부유할 때 어떤 사람을 접촉하는지 본다(富則觀其所養), ④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본다(聽則觀其所行), ⑤한가할 때 무엇을 하는지 본다(止則觀其所好), ⑥친해진 뒤 말 속에 드러나는 뜻을 본다(習則觀其所

言), ⑦좌절했을 때 지조를 본다(窮則觀其所不受), ⑧가난할 때 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본다(賤則觀其所不爲)를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금사는 조선선비들에게도 존중을 받을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송사(宋史) 등 한족왕조에 대한 독후감만 보일뿐 북방왕조계열인 금사에 대한 독후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문집에 금사에 대한 독후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주자학의 관점으로 볼 경우 금나라가 저급한 북방왕조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사는 제2의 한국사라고 할 만큼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깊은 역사서이다. 금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학자가 손진태(孫晉泰, 1900~?)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던 손진태는 1948년 <새교육> 8·9호 합병호에 투고한 「국사교육 건설에 대한 구상 - 신민족주의 국사교육의 제창 -」이라는 글에서 “금사를 국사에 넣자”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발해사는 여러 분이 국가에 편입하였으나 금사를 넣은 이는 없다. 이번 교과서에도 금사를 넣지 못했다. 미처 생각나지 못한 까닭이다. 금의 황실 시조가 황해도 평산 출신이요. 요하 이동의 영토가 고구려의 옛 영토요. 거기 거주하였던 인민이 옛부터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진 겨레요. 문화적으로도 하얀 옷과 온돌을 가졌던 동족이었다. 그뿐 아니라 명대 이전 중국 민족이 만주를 완전히 점유한 일이 없으므로 금사는 또 당연히 국사에서도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금나라 역사 전공자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금나라의 역사는 조선시대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사에는 금나라가 고구려의 정통 후예로서 고려나 남송, 서하, 서요, 일본 등 주변국을 바라보고 또 외교정책을 세우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사는 조선시대 문헌과 같이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사료이며, 우리민족의 행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방정책연구의 일환으로 금사를 한국어로 번역 출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연구위원님은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가. 동의한다 ()

나. 동의하지 않는다 ()

☞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⑩ 조선시대 문헌이나 연행록에 수록된 몽골·여진·러시아·중앙아시아 관련 기록의 연구 필요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국가정체성은 “(대원제국에서 시작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바탕으로 성립된 “중화민족”으로 대표됩니다. 또 이러한 국가정체성이나 역사관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것이 칭기스칸은 위대한 중국인이라는 것과 황제(黃帝) 시원(始源)의 문명인 요하문명론입니다. 중국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이 이론은 1991년에 끝난 북방공정에서 완성된 것이며, 이후 한국에 적용된 동북공정은 그 이론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역사관에 따라 내부적으로 1911년 외몽골의 독립은 논리적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래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핵심은 원나라가 몽골족의 정권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조선선비들의 연행록이나 문집에서 남긴 대청제국의 성격(만주족과 몽골족의 연합정권)은 중국의 북방공정 논리가 모순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선선비들의 연행록과 문집에는 모두 대청제국은 만주인과 몽골인의 연합체제로 성립한 나라라는 분석적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1911년 청조가 붕괴하자 몽골이 한족 국가인 중화민국으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몽 연합정권으로서의 청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몽골 왕공들의 지위와 만몽연혼제도 등인데, 이 사례들을 직접 목격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조선선비들의 여행기나 문집에 실린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몽골이나 건주여진 등 북방관련에 대한 정리 및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않아 시급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한국고전번역원의 북방관계기록 번역에서 인명이나 지명, 사건 등의 고증에서 오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방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속세대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코프 부르크하르트(Jacob Christoph Burckhardt, 1818~1897)는 “역사란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학문의 깊이는 역사의 행로를 보는 시각에 있다고 했는데, 나라의 깊이도 그러하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세기 말과 같은 외교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원칙과 철학의 정립을 통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데 과거 선조들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 문헌이나 연행록에 수록된 몽골·여진·러시아·중앙아시아 관련 기록의 종합적 연구>는 정책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위원님은 이러한 정책적 연구의 필요성을 동의하십니까?

가. 동의한다 ()

나. 동의하지 않는다 ()

☞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의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2 조사 결과

1) 도표

[표 2]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외인식에 관한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 도표

항목	조사결과			비고
	동의 (인식, 있다, 안다)	비동의 (비인식, 없다, 모른다)	설명 첨부	
	비율(%)	비율(%)	응답자수	
①	100	0	9	동의(홍산문화 연구필요)
②	0	100	-	
③	81	19	-	
④	87	23	15	동의(번역필요 제기)
⑤	6	94	2	안다(역사논저를 통해)
⑥	0	100	-	
⑦	27.3	72.7	22	비동의(중국은 경제, 지리적 중요국가)
⑧	74	26	23	동의(정체성확립필요) 비동의(문화는 융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원형만 고수하면 안 됨)
⑨	100	0	1	매우 필요함
⑩	100	0	-	매우 필요함

2) 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와 같은 기간에 실시된 인터뷰 조사는 몽골학전공 대학원생(박사과정) 및 몽골교수 총 10명에게 설문조사와 동일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제안도 첨가되었다. 아래의 조사결과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합친 결과이다.

a. 중국의 의도적이고 왜곡적인 Post-동북공정에 대한 소식은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b. 또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외인식의 개념을 보여주는 이적(夷狄)과 오랑캐(건주여진) 등 외국세력에 대한 칭호의 구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대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대부분의 설문응답자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외인식을 보여주는 연행록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필요성과 함께 번역을 강조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금사의 번역 필요성에서도 입증된다.

c. 조선시대의 정부 공식기록물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이고,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은 거의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 임진왜란에 대한 국제적인 세력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임진왜란이 조선, 일본, 명나라만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건주여진이나 몽골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이는 북방(몽골, 건주여진) 민족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오늘날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 고대의 알타이문화 국가연합의 현대적 부활을 묻는 대외역사관에서 북방인식보다는 중국인식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의 역사교육이나 역사관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또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경제나 정치적 관계가 이전과 다른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긍정보다 부정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인다.

f. 인터뷰에 응한 몽골학 관련 연구자들은 몽골 등 북방인식을 바꾸기 위해 현재 시급히 해야 할 사업으로 <한·몽 양국의 문헌연구 및 번역사업>인데, <조선시대 문헌이나 연행록에 수록된 몽골·여진·러시아·중앙아시아 관련 기록의 종합적 연구>는 이 사업의 핵심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3.1. 조선시대 문헌의 종류 및 가치와 연구방법

3.1.1 조선시대 문헌의 종류

조선시대 문헌은 정부기록물, 여행기, 개인문집, 총서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를 순서대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록물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책 이름이다. 즉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 25대에 걸친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年月日順)에 따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 및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 행정 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일기이다. 승정원은 조선 정종 때 창설된 기관으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실에 해당한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건국 초부터 정리되었으나 조선전기분(朝鮮前期分)은 임진왜란 등의 병화(兵火)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는 1623년(인조1) 3월부터 1894년(고종31) 6월까지 272년간 승정원에서 처리한 국정 기록과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규장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1910년(융희 4)까지의 총 3,243책만이 남아 있다.

일성록(日省錄)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151년 동안의 국정 운영 내용을 매일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다. 일성록은 국정의 주요 현안들을 강(綱: 표제)과 목(目: 세부 사실)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국정 운영에 참고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는 체재로 편찬되었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은 임진왜란 이후 250여 년 동안 국정을 총괄한 비변사의 일기체 기록으로, 현재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276년의 분량이 273책의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내용의 기재방식은 왕의 시대와 연월

일, 매월마다 비변사의 구성원들을 기재한 좌목(座目)이 있고, 그 뒤에 회의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 시대마다 국가중대사의 전모와 경과,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다.

둘째, 여행기로는 명나라와 대청제국을 방문한 사절단이 남긴 여행기와 조선 통신사(朝鮮通信使)의 일본여행기로 크게 나누어진다. 여행기는 공식 출장보고서 외에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15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걸쳐있는 조선의 여행기들은 동서양의 학자들로부터 “이 만큼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기행문이 기록된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사료가치를 지닌 기록물이다. 또 연행록의 작자들은 조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로, 그 속에 자신의 사상, 학문, 대외의식 및 새로운 문물이나 학문에 대한 관심을 아낌없이 피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기들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학문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이며, 또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기록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개인문집으로 조선시대는 사대부의 시대답게 거의 모든 양반들이 자신들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넷째, 총서는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성호사설(星湖僿說), 지봉유설(芝峯類說)이나 반계수록(磻溪隨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만기요람(萬機要覽) 등이 이에 속한다. 백과전서적인 총서도 개인저술이라는 점에서 개인문집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기술의도 면에서 문집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상 언급한 조선시대의 문헌들은 동아시아의 방대한 기록유산이자 국제성을 띤 학문자료들이다. 본 연구는 위의 문헌종류 가운데 여행기에 속하는 연행록 170편과 문집 1103개를 대상으로 몽골과 건주여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것이다.

3.1.2 연행록의 가치와 북방관련 기록 연구의 필요성

(1) 연행록의 가치와 국내외 연구동향

연행록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집에 수록되어 전

하고 있다. 연행록은 동아시아의 문학·역사·민속을 모두 아우른 복합 텍스트이자 그 기록이 한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 등 한자문화권 공통 기록으로서의 보편성도 지닌다. 그리고 현존 연행록의 존재 자체도 이미 600개 이상을 헤아릴 만큼 방대한 숫자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조선 초 태조연간(1392~1398)부터 성종연간(1470~1494)까지 조선에서 명조에 사행을 파견한 횟수는 대략 정기·비정기를 합쳐 연평균 6.64회 꼴인 681회에 달하며, 조선중기인 연산군(1495~1506)부터 인조연간(1623~1649)에는 연평균 4.1회 꼴인 633회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박성주, <고려·조선의 遣明使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에서도 나타나듯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연행록이 아직도 직접 사료의 대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학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연행록 연구를 국제적인 학문규모의 연행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연행록과 상대를 이루는 중국 측 사행자료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명·청 시대 조선관계 중국 측 자료로는 ① 임진왜란 등 조선에 와서 전쟁을 지휘하거나 종사했던 인물들의 전기를 수록한 명사(明史)나 청사고(淸史稿) 「조선전」 등의 자료, ② 사행 등으로 조선에 오간 인물들이 남긴 기록들, 예컨대 명나라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 예겸(倪謙)의 봉사조선창화집(奉使朝鮮倡和集), 조선기사(朝鮮紀事), 요해편(遼海編)(1450), 장녕(張寧)의 보안당정방주선생봉사록(寶顔堂訂正方洲先生奉使錄)(1460),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 조선잡지(朝鮮雜志)(1488), 공용경(龔用卿)의 사조선록(使朝鮮錄)(1547), 주지번(朱之蕃)의 봉사조선고(奉使朝鮮稿)(1606), 강일광(姜日廣)의 유헌기사(輜軒紀事)(1626), 아극돈(阿克敦)의 동유집(東游集), 봉사도(奉使圖)(1717), 상준(相駿)의 봉사조선역정일기(奉使朝鮮驛程日記)(1844), 괴령(魁齡)의 동사기사시략(東使紀事詩略)(1866), 마건충(馬建忠)의 동행삼록(東行三錄)(1882), 승례(崇禮)의 봉사조선일기(奉使朝鮮日記)(1844), 엽사성(聶士成)의 동유기정(東輜紀程), 동정일기(東征日記)(1894) 등이 있다. 이와 함께 1450년부터 1633년까지 명나라 사신과 조선 접반사 간의 시문집인 황화집(皇花集)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대외 여행기인 연행록은 둔황학(敦煌學)처럼 연행학(燕行學)이란 특수학문분야로 독립해야 할 정도로 동아시아의 방대한 기록유산이자 국제성을 띤 학문자료이다. 연행록의 가치가 최초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연행록의 가치와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학자는 임기중(林基中)으로 그는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700년 동안 우리나라 사행이 원·명·청의 수도인 북경 등을 다녀와서 견문한 사실을 기록한 사행록(使行錄)을 수집하여 연행록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임기중, <연행록전집> 100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이로부터 연행록에 대한 한국학계의 본격적인 주시와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연행록이 연행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칭부터 확정되어야 한다. 현재 발견된 연행록은 약 600여종에 이르는데 먼저 명칭과 저술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행록의 명칭은 명대에는 조천록(朝天錄), 청대에는 연행록(燕行錄)으로 일반화 되었지만 명대에 연행록, 청대에 조천록도 있다. 또 조천록, 연행록이란 명칭에 앞에 간지(干支)나 저자의 호(號)를 붙여 쓴 경우도 많고 조천기(朝天記), 조천일기(朝天日記), 조천록(朝天錄), 조천시(朝天詩), 조천일승(朝天日乘), 서행기(西行記), 북정기(北征記), 북행록(北行錄), 북행일기(北行日記)도 있다.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이었던 시기에는 심양일기(瀋陽日記), 심양일록(瀋陽日錄), 심양일승(瀋陽日乘), 심관록(瀋館錄) 등도 있다. 청대에는 연행록 외에 연행기(燕行記), 연행시(燕行詩), 연행일록(燕行日錄), 연행잡기(燕行雜記), 연행잡식(燕行雜識), 연기(燕記), 연행별록(燕行別錄), 부연시(赴燕詩), 연행가(燕行歌), 연행일승(燕行日乘), 연행기사(燕行記事), 사행록(槎行錄), 승사록(乘槎錄), 연사록(燕槎錄)이 있다.

이러한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연행록”이라 함은 조선시대에 명나라와 청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연경)과 심양, 열하(熱河) 등지를 다녀온 조선 지식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시문, 기행문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여 놓은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기술방법은 시, 일기, 수필체 형식의 기행문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또 모든 형체를 아우르는 저술도 있다.

연행록의 저자들은 사행에 참가한 정사, 부사, 서장관 외에 이를 수행하는 군관, 군관자제, 보좌관들이다. 글의 성격은 비교적 자유롭고 자신을 나타내는 창의적인 글이 많다. 사행은 주로 정례적인 동지사(冬至使), 하지사(夏至使), 춘신사(春信使), 성절사(聖節使) 그리고 조선 측의 안건과 관련하여 계품사(啓稟使), 고부사(告訃使), 가계주청사(家系奏請使) 등과 중국 측 사안과 관련하여 진하사(進賀使), 진주사(陳奏使), 진위사(陳慰使) 등이며, 매년 정해진 노정의 문물을 접하기 때문에 연행록은 해당 지방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는 정밀한 고증이 가능할 정도로 사료가치가 높다. 이로 인해 연행록은 오늘날 외국학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한국자료 중 최고일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연행록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 성과나 방향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행록 연구의 상황과 개요는 김경록이 국문학·역사학·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그 연구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바 있다(김경록, 「조선시대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2006). 또 최소자·정혜중·송미령이 엮은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서울, 혜안, 2007)에서도 연행록에 관한 중국사와 한국사 관련 연구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다. 근래 중국에서도 연행록에 대한 논저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 성과나 연구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서 연행록 연구는 주로 문학(국문학·한문학)과 한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학에서는 연행시, 시문학, 문사의 사행체험, 북학과의 산문연구, 문학작품에 나타난 중국체험, 연행록의 전통 서술방식, 사행시의 의식세계, 연행록간의 비교연구, 필담을 통해 본 연행록 연구, 대중국사행과 사상, 연행록을 둘러싼 글쓰기 문제, 연행록과 중국읽기, 중국문인과의 교류, 조선 문사와 명사간의 시문수창, 18세기 회화론과 문학론의 접점, 18세기 전후한 조선조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명의식이 있다. 또 연행록의 대청의식과 대조선 인식, 연행록의 인식논리와 서술방식, 표현방식과 논리, 상대적 사유방식, 소재 삽입시의 성격과 기능 등이 있다. 한국사의 연구는 주로 연행소고, 사행의 경제무역, 17세기 명·청 교체기의 대명의리와 대청의식, 18세기 후반 북학과의 진보의식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외에서의 연구는 주로 중국학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는 한국과의 관계사가 주류를 이룬다. 중국 측 연구는 대부분 2000년대 이후부터이며 내용은 명·청시대 중국과 조선의 교류 즉 조선사절과 표착선(漂着船), 명대 조선사절의 연행록, 청대 양국 사신의 왕래 연구, 개방(開放)과 폐관(閉關) 등이다. 논문이나 저작물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후 중국에서의 연행록 연구는 매우 활성화되고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연행록 연구는 대부분 문학이나 한국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몽골이나 여진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대외관계사에서 북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연구의 편중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몽골 및 건주여진 등 북방관련 기록 연구의 필요성

연행록의 학문적 가치는 “동아시아 어느 분야의 연구에서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실로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의 보고”라는 일반적인 평판에서도 잘 입증되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몽골과 여진 분야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사료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조선시대에서 이러한 북방관련 기록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문헌이 바로 연행록이다.

연행록이 학문분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주제별 정립을 통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기별로 연속적으로 이어진 연행록은 요동지역이나 통과로 일대의 문물, 그곳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몽골 관련기록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 변화의 미묘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행록의 실상에 다가설 수 없는 우려가 있다. 현재 한국학계에서의 연행록 연구는 문학, 역사(한국사, 중국사)에서 상당 수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관심과 취향에 따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종합적인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연행록 하나하나의 완역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연행록의 완역 사업이다. 현재 알려진 연행록 가운데에는 몽골 등 북방관련 기록이 수록된 연행록이 적지 않다. 바로 완역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 부분(몽골 및 여진)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몽골·여진 관련기록의 종합적 연구는 조선시대의 사행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을 판단과 함께 향후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연구에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할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사행에 관련한 연구는 양적으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주로 사행의 문화사적 접근, 사상사적 접근, 경제사적 접근, 국문학적 접근이 이루어져, 사행의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그 많은 연행록이 어떤 목적 하에 쓰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지배층인 관료나 선비들이 지닌 북방인식의 분석을 통해 조선의 대외정책과 인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3.1.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몽골과 건주여진은 주자학을 시대이념으로 소중화의 세계를 꿈꾸었던 조선 사대부들에게 대외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실제적인 나라들이다. 조선 선비들의 대외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시대구분과 연구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시대구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처럼 ①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 ②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 ③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910)의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3]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외인식 분석을 위한 시대구분

단계	시기
1단계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
2단계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
3단계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

이렇게 시대구분을 나눈 이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원나라의 붕괴 이후 명나라와 북원 간의 대결구도가 전개되는 시기로 대체로 조선초기부터 건주위 여진족이 발흥하는 1600년 전후 즉 임진왜란 때까지 해당한다. 이 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1442년 세종이 몽골의 대칸인 토평-보카(Togto'a-Bukha, 脫脫不花, 재위 1433~1452)에게 명나라에 대한 공동 공격을 제의받을 만큼 명과 북원 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시대이다. 이 시대의 문집이나 연행록에는 명과 몽골 사이에서의 조선의 정치적 태도와 몽골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일반 문집의 경우 몽골에 대한 칭호와 원세조(元世祖) 및 허형(許衡, 1209~1281)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몽골 인식이 나타난다.

두 번째 단계는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몽골이나 조선, 티베트 등 동아시아의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시기로서 임진왜란 이후 정묘호란을 거쳐 강희제 통치 시대까지 해당한다. 즉 건주여진과 몽골 간의 연합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 조선의 경우 대략 광해군 시대부터 숙종, 경종 때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명·청 교체기와 함께 청조가 기틀을 다지는 시대에 해당한다. 특히 조선은 명·청 교체기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그 대응에 매우 부심했는데, 이는 사신단 파견횟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조선은 명·청 교체기에 해당하는 송덕연간(崇德年間, 1637~1644)에 모두 61회에 이르는 사신단을 파견했다. 이러한 파견횟수를 연 평균으로 계산하면 7.26회로서, 이는 순치(順治) 연간의 4.23회, 강희(康熙) 연간의 2.96회, 옹정(雍正) 연간의 3.46회, 건륭(乾隆) 연간의 2.33회, 가경(嘉慶) 연간의 2.40회 등 다른 황제의 재위기간에 비교할 경우 그 빈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태조

(1392~1398)부터 성종(1470~1494)까지 조선에서 명조에 사행을 파견한 횟수는 대략 정기·비정기를 합쳐 연평균 6.64회 꼴인 681회에 달하며, 조선중기인 연산군(1495~1506)부터 인조연간(1623~1649)에는 연평균 4.1회 꼴인 633회에 달한다.

이 시기의 문집이나 연행록에는 청과 명나라 사이에서의 조선의 정치적 태도와 몽골인식이 체험기적 행태로 반영된 것이 많다. 특히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 이요(李潏)는 평생에 압록강을 열두 번이나 건넜다는 스스로의 탄식처럼 명·청 교체기의 실상을 목격한 조선의 왕자이다. 그는 명·청 전쟁 때 명나라 측에선 몽골군의 존재와 목격담을 자신의 연행록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중국 및 몽골 역사학계에 그 해석에 대한 숙제를 던져준 인물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단계는 건륭제 통치 시대로부터 1840년 아편전쟁까지의 시대로 건주여진과 몽골 간의 연합정권이 이완되고 붕괴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조선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흥 군주인 영조와 정조 시대 및 그 이후 전개되는 급격한 몰락의 시대에 해당한다.

이 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조선 역사에서도 가장 극적인 시대에 속한다. 정조 시대는 조선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했던 시기로 꼽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린다. 그러나 1800년 정조가 사망하자마자 조선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가 급기야 국권까지 내주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일시 증흥에 성공한 조선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상황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마 이 시대의 연행록들은 그 원인을 일부나마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시대의 연행록에는 시대성격을 반영하듯 청조의 성격이나 조선 지배층들의 대외관 즉 몽골이나 대청제국(건주여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행록의 경우 사행의 출발연도를 기준으로 삼아 위의 시대구분 원칙을 따랐지만, 문집의 경우 생존연도의 편차가 있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연구방법이다. 연행록에서 몽골이나 건주여진

부분은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연구 분야이다. 연행록에 등장하는 몽골·여진 관련기록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화 가능한 표준화된 연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체계의 표준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단 건주여진의 경우 1636년 대청제국의 건립이전의 시기에 한정함을 원칙으로 했다.

[표 4]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외인식에 관한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 도표

No	비교항목	내용
1	역사사적	대몽골제국
		대원올로스
		복원(명대 몽골방어선과 군사충돌)
		대청제국(만주와 몽골의 군사충돌)
2	몽골 지리/여진지리	몽골 및 여진의 지리적 위치 묘사
		몽골지명 및 강명/여진지명 및 강명
3	몽골부족 및 여진부족	몽골부족의 숫자/여진부족의 숫자
		몽골부족 세부기록/여진부족의 세부기록
4	몽골습속 및 여진습속	유목생활, 일반습속, 복경 몽골관
5	몽골인	마을, 외형, 언어, 성격, 학자 및 관원, 교역
6	몽골동물	낙타, 말, 개, 양과 염소, 소 및 기타
7	청조와 몽골의 정치적 관계	만몽 국가연합 지배체제의 구축 (청나라의 성격)
		몽골사절 및 지위
		만몽연혼사례
		피서산장의 의미 몽골과 관련된 정치적 유언비어(동요)
8	청조의 몽골통치제도	몽골팔기와 맹기제도
		몽골관료와 이변원
9	몽골인과 라마교	조선사절단의 눈에 비친 라마교 사원
		라마교의 역사와 역대 고승(원대, 명대, 청대)
		라마교의 교리

		청조와 라마교
10	몽골인과의 접촉기록	조선 사절이 만난 몽골인들
11	북경 몽골관	기록여부

본 연구에서는 위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분석일람표에 <몽골, 건주여진 관련기록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3.2. 연행록 170편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3.2.1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까지의 분석일람표

[표 5]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까지의 분석일람표

번호	사행연대	명칭	저자	기록여부	
				몽골	건주여진
001	1475(성종6)	朝天詩	崔淑精(1432~1480)	-	-
002	1480(성종11)	觀光錄	金訥(1448~1492)	-	-
003	1481(성종12)	朝天詩	洪貴達(1438~1504)	●	-
004	1487(성종18)	漂海錄	崔溥(1454~1504)	●	-
005	1498(연산군4)	燕行錄	曹偉(1454~1503)	-	-
006	1500(연산군6)	朝天詩	李荇(1478~1534)	-	-
007	1518(중종13)	慕齋集	金安國(1478~1543)	-	●
008	1533(중종28)	赴京日記	蘇世讓(1486~1562)	●	-
009	1533(중종28)	葆眞堂燕行日記	蘇巡(1499~1599)	●	-
010	1534(중종29)	燕行錄	崔演(1503~1549)	-	-
011	1537(중종32)	朝天錄	丁煥(1497~1540)	●	-
012	1539(중종34)	朝天錄	權稷(1478~1548)	●	-
013	1544(중종39)	甲辰朝天錄	鄭士龍(1491~1570)	●	-
014	1548(명종3)	西征錄	崔演(1503~1549)	-	-
015	1569(선조2)	觀光錄	朴承任(1517~1586)	●	-
016	1574(선조7)	朝天記	許筭(1551~1588)	●	-
017	1574(선조7)	朝天日記	趙憲(1544~1592)	-	-
018	1574(선조7)	東還封事	趙憲(1544~1592)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19	1576(선조9)	燕行詩	崔慶昌(1539~1583)	-	-
020	1577(선조10)	丁丑行錄	崔岄(1539~1612)	-	-
021	1577(선조10)	朝天日記	金誠一(1538~1593)	●	-
022	1581(선조14)	辛巳行錄	崔岄(1539~1612)	●	-
023	1584(선조17)	朝天詩	韓應寅(1554~1614)	-	-
024	1587(선조20)	燕行詩	俞泓(1524~1594)	-	●
025	1587(선조20)	朝天錄	襄三益(1534~1588)	●	-
026	1589(선조22)	朝天錄	尹根壽(1537~1616)	-	-
027	1591(선조24)	燕行詩	朴而章(1547~1622)	-	-
028	1591(선조24)	朝天錄	吳億齡(1552~1618)	-	-
029	1591(선조24)	朝天詩	韓應寅(1554~1614)	-	-
030	1592(선조25)	赴京日錄	鄭岷壽(1538~1602)	-	-
031	1593(선조26)	癸巳行錄	崔岄(1539~1612)	-	-
032	1593(선조26)	朝天詩	鄭澈(1536~1593)	-	-
033	1594(선조27)	甲午行錄	崔岄(1539~1612)	-	-
034	1594(선조27)	朝天詩	許箴(1548~1612)	-	-
035	1595(선조28)	朝天錄	閔仁伯(1552~1626)	-	-
036	1595(선조28)	朝天詩	韓應寅(1554~1614)	-	-
037	1597(선조30)	燕行錄	權挾(1553~1618)	●	-
038	1597(선조30)	丁酉朝天錄	李尙毅(1560~1624)	-	-
039	1597(선조30)	朝天錄	李晬光(1563~1628)	-	-
040	1597(선조30)	丁酉朝天錄	許筠(1569~1618)	-	-
041	1598(선조31)	戊戌朝天錄	李廷龜(1564~1635)	-	-
042	1598(선조31)	朝天錄	李恒福(1556~1618)	●	-
043	1598(선조31)	銀槎錄	黃汝一(1556~1622)	●	-
044	1599(선조32)	皇華日記	趙翊(1556~1613)	●	●
045	1599(선조32)	朝天錄	趙翊(1556~1613)	-	-
046	1599(선조32)	朝天詩	韓應寅(1554~1614)	-	-
총계				16	3

위 46개 여행기들 가운데 몽골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여행기는 16, 건주여진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여행기는 3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존재가 확인된 조선

시대의 여행기는 600여 종에 이르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에 이르는 시대의 여행기의 점유비율은 7.7%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비율에서 몽골이 35%, 건주여진이 6.5%로 나타난다. 이후 이 관련기록들을 위의 분석도표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시대별로 대몽골제국, 대원을 로스, 원말명초, 명대몽골사(북원), 청대몽골사로 나누어 분석하면 이 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몽골과 건주여진에 관한 관심의 내용과 인식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3.2.2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까지의 분석일람표

[표 6]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까지의 분석일람표

번호	사행연대	명칭	저자	기록여부	
				몽골	건주여진
047	1601(선조34)	朝天錄	李安訥(1571~1637)	-	●
048	1602(선조35)	朝天錄	金玠(1540~1616)	-	-
049	1602(선조35)	朝天錄	李廷馨(1549~1607)	●	-
050	1603(선조36)	燕行詩	朴而章(1547~1622)	-	-
051	1604(선조37)	甲辰朝天錄	李廷龜(1564~1635)	-	-
052	1604(선조37)	朝天錄	閔仁伯(1552~1626)	-	●
053	1608(선조41)	朝天詩	吳億齡(1552~1618)	-	-
054	1610(광해군2)	朝天紀行詩	鄭士信(1558~1619)	-	●
055	1610(광해군2)	朝天詩	鄭文孚(1565~1624)	-	-
056	1611(광해군3)	續朝天錄	李晬光(1563~1628)	-	●
057	1614(광해군6)	朝天錄	金中淸(1566~1629)	●	●
058	1616(광해군8)	丙申朝天錄	李廷龜(1564~1635)	-	-
059	1616(광해군8)	丙辰朝天錄	陸大欽(1575~1638)	-	-
060	1617(광해군9)	朝天日記	李尙吉(1556~1637)	●	-
061	1619(광해군11)	朝天詩	吳翻(1592~1634)	●	●
062	1620(광해군12)	庚申朝天錄	李廷龜(1564~1635)	●	●
063	1620(광해군12)	朝天詩	李春元(1571~1634)	-	-
064	1623(인조1)	朝天錄	李民成(1570~1629)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65	1623(인조1)	燕棹唱酬集	李民成(1570~1629)	-	●
066	1624(인조2)	朝天詩	吳翻(1592~1634)	-	-
067	1625(인조3)	棹行錄	全湜(1563~1642)	-	-
068	1626(인조4)	朝天錄	金尙憲(1570~1652)	●	-
069	1626(인조4)	朝天錄	金地粹(1585~1639)	-	-
070	1628(인조6)	朝天錄	申悅道(1589~1659)	●	●
071	1629(인조7)	朝天錄	李屹(1568~1630)	-	●
072	1629(인조7)	東棹錄	崔有海(1588~1641)	-	●
073	1632(인조10)	朝天錄	李安訥(1571~1637)	-	-
074	1632(인조10)	朝天日記	洪鎬(1586~1646)	-	●
075	1633(인조11)	朝天錄	金榮祖(1577~1648)	-	-
076	1636(인조14)	朝京日錄	金堉(1580~1658)	-	●
077	1636(인조14)	崇禎丙子朝天錄	李晚榮(1604~1672)	●	●
078	1637(인조15)	朝天航海錄	洪翼漢(1586~1637)	-	●
079	1637(인조15)	瀋陽日乘	金宗一(1597~1675)	●	●
080	1637(인조15)	瀋陽日記	世子侍講院	●	●
081	1641(인조19)	赴瀋日記	李景儼(1579~1652)	-	-
082	1642(인조20)	瀋館錄	李昭漢(1598~1645)	-	-
083	1645(인조23)	燕行日記	成以性(1595~1664)	●	●
084	1646(인조24)	燕行錄	李景奭(1595~1671)	-	-
085	1649(인조27)	己丑飲水錄	鄭太和(1602~1673)	-	●
086	1651(효종2)	燕行錄	黃辰(1604~1656)	-	-
087	1656(효종7)	燕途紀行	李潛(1622~1658)	●	●
088	1660?	燕行詩	李世華(1630~1701)	-	-
089	1660(현종1)	燕京錄	姜栢年(1603~1681)	-	-
090	1662(현종3)	壬寅飲水錄	鄭太和(1602~1673)	-	-
091	1666(현종7)	燕行錄	南龍翼(1628~1692)	-	-
092	1668(현종9)	西溪燕錄	朴世堂(1629~1703)	●	-
093	1668(현종9)	使燕錄	朴世堂(1629~1703)	●	-
094	1669(현종10년)	燕行日記	閔鼎重(1628~1692)	●	-
095	1676(숙종2)	丙辰燕行錄	李瑞雨(1633~1709)	●	-
096	1678(숙종4)	北征錄	李夏鎭(1628~1682)	●	-
097	1679(숙종5)	燕行詩	吳斗寅(1624~1689)	●	-

098	1679(숙종5)	燕行日錄	吳斗寅(1624~1689)	●	-
099	1680(숙종6)	燕行錄	申晷(1628~1687)	-	-
100	1682(숙종8)	檮椒錄	金錫胄(1634~1684)	-	●
101	1683(숙종9)	燕行詩	柳尙運(1636~1707)	-	-
102	1683(숙종9)	燕行錄	柳尙運(1636~1707)	-	-
103	1684(숙종10)	甲子燕行雜錄	南九萬(1629~1711)	-	-
104	1686(숙종12)	丙寅燕行日乘	吳道一(1645~1703)	●	-
105	1686(숙종12)	丙寅燕行雜錄	南九萬(1629~1711)	-	-
106	1693(숙종19)	燕行錄	柳命天(1633~1705)	●	-
107	1695(숙종21)	燕行詩	李世白(1635~1703)	-	-
108	1695(숙종21)	燕行錄	洪受疇(1642~1704)	-	-
109	1697(숙종23)	丁丑燕行錄	崔奎瑞(1650~1735)	●	-
110	1699(숙종25)	燕行錄	姜銑(1645~?)	●	-
111	1703(숙종29)	燕行詩	徐宗泰(1652~1719)	●	-
112	1704(숙종30)	甲申燕行詩	李頤命(1658~1722)	●	●
113	1712(숙종38)	燕行錄	崔德中(?~?)	●	-
114	1712(숙종38)	燕行日記	金昌業(1658~1721)	●	-
115	1712(숙종38)	燕行填篋錄	金昌業(1658~1721)	●	●
116	1712(숙종38)	燕行填篋錄	金昌集(1648~1722)	●	●
117	1713(숙종39)	燕行詩	趙泰采(1660~1722)	-	-
118	1717(숙종43)	燕行詩	李觀命(1661~1733)	-	-
119	1720(숙종46)	庚子燕行雜識	李宜顯(1669~1745)	●	-
120	1720(숙종46)	燕槎錄	李宜顯(1669~1745)	-	-
121	1720(숙종46)	燕行雜識	李頤命(1658~1722)	-	-
122	1721(경종1)	燕行錄	李正臣(1660~1727)	●	-
123	1721(경종1)	燕行錄	兪拓基(1691~1767)	-	-
124	1721(경종1)	燕行詩	趙泰采(1660~1722)	-	-
125	1722(경종2)	燕行日記	權以鎭(1668~1734)	-	-
126	1723(경종3)	癸卯燕行錄	黃晷(1689~1752)	-	-
총계				32	25

위 80개 여행기들 가운데 몽골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여행기는 32, 건주여진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여행기는 25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존재가 확인된 조선 시대의 여행기는 600여 종에 이르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에 이르는 시대의 여행기의 점유비율은 13%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비율에서 몽골이 40%, 건주여진이 31%로 나타난다. 이후 이 관련기록들을 위의 분석도표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시대별로 대몽골제국, 대원올로스, 원말명초, 명대몽골사(북원), 청대몽골사로 나누어 분석하면 이 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몽골과 건주여진에 관한 관심의 내용과 인식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3.2.3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까지의 분석일람표

[표 7]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까지의 분석일람표

번호	사행연대	명칭	저자	기록여부	
				몽골	건주여진
127	1725(영조1)	燕行日記	趙文命(1680~1732)	●	-
128	1725(영조1)	燕行錄	趙文命(1680~1732)	●	-
129	1728(영조4)	燕行錄	沈鎭(1685~1753)	●	-
130	1732(영조8)	驢跡錄	李宜顯(1669~1745)	-	-
131	1739(영조15)	燕行詩	李匡德(1690~1748)	-	-
132	1743(영조19)	瀋陽行詩	趙顯命(1691~1752)	●	-
133	1745(영조21)	燕行詩	趙觀彬(1691~1757)	-	-
134	1749(영조25)	燕行錄	趙顯命(1691~1752)	-	-
135	1754(영조30)	瀋行錄	兪拓基(1691~1767)	-	-
136	1755(영조31)	燕行詩	黃景源(1709~1787)	●	-
137	1765(영조41)	湛軒燕記	洪大容(1731~1783)	●	-
138	1777(정조1)	燕行記事	李瑛(1737~1795)	●	-
139	1778(정조2)	燕行詩	朴齊家(1750~1805)	●	-
140	1778(정조2)	燕行詩	李德懋(1741~1793)	●	-
141	1778(정조2)	入燕記	李德懋(1741~1793)	●	-
142	1778(정조2)	含忍錄	蔡濟恭(1720~1799)	●	-
143	1780(정조4)	熱河日記	朴趾源(1737~1805)	●	●

144	1782(정조6)	燕雲紀行	洪良浩(1724~1802)	●	-
145	1783(정조7)	輜車集	李晩秀(1752~1820)	-	-
146	1790(정조14)	燕行詩	朴齊家(1750~1805)	-	-
147	1790(정조14)	熱河紀行詩	柳得恭(1748~1807)	●	-
148	1790(정조14)	燕行紀	徐浩修(1736~1799)	●	●
149	1791(정조15)	燕行錄	金正中(?~?)	●	●
150	1798(정조22)	戊午燕行錄	徐有聞(1762~1822)	●	-
151	1801(순조1)	燕行詩	朴齊家(1750~1805)	-	-
152	1801(순조1)	燕行日記啓本	李基憲(?~?)	-	-
153	1802(순조2)	燕臺再遊錄	柳得恭(1749~1807)	●	-
154	1803(순조3)	薊山紀程	未詳	●	-
155	1803(순조3)	輜車集	李晩秀(1752~1820)	-	-
156	1807(순조7)	燕行詩	南公轍(1760~1840)	●	-
157	1812(순조12)	奏請行卷	申緯(1769~1845)	-	-
158	1813(순조13)	燕行詩	沈象奎(1766~1838)	-	-
159	1815(순조15)	燕行詩	金進洙(1797~1865)	-	-
160	1828(순조28)	赴燕日記	未詳	●	●
161	1828(순조28)	心田稿	朴思浩(?~?)	●	-
162	1830?	蓮坡詩鈔	金進洙(1797~1865)	-	-
163	1831(순조31)	燕行錄	鄭元容(1783~1873)	-	-
164	1832(순조32)	燕輶直指	金景善(1788~1853)	●	-
165	1846(헌종12)	燕槎錄	朴永元(1791~1854)	-	-
166	1855(철종6)	夢經堂日史	徐慶淳(1804~?)	●	-
167	1855(철종6)	燕槎紀行	申佐模(1799~1877)	-	-
168	1866(고종3)	丙寅燕行歌	洪淳學(1842~1892)	-	-
169	1873(고종10)	北遊草	姜瑋(1820~1884)	●	-
170	1874(고종11)	北遊續草	姜瑋(1820~1884)	-	-
총계				25	4

위 44개 여행기들 가운데 몽골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여행기는 25, 건주여진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여행기는 4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존재가 확인된 조선시대의 여행기는 600여 종에 이르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에 이르는 시대의 여행기의 점유비율은 7.3%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비율에서 몽골이 57%, 건주여진이 9%로 나타난다. 이후 이 관련기록들을 위의 분석도표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시대별로 대몽골제국, 대원올로스, 원말명초, 명대몽골사(북원), 청대몽골사로 나누어 분석하면 이 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몽골과 건주여진에 관한 관심의 내용과 인식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170개 여행기에서 몽골은 73개, 건주여진은 32개 여행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점유비율은 몽골이 43%, 건주여진이 19%로 나타난다. 또 시대별로 살펴볼 경우 몽골의 경우는 35% → 40% → 57%, 건주여진의 경우는 6.5% → 31% → 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선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에 하나의 시사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의 연행록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의 분석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럴 경우 몽골 및 건주여진에 인식의 변화 내지 추이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3. 문집 1101개 및 기타 저작에 수록된 몽골, 건주여진의 기사분석

3.3.1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까지의 분석일람표

[표 8]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까지의 분석일람표

번호	생존연대	저자	문집명	기록여부	
				몽골	건주여진
0001	未詳 ~1398	鄭道傳	三峯集	●	-
0002	1337~1403	朴宜中	貞齋逸稿	●	-
0003	1338~1423	成石璘	獨谷集	-	-
0004	1339~1415	羅繼從	竹軒遺集	●	-
0005	1345~1405	李詹	雙梅堂篋藏集	-	-
0006	1346~1405	趙浚	松堂集	●	-
0007	1347~1416	河崙	浩亭集	●	●
0008	1351~1419	南在	龜亭遺藁	-	●

0009	1352~1409	權近	陽村集	●	●
0010	1352~1432	李行	騎牛集	-	-
0011	1353~1419	吉再	治隱集	●	-
0012	1358~1397	鄭摠	復齋集	●	-
0013	1362~1431	李稷	亨齋詩集	●	-
0014	1363~1419	權遇	梅軒集	●	-
0015	1368~1429	李原	容軒集	-	-
0016	1369~1430	卞季良	春亭集	●	-
0017	1373~1455	尹祥	別洞集	-	-
0018	1374~1446	朴興生	菊堂遺稿	-	-
0019	1374~1446	申槩	寅齋集	●	●
0020	1376~1453	河濱	敬齋集	●	-
0021	1388~1443	柳方善	泰齋集	-	-
0022	1401~1481	丁克仁	不憂軒集	●	-
0023	1408~1442	南秀文	敬齋遺稿	●	-
0024	1409~1474	崔恒	太虛亭集	-	-
0025	1409~1481	金守溫	拭疣集	-	-
0026	1412~1456	河緯地	丹溪遺稿	●	-
0027	1415~1477	李石亨	樗軒集	-	-
0028	1415~1482	梁誠之	訥齋集	●	●
0029	1416~1464	金淡	撫松軒集	●	-
0030	1417~1456	朴彭年	朴先生遺稿	-	-
0031	1417~1475	申叔舟	保閑齋集	●	●
0032	1418~1456	成三問	成謹甫集	-	-
0033	1420~1488	徐居正	四佳集	●	●
0034	1420~1489	趙旅	漁溪集	-	-
0035	1422~1484	李承召	三灘集	●	●
0036	1424~1483	姜希孟	私淑齋集	-	-
0037	1427~1456	成侃	眞逸遺稿	-	-
0038	1427~1497	孫舜孝	勿齋集	-	-
0039	1431~1492	金宗直	佔畢齋集	●	●
0040	1432~1480	崔淑精	逍遙齋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041	1435~1493	金時習	梅月堂集	●	-
0042	1437~1487	金孟性	止止堂詩集	-	-
0043	1438~1498	李陸	靑坡集	-	-
0044	1438~1504	洪貴達	虛白亭集	●	●
0045	1439~1504	成倪	虛白堂集	●	●
0046	1439~1504	楊熙止	大峯集	●	●
0047	1445~1494	兪好仁	潘谿集	-	-
0048	1448~1492	金訢	顏樂堂集	-	●
0049	1449~1498	表沿沫	藍溪集	-	-
0050	1449~1507	李宜茂	蓮軒雜稿	-	●
0051	1449~1515	蔡壽	懶齋集	●	-
0052	1450~1504	鄭汝昌	一蠹集	-	-
0053	1452~1529	洪裕孫	篠叢遺稿	-	-
0054	1454~1488	李婷	風月亭集	●	-
0055	1454~1492	南孝溫	秋江集	●	-
0056	1454~1503	曹偉	梅溪集	-	-
0057	1454~1504	崔溥	錦南集	-	-
0058	1454~1527	丁壽崗	月軒集	●	-
0059	1457~1521	文敬全	滄溪集	●	-
0060	1458~1488	李湜	四雨亭集	●	-
0061	1458~1491	崔忠成	山堂集	-	-
0062	1462~1538	鄭光弼	鄭文翼公遺稿	-	-
0063	1463~1519	申用漑	二樂亭集	●	●
0064	1464~1498	金駟孫	濯纓集	●	-
0065	1464~1519	姜渾	木溪逸稿	-	-
0066	1467~1498	權五福	睡軒集	-	-
0067	1467~1555	李賢輔	聳巖集	-	-
0068	1468~1504	李胄	忘軒遺稿	-	-
0069	1469~1502	鄭希良	虛庵遺集	-	-
0070	1469~1517	李堦	松齋集	●	-
0071	1470~1550	魚得江	灌圃詩集	●	-
0072	1471~1498	李穆	李評事集	●	-

0073	1471~1540	朴英	松堂集	-	●
0074	1473~1508	洪彦忠	寓菴稿	-	-
0075	1473~1533	金世弼	十淸軒集	-	●
0076	1473~1548	李希輔	安分堂詩集	-	-
0077	1474~1530	朴祥	訥齋集	-	●
0078	1474~1540	金克成	憂亨集	●	-
0079	1475~未詳	沈義	大觀齋亂稿	●	-
0080	1476~1549	洪彦弼	默齋集	●	●
0081	1478~1534	李荇	容齋集	-	●
0082	1478~1543	金安國	慕齋集	●	●
0083	1478~1548	權機	冲齋集	●	-
0084	1479~1504	朴閔	挹翠軒遺稿	-	-
0085	1480~1533	李籽	陰崖集	-	●
0086	1480~1545	梁彭孫	學圃集	●	-
0087	1481~1537	金安老	希樂堂稿	●	●
0088	1482~1519	趙光祖	靜菴集	●	●
0089	1483~1536	李迨	月淵集	-	-
0090	1484~1555	申光漢	企齋集	●	-
0091	1485~1541	金正國	思齋集	●	●
0092	1486~1521	金淨	冲庵集	-	-
0093	1486~1521	韓忠	松齋集	-	-
0094	1486~1562	蘇世讓	陽谷集	●	-
0095	1487~1540	沈彦光	漁村集	●	●
0096	1487~1544	金綠	雲巖逸稿	-	-
0097	1488~1534	金綬	自菴集	-	-
0098	1489~1546	徐敬德	花潭集	-	-
0099	1490~未詳	鄭球	乖隱遺稿	-	-
0100	1491~1553	晦齋集	李彦迪	-	●
0101	1491~1570	鄭士龍	湖陰雜稿	●	-
0102	1492~1521	奇遵	德陽遺稿	-	-
0103	1492~1555	趙晟	養心堂集	-	-
0104	1493~1549	閔齊仁	立巖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105	1493~1562	朴雲	龍巖集	-	-
0106	1493~1564	尙震	泛虛亭集	●	●
0107	1493~1564	成守琛	聽松集	-	-
0108	1493~1583	宋純	俛仰集	●	-
0109	1494~1558	宋希奎	椰溪集	-	-
0110	1495~1535	趙宗敬	獨庵遺稿	-	-
0111	1495~1547	金義貞	潛庵逸稿	-	-
0112	1495~1554	周世鵬	武陵雜稿	●	●
0113	1496~1550	李濯	溫溪逸稿	●	-
0114	1496~1568	林億齡	石川詩集	-	-
0115	1497~1540	丁煥	檜山集	●	-
0116	1497~1579	成運	大谷集	-	-
0117	1498~1546	羅湜	長吟亭遺稿	-	-
0118	1498~1551	羅世纘	松齋遺稿	-	-
0119	1498~1554	李元孫	無何翁集	-	-
0120	1498~1557	趙昱	龍門集	-	-
0121	1498~1562	李潤慶	崇德齋遺稿	-	●
0122	1499~1547	宋麟壽	圭菴集	-	-
0123	1499~1572	李浚慶	東臯遺稿	-	●
0124	1499~1576	李恒	一齋集	-	-
0125	1500~1584	林薰	葛川集	-	-
0126	1501~1570	李滉	退溪集	●	●
0127	1501~1572	曹植	南冥集	-	-
0128	1503~1549	崔演	艮齋集	-	-
0129	1504~1585	洪暹	忍齋集	-	-
0130	1507~1581	宋麒秀	秋坡集	-	-
0131	1508~1543	嚴昕	十省堂集	-	-
0132	1509~1570	金就文	久庵集	-	-
0133	1510~1560	金麟厚	河西全集	-	-
0134	1512~1560	丁熿	游軒集	-	-
0135	1512~1563	金澍	寓庵遺集	-	-
0136	1512~1571	李楨	龜巖集	-	-

0137	1512~1573	吳祥	負暄堂遺稿	●	-
0138	1513~1577	柳希春	眉巖集	●	-
0139	1513~1592	朴枝華	守庵遺稿	-	-
0140	1514~1547	林亨秀	錦湖遺稿	●	-
0141	1514~1558	朴全	松坡逸稿	-	-
0142	1514~1578	尹鉉	菊圃集	-	-
0143	1515~1554	洪仁祐	耻齋遺稿	●	-
0144	1515~1572	李洪男	汲古遺稿	-	-
0145	1515~1588	鄭惟吉	林塘遺稿	●	-
0146	1515~1590	盧守愼	穌齋集	●	●
0147	1516~1571	柳景深	龜村集	-	-
0148	1516~1577	金富弼	後彫堂集	-	-
0149	1516~1599	沈守慶	聽天堂詩集	-	-
0150	1517~1563	黃俊良	錦溪集	●	●
0151	1517~1578	李之菡	土亭遺稿	-	-
0152	1517~1580	許曄	草堂集	-	-
0153	1517~1584	宋寅	頤庵遺稿	-	-
0154	1517~1584	楊士彥	蓬萊詩集	-	-
0155	1517~1586	朴承任	嘯臯集	●	-
0156	1517~1602	林芸	瞻慕堂集	●	-
0157	1518~1578	盧禎	玉溪集	●	-
0158	1519~1581	梁應鼎	松川遺集	●	●
0159	1519~1594	金貴榮	東園集	-	●
0160	1520~1549	康惟善	舟川遺稿	-	-
0161	1520~1578	李後白	靑蓮集	-	-
0162	1520~1593	權擘	習齋集	-	-
0163	1521~1574	吳健	德溪集	-	-
0164	1521~1584	琴輔	梅軒集	-	-
0165	1521~1606	吳守盈	春塘集	-	-
0166	1522~1556	白光弘	岐峯集	●	-
0167	1523~1567	姜翼	介庵集	-	-
0168	1523~1589	朴淳	思菴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169	1523~1591	徐起	孤靑遺稿	-	-
0170	1524~1569	金八元	芝山集	-	-
0171	1524~1590	金宇宏	開巖集	-	-
0172	1524~1594	兪泓	松塘集	-	●
0173	1524~1606	趙穆	月川集	-	-
0174	1524~1609	丁炤	晚軒集	-	-
0175	1525~1594	金隆	勿巖集	-	-
0176	1525~1610	許震童	東湘集	-	-
0177	1526~1584	文益成	玉洞集	-	-
0178	1526~1586	具鳳齡	栢潭集	●	-
0179	1526~1605	朴光前	竹川集	●	-
0180	1526~1605	鄭琢	藥圃集	●	-
0181	1527~1572	奇大升	高峯集	●	-
0182	1527~1599	金齊閔	鰲峯集	●	-
0183	1529~1590	鄭介淸	愚得錄	-	-
0184	1530~1604	琴蘭秀	惺齋集	-	-
0185	1531~1598	金富倫	雪月堂集	-	-
0186	1531~1604	具思孟	八谷集	●	●
0187	1532~1585	辛應時	白麓遺稿	●	-
0188	1532~1587	權好文	松巖集	-	-
0189	1532~1590	金孝元	省菴遺稿	-	-
0190	1532~1607	黃廷彧	芝川集	-	-
0191	1533~1576	鄭惟一	文峯集	-	-
0192	1533~1592	高敬命	霽峯集	●	●
0193	1533~1592	李純仁	孤潭逸稿	-	-
0194	1533~1601	尹斗壽	梧陰遺稿	-	-
0195	1533~1621	李義健	峒隱稿	-	-
0196	1534~1588	裴三益	臨淵齋集	-	-
0197	1534~1591	權文海	草澗集	-	●
0198	1534~1599	宋翼弼	龜峯集	-	-
0199	1534~1607	柳思規	桑楡集	-	-
0200	1535~1598	成渾	牛溪集	●	-

0201	1535~1623	鄭仁弘	來庵集	●	-
0202	1536~1583	李濟臣	淸江集	-	●
0203	1536~1584	李珥	栗谷全書	●	●
0204	1536~1593	鄭澈	松江集	●	●
0205	1536~1594	洪聖民	拙翁集	●	-
0206	1536~1596	丁希孟	善養亭集	-	-
0207	1536~1599	李海壽	藥圃遺稿	-	●
0208	1537~1582	白光勳	玉峯集	-	-
0209	1537~1593	金千鎰	健齋集	-	●
0210	1537~1597	趙宗道	大笑軒逸稿	-	-
0211	1537~1616	尹根壽	月汀集	●	●
0212	1537~1626	宋栢壽	松潭集	-	-
0213	1538~1590	河沆	覺齋集	-	-
0214	1538~1593	金誠一	鶴峯集	●	-
0215	1538~1602	鄭岷壽	栢谷集	●	-
0216	1539~1583	崔慶昌	孤竹遺稿	-	-
0217	1539~1593	李誠中	坡谷遺稿	-	-
0218	1539~1601	柳雲龍	謙菴集	-	-
0219	1539~1609	李山海	鵝溪遺稿	-	-
0220	1539~1612	崔豈	簡易集	●	-
0221	1539~1617	權春蘭	晦谷集	-	-
0222	1539~1618	李達	蓀谷詩集	-	-
0223	1540~1603	金宇顛	東岡集	●	-
0224	1540~1616	金玘	柏巖集	-	-
0225	1540~1617	吳滢	竹牖集	●	-
0226	1541~1593	金沔	松菴遺稿	-	-
0227	1541~1596	李德弘	艮齋集	-	-
0228	1541~1600	李廷毓	四留齋集	●	-
0229	1541~1611	朴汝龍	松崖集	-	-
0230	1541~1615	洪可臣	晚全集	-	●
0231	1542~1587	徐益	萬竹軒集	-	-
0232	1542~1601	安敏學	楓崖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233	1542~1607	柳成龍	西厓集	●	●
0234	1542~1609	李瑀	玉山詩稿	-	-
0235	1542~1615	尹安性	冥觀遺稿集	●	-
0236	1542~1621	金玄成	南窓雜藁	-	-
0237	1543~1617	權斗文	南川集	-	-
0238	1543~1620	鄭逵	寒岡集	●	●
0239	1544~1592	梁大樸	靑溪集	●	●
0240	1544~1592	趙憲	重峰集	●	●
0241	1544~1598	李魯	松巖集	-	-
0242	1544~1602	裴應璩	安村集	●	-
0243	1544~1616	黃暹	息庵集	-	●
0244	1545~1598	李舜臣	李忠武公全書	●	●
0245	1545~1607	鄭士誠	芝軒集	-	-
0246	1545~1609	曹好益	芝山集	-	●
0247	1545~1636	劉希慶	村隱集	-	-
0248	1546~1632	成汝信	浮查集	-	-
0249	1547~1603	金圻	北厓集	-	-
0250	1547~1615	張經世	沙村集	-	-
0251	1547~1622	朴而章	龍潭集	-	●
0252	1547~1634	李元翼	梧里集	-	●
0253	1548~1612	許箴	岳麓集	-	●
0254	1548~1622	沈喜壽	一松集	●	●
0255	1548~1630	郭說	西浦集	●	●
0256	1548~1631	金長生	沙溪遺稿	-	-
0257	1549~1587	林悌	林白湖集	-	●
0258	1549~1591	洪迪	荷衣遺稿	-	-
0259	1549~1606	朴惺	大菴集	-	-
0260	1549~1607	李廷馨	知退堂集	●	●
0261	1549~1613	趙彭年	溪陰集	-	-
0262	1549~1615	洪履祥	慕堂集	●	-
0263	1549~1627	柳根	西垞集	-	-
0264	1550~1615	徐思遠	樂齋集	-	-

0265	1551~1588	許篈	荷谷集	●	●
0266	1551~1592	宋象賢	泉谷集	-	-
0267	1551~1611	文德教	東湖集	-	-
0268	1551~1613	黃赫	獨石集	-	-
0269	1552~1590	權宇	松巢集	-	-
0270	1552~1615	韓百謙	久菴遺稿	●	●
0271	1552~1617	郭再祐	忘憂集	-	-
0272	1552~1618	吳億齡	晚翠集	-	-
0273	1552~1619	呂大老	鑑湖集	-	-
0274	1552~1626	閔仁伯	苔泉集	●	-
0275	1552~1633	金德謙	靑陸集	-	●
0276	1553~1602	金大賢	悠然堂集	-	-
0277	1553~1612	河受一	松亭集	-	-
0278	1553~1616	鄭賜湖	禾谷集	-	-
0279	1553~1623	高尚顏	泰村集	-	●
0280	1553~1623	申應渠	晚退軒遺稿	-	-
0281	1553~1630	李得胤	西溪集	-	-
0282	1553~1634	孫處訥	慕堂集	-	-
0283	1553~1634	李好閔	五峯集	●	●
0284	1554~1611	朴汝樑	感樹齋集	-	-
0285	1554~1614	韓應寅	百拙齋遺稿	-	-
0286	1554~1631	文緯	茅谿集	-	●
0287	1554~1637	張顯光	旅軒集	●	-
0288	1555~1593	金垓	近始齋集	-	-
0289	1555~1636	趙靖	黔澗集	-	●
0290	1556~1595	李廷立	溪隱遺稿	-	-
0291	1556~1609	裴龍吉	琴易堂集	●	●
0292	1556~1613	趙翊	可畦集	●	-
0293	1556~1615	車天輅	五山集	●	●
0294	1556~1618	李恒福	白沙集	●	-
0295	1556~1619	文景虎	禪陽集	-	-
0296	1556~1620	宋英壽	瓢翁遺稿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297	1556~1622	黃汝一	海月集	●	●
0298	1557~1620	金涌	雲川集	●	●
0299	1557~1623	金興國	水北亭集	-	-
0300	1557~1627	韓浚謙	柳川遺稿	-	●
0301	1558~1619	鄭士信	梅窓集	●	-
0302	1558~1630	李厚慶	畏齋集	●	-
0303	1558~1631	徐渚	藥峯遺稿	●	-
0304	1558~1648	李埶	月澗集	-	-
0305	1559~1611	任鏞	鳴臯集	-	-
0306	1559~1617	孫起陽	聳漢集	-	●
0307	1559~1617	吳克成	問月堂集	-	●
0308	1559~1619	尹光啓	橘屋拙稿	-	-
0309	1559~1623	柳夢寅	於于集	●	●
0310	1559~1624	洪璋	西潭集	●	●
0311	1559~1625	閔昱	石溪集	-	-
0312	1559~1626	成文潛	滄浪集	-	-
0313	1559~1631	金止男	龍溪遺稿	●	-
0314	1559~1636	吳允謙	秋灘集	-	●
0315	1560~1622	金允安	東籬集	●	●
0316	1560~1624	李尙毅	少陵集	●	-
0317	1560~1635	李埿	蒼石集	●	●
0318	1560~1638	崔恒慶	竹軒集	-	●
0319	1560~1651	崔希亮	逸翁集	-	●
0320	1561~1613	李德馨	漢陰文稿	●	●
0321	1561~1625	曹友仁	頤齋集	●	●
0322	1561~1637	金尙容	仙源遺稿	-	●
0323	1561~1642	朴仁老	蘆溪集	-	●
0324	1562~1617	黃愼	秋浦集	-	●
0325	1562~1624	申之梯	梧峯集	●	●
0326	1562~1636	金德誠	醒翁遺稿	-	-
0327	1563~1589	許楚姬	蘭雪軒詩集	-	-
0328	1563~1606	李春英	體素集	-	-

0329	1563~1609	安德麟	沙村集	-	-
0330	1563~1625	鄭曄	守夢集	-	●
0331	1563~1626	金守訥	九峯集	-	-
0332	1563~1628	李晬光	芝峯集	●	●
0333	1563~1633	鄭經世	愚伏集	●	●
0334	1563~1640	崔峴	訥齋集	●	●
0335	1563~1640	許積	水色集	-	●
0336	1563~1642	全湜	沙西集	-	-
0337	1564~1627	玄德升	希菴遺稿	-	-
0338	1564~1632	金安節	洛涯遺稿	-	-
0339	1564~1633	張興孝	敬堂集	-	-
0340	1564~1635	李廷龜	月沙集	●	●
0341	1564~1636	柳瀟	醉吃集	●	●
0342	1564~1637	李光胤	瀆西集	-	●
0343	1564~1647	高仁繼	月峯集	-	●
0344	1565~1617	吳長	思潮集	-	-
0345	1565~1624	鄭文孚	農圃集	-	-
0346	1566~1619	李惟弘	艮庭集	●	●
0347	1566~1622	魯認	錦溪集	-	-
0348	1566~1624	全有亨	鶴松集	-	-
0349	1566~1628	申欽	象村稿	-	-
0350	1566~1629	金中淸	苟全集	●	●
0351	1566~1629	張晚	洛西集	-	-
0352	1566~1630	朴敏	凌虛集	●	●
0353	1566~1635	丁運熙	孤舟集	●	●
0354	1566~1650	姜籀	竹窓集	-	●
0355	1566~1651	李서	東湖集	-	-
0356	1567~1618	姜沆	睡隱集	●	●
0357	1567~1618	宋邦祚	習靜集	-	-
0358	1567~1637	趙亨道	東溪集	-	●
0359	1567~1644	李慶全	石樓遺稿	-	●
0360	1567~1649	趙緯韓	玄谷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361	1567~1650	金寧	遯峯集	-	●
0362	1568~1589	崔澗	楊浦遺藁	-	-
0363	1568~1624	李燾	壺峯集	-	●
0364	1568~1630	李屹	雪汀集	-	●
0365	1568~1633	郭진	丹谷集	-	●
0366	1568~1639	李彦英	浣亨集	●	●
0367	1568~未詳	梁慶遇	霽湖集	-	●
0368	1569~1601	具容	竹窓遺稿	●	-
0369	1569~1612	權輶	石洲集	-	-
0370	1569~1618	許筠	惺所覆瓿藁	●	●
0371	1569~1620	盧景任	敬菴集	●	●
0372	1569~1626	李時發	碧梧遺稿	-	●
0373	1569~1631	權泰一	藏谷集	-	●
0374	1569~1634	李潤雨	石潭集	-	●
0375	1569~1639	鄭侗	松塢集	-	●
0376	1569~1641	鄭蘊	桐溪集	●	●
0377	1569~1646	沈悅	南坡相國集	-	●
0378	1569~1647	趙平	雲壑集	●	●
0379	1570~1622	權得己	晚悔集	-	-
0380	1570~1629	李民成	敬亭集	●	●
0381	1570~1652	金尙憲	淸陰集	●	●
0382	1571~1629	鄭允穆	淸風子集	-	●
0383	1571~1634	李春元	九畹集	-	●
0384	1571~1637	李安訥	東岳集	●	●
0385	1571~1639	鄭文翼	松竹堂集	●	●
0386	1571~1642	金忠善	慕夏堂集	-	-
0387	1571~1642	朴弘美	灌圃集	●	●
0388	1571~1648	金瑩	北渚集	-	●
0389	1571~1649	都聖俞	養直集	-	●
0390	1572~1630	金奉祖	鶴湖集	-	●
0391	1572~1630	李命俊	潛窩遺稿	-	●
0392	1572~1631	趙纘韓	玄洲集	●	-

0393	1572~1645	洪瑞鳳	鶴谷集	●	●
0394	1572~1652	朴壽春	菊潭集	-	-
0395	1573~1623	洪命元	海峯集	-	●
0396	1573~1635	朴知誠	潛冶集	-	●
0397	1573~1649	李民賓	紫巖集	●	●
0398	1573~1654	安邦俊	隱峯全書	●	●
0399	1574~1643	金友伋	秋潭集	-	●
0400	1574~1655	裴尙龍	藤庵集	-	-
0401	1574~1656	金集	愼獨齋遺稿	-	-
0402	1575~1636	鄭忠信	晚雲集	●	●
0403	1575~1638	陸大欽	茶山集	-	-
0404	1575~1638	趙希逸	竹陰集	●	●
0405	1575~1644	權濤	東溪集	-	●
0406	1576~1623	任叔英	疎菴集	-	●
0407	1576~1631	申達道	晚悟集	●	●
0408	1576~1643	申活	竹老集	●	●
0409	1576~1650	申敏一	化堂集	-	●
0410	1577~1624	沈光世	休翁集	●	●
0411	1577~1641	金玲	溪巖集	-	-
0412	1577~1648	金榮祖	忘窩集	-	●
0413	1577~1650	鄭榮邦	石門集	-	●
0414	1577~1652	高用厚	晴沙集	-	-
0415	1577~1658	鄭克後	雙峯集	●	●
0416	1578~1636	高傳川	月峯集	-	●
0417	1579~1642	黃宗海	朽淺集	-	-
0418	1579~1655	趙翼	浦渚集	-	●
0419	1580~1639	申楫	河陰集	●	●
0420	1580~1643	姜碩期	月塘集	-	●
0421	1580~1656	金光煜	竹所集	-	●
0422	1580~1658	金埴	潛谷遺稿	●	●
0423	1582~1612	宋夢寅	琴巖集	-	-
0424	1582~1635	柳軫	修巖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425	1582~1646	朴弘中	秋山集	●	●
0426	1582~1650	鄭弘溟	崎庵集	-	●
0427	1582~1657	尹新之	玄洲集	-	●
0428	1582~1657	趙相禹	時庵集	●	●
0429	1583~1640	朴網	无悶堂集	●	●
0430	1583~1650	趙又新	白潭遺集	-	●
0431	1584~1638	羅海鳳	南礪集選	-	●
0432	1584~1647	金光炫	水北遺稿	-	●
0433	1584~1647	李植	澤堂集	●	●
0434	1584~1663	具瑩	竹圃詩集	●	●
0435	1585~1639	金地粹	苔川集	-	●
0436	1585~1645	李尙馨	天默遺稿	-	●
0437	1585~1651	柳楫	白石遺稿	-	●
0438	1585~1657	李敬輿	白江集	-	●
0439	1585~1659	權克中	靑霞集	-	●
0440	1585~1664	趙任道	澗松集	●	-
0441	1585~未詳	崔奇男	龜谷詩稿	-	●
0442	1586~1637	洪翼漢	花浦遺稿	●	●
0443	1586~1646	洪鎬	無住逸稿	●	●
0444	1586~1647	崔鳴吉	遲川集	●	●
0445	1586~1657	林眞愬	林谷集	-	●
0446	1586~1669	趙綱	龍洲遺稿	●	●
0447	1587~1638	張維	谿谷集	●	●
0448	1587~1666	吳竣	竹南堂稿	-	●
0449	1587~1667	金應祖	鶴沙集	-	●
0450	1587~1671	尹善道	孤山遺稿	●	●
0451	1587~未詳	崔有淵	玄巖遺稿	-	-
0452	1588~1635	鄭百昌	玄谷集	-	●
0453	1588~1641	崔有海	嘿守堂集	-	-
0454	1588~1644	申翊聖	樂全堂集	●	●
0455	1588~1653	鮮于浹	遯菴全書	-	-
0456	1588~1655	李弘有	遯軒集	-	●

0457	1588~1661	許厚	遯溪遺編	-	-
0458	1589~1659	申悅道	懶齋集	●	●
0459	1589~1662	韓夢參	釣隱集	-	-
0460	1589~1670	李敏求	東州集	-	●
0461	1590~1647	曹文秀	雪汀詩集	-	-
0462	1590~1666	具致用	于郊堂遺稿	-	-
0463	1590~1674	李時明	石溪集	●	●
0464	1591~1658	姜大遂	寒沙集	-	-
0465	1591~1666	尹順之	滄溟齋詩集	-	●
0466	1592~1634	吳翻	天坡集	●	-
0467	1592~1645	朴灋	汾西集	●	●
0468	1592~1661	愼天翊	素隱遺稿	●	-
0469	1593~1646	金世濂	東溟集	-	●
0470	1593~1662	沈之源	晚沙稿	●	●
0471	1593~1666	河弘度	謙齋集	●	●
0472	1594~1660	沈東龜	晴峯集	-	●
0473	1594~1669	李回寶	石屏集	●	●
0474	1595~1645	李明漢	白洲集	-	●
0475	1595~1656	洪宇定	杜谷集	-	●
0476	1595~1658	李弘祚	少痊集	-	-
0477	1595~1658	趙克善	冶谷集	●	-
0478	1595~1660	李弘祚	睡隱遺集	-	-
0479	1595~1664	成以性	溪西逸稿	●	-
0480	1595~1671	李景奭	白軒集	●	●
0481	1595~1675	申碩蕃	百源集	-	-
0482	1595~1682	許穆	記言	●	●
0483	1596~1633	李義吉	亮谷遺稿	-	-
0484	1596~1653	金慶餘	松崖集	-	●
0485	1596~1657	沈之漢	滄洲集	-	●
0486	1596~1663	金南重	野塘遺稿	●	●
0487	1596~1668	尹舜舉	童土集	-	●
0488	1597~1635	李尙質	家州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489	1597~1638	金傑	敬窩集	-	-
0490	1597~1658	河潛	台溪集	●	●
0491	1597~1659	宋國澤	四友堂集	-	-
0492	1597~1668	姜瑜	商谷集	●	●
0493	1597~1673	鄭斗卿	東溟集	●	●
0494	1597~1675	金宗一	魯庵集	●	●
0495	1598~1645	李昭漢	玄洲集	-	●
0496	1598~1667	金是樞	瓢隱集	●	-
0497	1598~1667	李時省	騏峯集	-	●
0498	1598~1674	柳元之	拙齋集	●	●
0499	1599~1655	李海昌	松坡集	-	-
0500	1599~1660	蔡裕後	湖洲集	-	-
0501	1599~1676	張應一	聽天堂集	-	-
0502	1600~1668	鄭澆	抱翁集	-	●
0503	1600~1673	申弘望	孤松集	-	-
0504	1600~1674	安獻徵	鷗浦集	-	●
총계(504)				188	210

위 504개 문집 가운데 몽골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188, 건주여진 관계 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210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몽골은 37%, 건주여진은 39%에 이른다. 이후 이 관련기록들을 위의 분석도표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시대별로 대몽골제국, 대원올로스, 원말명초, 명대몽골사(북원), 청대몽골사로 나누어 분석하면 이 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몽골과 건주여진에 관한 관심의 내용과 인식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3.3.2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까지의 분석일람표

[표 9]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까지의 분석일람표

번호	생존연대	저자	문집명	기록여부	
				몽골	건주여진
0505	1601~1647	鄭時修	琴川集	-	●

0506	1601~1663	鄭伋	愚川集	-	●
0507	1601~1672	尹元學	龍西集	-	●
0508	1602~1644	金華俊	棠溪集	-	-
0509	1602~1654	金弘郁	鶴洲全集	-	●
0510	1602~1662	柳櫻	百拙庵集	-	-
0511	1602~1662	李起淳	西歸遺藁	●	●
0512	1602~1673	鄭太和	陽坡遺稿	●	●
0513	1603~1644	李道長	洛村集	-	-
0514	1603~1681	姜栢年	雪峯遺稿	-	●
0515	1603~1691	柳帶春	東村遺稿	-	-
0516	1604~1656	黃辰	漫浪集	-	●
0517	1604~1672	權認	炭翁集	-	-
0518	1604~1672	李晚榮	雪海遺稿	●	●
0519	1604~1684	金得臣	柏谷集	●	●
0520	1605~1654	黃暉	塘村集	-	●
0521	1605~1660	申翊全	東江遺集	-	●
0522	1605~1687	洪宇遠	南坡集	●	●
0523	1606~1629	洪九淵	磨鏡軒集	-	-
0524	1606~1655	趙錫胤	樂靜集	●	●
0525	1606~1664	鄭昌胄	晚洲集	-	-
0526	1606~1672	宋浚吉	同春堂集	-	-
0527	1606~1672	尹文學	石湖遺稿	●	●
0528	1606~1672	洪柱元	無何堂遺稿	-	●
0529	1606~1680	洪錫箕	晚洲遺集	●	●
0530	1607~1664	俞榮	市南集	●	●
0531	1607~1684	李惟泰	草廬集	-	-
0532	1607~1689	宋時烈	宋子大全	●	●
0533	1608~1670	曹漢英	晦谷集	●	●
0534	1609~1637	吳達濟	忠烈公遺稿	●	-
0535	1609~1671	趙復陽	松谷集	●	●
0536	1610~1656	金益熙	滄洲遺稿	●	●
0537	1610~1665	申濡	竹堂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538	1610~1669	尹宣舉	魯西遺稿	●	●
0539	1610~未詳	石之珩	壽峴集	-	-
0540	1611~1673	裴幼華	八斯遺稿	-	-
0541	1611~1678	都愼微	竹軒集	-	-
0542	1611~1693	鄭必達	八松集	●	●
0543	1612~1661	洪柱世	靜虛堂集	●	-
0544	1612~1671	朴長遠	久堂集	-	●
0545	1612~1684	宋挺濂	存養齋集	-	●
0546	1613~1654	李榘	活齋集	●	●
0547	1613~1671	徐必遠	六谷遺稿	●	●
0548	1614~1662	李健	葵窓遺稿	●	●
0549	1614~1683	具峯	明谷集	-	-
0550	1614~1690	兪瑒	秋潭集	●	-
0551	1615~1665	趙龜錫	藏六堂遺集	-	-
0552	1615~1689	李文載	石洞遺稿	●	●
0553	1616~1659	趙備	桂窩集	●	-
0554	1616~1671	金佐明	歸溪遺稿	-	-
0555	1616~1680	柳赫然	野堂遺稿	-	-
0556	1617~1678	高汝興	闇隱集	-	-
0557	1617~1678	李殷相	東里集	-	●
0558	1617~1680	尹鏞	白湖集	●	●
0559	1618~1666	吳以翼	石門集	-	-
0560	1619~1658	申最	春沼子集	-	●
0561	1619~1672	李徽逸	存齋集	-	-
0562	1620~1660	洪葦	清溪集	-	●
0563	1620~1674	洪汝河	木齋集	●	●
0564	1620~1679	吳益升	松峯遺稿	-	-
0565	1620~1688	沈攸	梧灘集	-	●
0566	1620~1690	李翔	打愚遺稿	●	●
0567	1622~1658	李潛	松溪集	●	-
0568	1622~1680	李元禎	歸巖集	-	●
0569	1622~1707	李震白	西巖遺稿	-	-

0570	1623~1680	洪柱國	泛翁集	-	●
0571	1624~1656	申混	初菴集	-	-
0572	1624~1671	金萬英	南圃集	-	-
0573	1624~1689	吳斗寅	陽谷集	●	-
0574	1624~1701	金壽增	谷雲集	●	●
0575	1625~1673	李敏迪	竹西集	-	-
0576	1625~1689	李端夏	畏齋集	-	●
0577	1625~1691	呂聖齊	雲浦遺稿	-	-
0578	1625~1691	李翊相	梅澗集	-	-
0579	1625~1701	李惟樟	孤山集	-	-
0580	1625~1707	丁時翰	愚潭集	-	-
0581	1625~1711	金如萬	秋潭集	-	-
0582	1626~1690	金壽興	退憂堂集	-	●
0583	1627~1693	蘇斗山	月洲集	-	●
0584	1627~1704	李玄逸	葛庵集	●	●
0585	1628~1669	李端相	靜觀齋集	●	●
0586	1628~1673	金學培	錦翁集	-	-
0587	1628~1682	李夏鎭	六寓堂遺稿	●	●
0588	1628~1686	趙晟漢	東山遺稿	-	●
0589	1628~1687	申晷	汾厓遺稿	-	●
0590	1628~1691	李之濂	恥菴集	-	-
0591	1628~1692	南龍翼	壺谷集	●	-
0592	1628~1692	閔鼎重	老峯集	●	●
0593	1628~1695	姜錫圭	磬齋集	●	●
0594	1629~1689	金壽恒	文谷集	●	●
0595	1629~1693	朴尙玄	寓軒集	-	-
0596	1629~1698	朴守儉	林湖集	●	●
0597	1629~1703	朴世堂	西溪集	●	●
0598	1629~1711	南九萬	藥泉集	●	●
0599	1629~1711	張璵	錦江集	-	-
0600	1629~1714	尹拯	明齋遺稿	●	-
0601	1630~1680	趙遠期	九峯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602	1630~1687	閔維重	文貞公遺稿	●	●
0603	1630~1701	李世華	雙栢堂集	-	-
0604	1630~1709	宋奎濂	霽月堂集	●	-
0605	1631~1680	趙根	損庵集	●	●
0606	1631~1690	趙宗著	南岳集	-	-
0607	1631~1692	李選	芝湖集	●	●
0608	1631~1695	朴世采	南溪集	●	●
0609	1631~1698	尹摺	德浦遺稿	-	-
0610	1631~1698	李嵩逸	恒齋集	-	●
0611	1632~1681	吳始壽	水村集	-	-
0612	1632~1682	崔承太	雪蕉遺稿	-	-
0613	1632~1702	李志傑	琴湖遺稿	-	●
0614	1632~1707	尹推	農隱遺稿	●	●
0615	1633~1687	金萬基	瑞石集	●	●
0616	1633~1688	李敏敍	西河集	●	●
0617	1633~1705	柳命天	退堂集	●	●
0618	1633~1709	李瑞雨	松坡集	●	●
0619	1634~1684	金錫胄	息庵遺稿	●	●
0620	1634~1685	趙顯期	一峯集	●	●
0621	1634~1697	申翼相	醒齋遺稿	-	-
0622	1634~1707	任弘亮	敝帚遺稿	-	-
0623	1635~1703	李世白	雩沙集	-	-
0624	1635~1707	張瑱	茅庵集	-	●
0625	1635~1719	權泰時	山澤齋集	-	●
0626	1636~1690	柳世鳴	寓軒集	-	●
0627	1636~1699	申厚載	葵亭集	●	-
0628	1636~1707	柳尙運	約齋集	●	-
0629	1636~1711	高晦	觀瀾齋遺稿	●	-
0630	1637~1678	朴光後	安村集	-	-
0631	1637~1692	金萬重	西浦集	-	●
0632	1637~1702	金兌一	蘆洲集	-	-
0633	1638~1689	趙聖期	拙修齋集	-	-

0634	1638~1695	宋光淵	泛虛亭集	-	●
0635	1638~1697	任相元	恬軒集	●	●
0636	1639~1685	趙持謙	迂齋集	-	●
0637	1640~1676	趙昌期	槽巖集	-	-
0638	1640~1724	任墜	水村集	-	-
0639	1641~1698	李沃	博泉集	●	●
0640	1641~1708	李箕洪	直齋集	●	●
0641	1641~1721	權尙夏	寒水齋集	●	●
0642	1642~1708	權聖矩	鳩巢集	-	-
0643	1642~1708	崔愼	鶴庵集	●	-
0644	1642~1708	洪受疇	壺隱集	-	●
0645	1642~1709	韓汝愈	遁翁集	-	-
0646	1642~1718	李世弼	龜川遺稿	-	●
0647	1643~1719	權斗寅	荷塘集	●	●
0648	1645~1703	吳道一	西坡集	●	●
0649	1645~1718	李奮	睡谷集	-	●
0650	1646~1687	韓泰東	是窩遺稿	-	●
0651	1646~1700	李世龜	養窩集	●	●
0652	1646~1701	李聘命	靜齋集	-	●
0653	1646~1707	申琬	綱菴集	●	●
0654	1646~1715	崔錫鼎	明谷集	●	●
0655	1646~1730	崔是翁	東岡遺稿	-	-
0656	1646~1732	金榦	厚齋集	●	●
0657	1647~1703	李玄錫	游齋集	●	●
0658	1648~1711	辛夢參	一庵集	-	-
0659	1648~1722	金昌集	夢窩集	●	●
0660	1648~1736	鄭滯	丈巖集	●	●
0661	1649~1696	林泳	滄溪集	-	●
0662	1649~1704	金構	觀復齋遺稿	-	●
0663	1649~1723	金宇杭	甲峰遺稿	-	-
0664	1649~1736	鄭齊斗	霞谷集	-	●
0665	1650~1692	宋疇錫	鳳谷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666	1650~1735	崔奎瑞	艮齋集	●	-
0667	1651~1708	金昌協	農巖集	●	●
0668	1651~1726	權忭	遂初堂集	-	●
0669	1652~1719	徐宗泰	晚靜堂集	●	●
0670	1652~1720	宋徵殷	約軒集	-	●
0671	1652~1731	梁居安	六化集	-	-
0672	1653~1704	南正重	碁峯集	-	-
0673	1653~1704	朴泰淳	東溪集	●	●
0674	1653~1719	金椽	儉齋集	●	●
0675	1653~1722	金昌翁	三淵集	●	●
0676	1653~1725	洪世泰	柳下集	●	●
0677	1653~1728	南延年	南忠壯公詩稿	-	-
0678	1653~1733	李衡祥	瓶窩集	●	●
0679	1654~1676	成獻徵	洞虛齋集	-	-
0680	1654~1689	朴泰輔	定齋集	●	●
0681	1654~1710	李玄祚	景淵堂集	-	●
0682	1654~1723	晦隱集	南鶴鳴	-	●
0683	1654~1724	崔錫恒	損窩遺稿	-	●
0684	1654~1726	權斗經	蒼雪齋集	-	●
0685	1655~1723	朴光一	遜齋集	-	●
0686	1655~1724	李喜朝	芝村集	●	●
0687	1656~1710	李寅燁	晦窩詩稿	-	●
0688	1656~1716	李萬白	自濡軒集	●	●
0689	1656~1739	趙正萬	寤齋集	-	●
0690	1657~1723	宋相琦	玉吾齋集	●	●
0691	1657~1730	李栽	密菴集	●	●
0692	1658~1721	金昌業	老稼齋集	●	-
0693	1658~1723	李頤命	疎齋集	●	●
0694	1658~1726	金鎭圭	竹泉集	●	●
0695	1658~1730	權綵	灘村遺稿	●	-
0696	1658~1734	金時保	茅洲集	-	●
0697	1658~1737	趙德鄰	玉川集	●	●

0698	1659~1711	成晚徵	秋潭集	-	-
0699	1660~1711	李海朝	鳴巖集	-	-
0700	1660~1718	洪胄華	晚隱遺稿	-	-
0701	1660~1720	鄭碩達	涵溪集	-	-
0702	1660~1722	趙泰采	二憂堂集	-	-
0703	1660~1727	李正臣	櫟翁遺稿	●	●
0704	1661~1719	南九明	寓庵集	●	-
0705	1661~1721	金柱臣	壽谷集	●	●
0706	1661~1733	李觀命	屏山集	●	●
0707	1662~1713	金昌緝	圃陰集	-	-
0708	1662~1723	李澈	弘道遺稿	-	-
0709	1663~1722	李健命	寒圃齋集	-	●
0710	1663~1735	徐聖考	訥軒集	-	-
0711	1663~1741	趙裕壽	后溪集	-	●
0712	1664~1697	朴泰漢	朴正字遺稿	-	●
0713	1664~1700	李賀朝	三秀軒稿	●	-
0714	1664~1722	孫命來	昌舍集	●	●
0715	1664~1732	李萬敷	息山集	●	●
0716	1665~1721	任守幹	遯窩遺稿	●	-
0717	1665~1736	申聖夏	和菴集	-	●
0718	1665~1741	李載亨	松巖集	-	-
0719	1665~1742	梁得中	德村集	-	●
0720	1666~1683	金昌立	澤齋遺唾	-	-
0721	1666~1734	申球	默庵集	-	-
0722	1668~1734	權以鎭	有懷堂集	●	●
0723	1668~1735	洪重聖	芸窩集	-	●
0724	1669~1720	崔昌大	昆侖集	●	●
0725	1669~1731	蔡彭胤	希菴集	●	-
0726	1669~1742	李濼	龍浦集	-	-
0727	1669~1745	李宜顯	陶谷集	●	●
0728	1670~1717	金春澤	北軒集	●	●
0729	1671~1751	李秉淵	槎川詩抄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730	1672~1715	洪泰猷	耐齋集	-	●
0731	1672~1722	申益愷	克齋集	-	-
0732	1672~1736	李命培	茅溪集	-	-
0733	1672~1736	李時恒	和隱集	●	●
0734	1672~1737	李眞望	陶雲遺集	-	●
0735	1672~1744	魚有鳳	杞園集	-	●
0736	1672~1749	權渠	屏谷集	●	●
0737	1672~1759	權德秀	逋軒集	-	-
0738	1673~1731	玄尙璧	冠峯遺稿	●	●
0739	1673~1744	李德壽	西堂私載	●	●
0740	1673~1745	金令行	弼雲稿	-	●
0741	1674~1739	尹東洙	敬庵遺稿	●	-
0742	1674~1753	權萬斗	知足堂集	-	-
0743	1674~1756	李光庭	訥隱集	-	●
0744	1675~1728	趙泰億	謙齋集	-	●
0745	1675~1731	任華世	是庵集	-	-
0746	1675~1735	李秉成	順菴集	-	-
0747	1675~1748	南漢紀	寄翁集	●	●
0748	1675~1762	金命錫	雨溪集	-	●
0749	1676~1762	金夏九	楸菴集	-	-
0750	1677~1724	李夏坤	頭陀草	●	●
0751	1677~1727	李柬	巍巖遺稿	●	●
0752	1677~1735	李森	白日軒遺集	-	-
0753	1677~1740	金時觀	節谷集	-	-
0754	1678~1717	李顯益	正菴集	●	-
0755	1678~1723	金民澤	竹軒集	-	-
0756	1679~1759	權相一	清臺集	●	-
0757	1680~1721	沈尙鼎	夢悟齋集	-	-
0758	1680~1741	尹淳	白下集	●	●
0759	1680~1746	柳升鉉	慵窩集	-	●
0760	1680~1746	李緯	陶菴集	●	●
0761	1680~1746	趙文命	鶴巖集	●	●

0762	1680~1748	金德五	癡軒集	-	-
0763	1680~1748	朴弼周	黎湖集	●	●
0764	1680~1761	尹鳳朝	圃巖集	●	●
0765	1681~1716	申靖夏	恕菴集	-	●
0766	1681~1722	李喜之	凝齋集	●	●
0767	1681~1746	趙尙綱	鶴塘遺稿	-	●
0768	1681~1747	金時敏	東圃集	-	●
0769	1681~1752	申維翰	靑泉集	●	●
0770	1681~1759	鄭來僑	浣巖集	-	●
0771	1681~1763	李瀆	星湖全集	●	●
0772	1682~1700	金崇謙	觀復菴詩稿	-	-
0773	1682~1723	林昌澤	崧岳集	●	-
0774	1682~1747	曹夏望	西州集	●	●
0775	1682~1751	韓元震	南塘集	●	●
0776	1682~1752	安命夏	松窩集	-	-
0777	1683~1712	崔守哲	淸泠子遺稿	-	-
0778	1683~1719	林象德	老村集	●	●
0779	1683~1741	蔡之洪	鳳巖集	●	-
0780	1683~1752	悔窩集	安重觀	●	●
0781	1683~1753	朴昌元	朴澹翁集	●	-
0782	1683~1758	金履萬	鶴臯集	●	●
0783	1683~1767	尹鳳九	屏溪集	●	●
0784	1684~1729	金始鑽	白南集	-	-
0785	1684~1747	金聖鐸	霽山集	-	-
0786	1684~1755	金鎮商	退漁堂遺稿	-	●
0787	1684~1762	韓夢麟	鳳巖集	-	-
0788	1685~1728	任適	老隱集	-	●
0789	1685~1741	尹東源	一庵遺稿	●	●
0790	1685~1753	沈鎔	樗村遺稿	●	●
0791	1685~1757	鄭重器	梅山集	-	-
0792	1686~1736	申昉	屯菴集	-	-
0793	1686~1761	趙榮祐	觀我齋稿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794	1687~1705	洪啓英	觀水齋遺稿	-	-
0795	1687~1730	任徵夏	西齋集	-	-
0796	1687~1737	黃宅厚	華谷集	-	-
0797	1687~1747	李英輔	東溪遺稿	-	-
0798	1687~1755	李箕鎮	牧谷集	●	●
0799	1687~1756	姜必愼	慕軒集	-	●
0800	1687~1760	柳宜健	花溪集	-	-
0801	1688~1749	權萬	江左集	●	-
0802	1688~1762	徐宗伋	退軒遺稿	-	●
0803	1688~1769	尹鳳五	石門集	●	●
0804	1689~1714	南克寬	夢巖集	-	-
0805	1689~1745	吳光運	藥山漫稿	●	●
0806	1689~1756	姜再恒	立齋遺稿	●	●
0807	1690~1722	李器之	一菴集	●	●
0808	1690~1742	姜樸	菊圃集	-	-
0809	1690~1748	李匡德	冠陽集	-	●
0810	1691~1742	金致屋	沙村集	●	●
0811	1691~1742	申正模	二恥齋集	●	●
0812	1691~1752	趙顯命	歸鹿集	●	●
0813	1691~1757	沈師周	寒松齋集	-	●
0814	1691~1757	趙觀彬	悔軒集	●	-
0815	1691~1762	崔成大	杜機詩集	●	●
0816	1691~1767	俞拓基	知守齋集	-	●
0817	1691~1770	李喆輔	止庵遺稿	●	●
0818	1692~1757	鄭榦	鳴臯集	-	-
0819	1692~1759	李宗城	梧川集	●	●
0820	1693~1737	趙龜命	東溪集	●	●
0821	1693~1738	金信謙	檜巢集	●	●
0822	1693~1747	權憲	慕山遺稿	-	●
0823	1693~1748	李守淵	青壁集	-	-
0824	1694~1756	閔遇洙	貞菴集	-	●
0825	1694~1756	沈潮	靜坐窩集	-	-

0826	1694~1780	金瑞一	戰兢齋集	-	-
0827	1695~1775	鄭基安	晚慕遺稿	●	●
0828	1695~1776	趙天經	易安堂集	-	-
0829	1695~未詳	林聲遠	愚園集	-	-
0830	1696~1728	南有常	太華子稿	●	●
0831	1696~1751	李德胄	苜亨集	●	-
0832	1696~1752	俞肅基	兼山集	-	-
0833	1696~1766	申暉	直菴集	-	●
0834	1697~1731	姜奎煥	賁需齋集	●	●
0835	1697~1731	鄭敏僑	寒泉遺稿	-	-
0836	1698~1761	元景夏	蒼霞集	●	●
0837	1698~1761	李天輔	晉菴集	-	●
0838	1698~1773	南有容	雷淵集	●	●
0839	1699~1733	金道洙	春洲遺稿	-	-
0840	1700~1740	吳瑗	月谷集	-	-
0841	1700~1748	徐宗華	藥軒遺集	●	●
0842	1700~1767	楊應秀	白水集	●	●
0843	1700~1773	黃後榦	夷峯集	-	-
0844	1701~1759	李식(彜+奭)	桐江遺稿	-	-
0845	1701~1778	權載運	麗澤齋遺稿	-	-
0846	1702~1761	柳正源	三山集	●	●
0847	1702~1762	趙載浩	損齋集	-	-
0848	1702~1772	金元行	漢湖集	●	●
0849	1702~1782	尹衡老	戒懼菴集	-	-
0850	1703~1773	俞彥述	松湖集	●	●
0851	1705~1768	宋明欽	櫟泉集	●	●
0852	1705~1777	李匡師	圓嶠集	-	-
0853	1705~1786	崔興遠	百弗菴集	-	-
0854	1708~1766	金樂行	九思堂集	-	-
0855	1708~1775	桂德海	鳳谷桂察訪遺集	-	●
0856	1708~1782	李用休	敷敷集	-	-
0857	1708~1786	尹光紹	素谷遺稿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858	1709~1787	黃景源	江漢集	●	●
0859	1709~1788	趙普陽	八友軒集	●	-
0860	1710~1752	宋文欽	閒靜堂集	-	-
0861	1710~1758	宋能相	雲坪集	●	●
0862	1710~1760	李麟祥	凌壺集	●	●
0863	1710~1772	李象辰	下枝遺集	-	-
0864	1710~1783	宋德相	果菴集	●	●
0865	1710~未詳	金尙彩	蒼巖集	-	-
0866	1711~1759	徐命瑞	晚翁集	●	-
0867	1711~1781	李象靖	大山集	-	-
0868	1711~1788	任聖周	鹿門集	-	●
0869	1711~1794	李重延	陋室集	-	-
0870	1712~1774	金履坤	鳳麓集	-	-
0871	1712~1775	申光洙	石北集	●	●
0872	1712~1779	崔天翼	農叟集	-	-
0873	1712~1781	申景濬	旅菴遺稿	●	-
0874	1712~1783	任希聖	在澗集	-	●
0875	1712~1791	安鼎福	順菴集	●	●
0876	1713~1751	金時鐸	梨湖遺稿	-	-
0877	1713~1770	權攄	震溟集	●	●
0878	1713~1784	金謹行	庸齋集	●	●
0879	1713~1791	姜世晃	豹菴稿	-	●
0880	1714~1759	李胤永	丹陵遺稿	-	-
0881	1714~1781	李和甫	有心齋集	-	-
0882	1714~1789	李光靖	小山集	●	-
0883	1714~1799	林光澤	雙柏堂遺稿	●	●
0884	1715~1784	李最中	韋庵集	-	●
0885	1716~1774	金砥行	密菴集	-	●
0886	1716~1787	徐命膺	保晚齋集	-	●
0887	1716~1797	奇彥鼎	懶窩集	-	●
0888	1717~1786	姜世晉	警弦齋集	-	-
0889	1717~1799	李敏輔	豐墅集	-	●

0890	1718~1764	李明煥	海嶽集	-	●
0891	1718~1774	安錫儼	雪橋集	●	●
0892	1719~1791	李獻慶	艮翁集	●	●
0893	1719~1792	李福源	雙溪遺稿	-	-
0894	1719~1793	鄭赫臣	性堂集	-	●
0895	1720~1783	李匡呂	李參奉集	-	-
0896	1720~1799	蔡濟恭	樊巖集	●	●
0897	1721~1772	金光翼	伴圃遺稿	-	-
0898	1721~1780	金鍾厚	本庵集	-	●
0899	1721~1791	柳道源	蘆厓集	●	-
0900	1721~1793	任允摯堂	允摯堂遺稿	-	-
0901	1722~1779	高裕	秋潭集	-	●
0902	1722~1787	金鍾正	雲溪漫稿	●	●
0903	1722~1788	金相定	石堂遺稿	●	●
0904	1722~1791	金履安	三山齋集	-	●
0905	1723~1772	權炳	約齋集	-	-
0906	1723~1790	金燧	竹下集	-	●
0907	1723~1801	丁範祖	海左集	●	●
0908	1724~1754	李重慶	雲齋遺稿	-	●
0909	1724~1796	柳長源	東巖集	-	●
0910	1724~1799	申國賓	太乙菴集	-	-
0911	1724~1802	洪良浩	耳溪集	●	●
총계(407)				179	239

위 407개 문집 가운데 몽골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179, 건주여진 관계 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239로 나타났다. 이것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몽골은 44%, 건주여진은 59%에 이른다. 이후 이 관련기록들을 위의 분석도표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시대별로 대몽골제국, 대원올로스, 원말명초, 명대몽골사(북원), 청대몽골사로 나누어 분석하면 이 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몽골과 건주여진에 관한 관심의 내용과 인식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3.3.3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까지의 분석일람표

[표 10]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까지의 분석일람표

번호	생존연대	저자	문집명	기록여부	
				몽골	건주여진
0912	1725~1775	趙榮順	退軒集	-	●
0913	1725~1786	沈定鎭	霽軒集	-	●
0914	1725~1789	鄭忠弼	魯宇集	-	●
0915	1726~1781	徐昌載	梧山集	-	-
0916	1727~1787	趙璈	荷棲集	-	-
0917	1727~1792	吳載純	醇庵集	-	●
0918	1727~1796	任靖周	雲湖集	●	-
0919	1727~1798	魏伯珪	存齋集	●	●
0920	1727~1810	陸萬中	餘窩集	-	-
0921	1727~未詳	崔潤昌	東溪遺稿	-	-
0922	1728~1799	金鍾秀	夢梧集	-	-
0923	1728~1807	宋煥箕	性潭集	●	●
0924	1728~1812	金道行	雨皐集	-	-
0925	1729~1791	金奎五	最窩集	●	●
0926	1729~1791	黃胤錫	頤齋遺藁	●	●
0927	1729~1813	李森煥	少眉山房藏	●	●
0928	1730~1796	南基萬	默山集	-	-
0929	1730~1796	俞彥鎬	燕石	-	●
0930	1730~1802	金若鍊	斗庵集	-	●
0931	1731~1783	洪大容	湛軒書	●	●
0932	1731~1797	李種徽	修山集	●	●
0933	1731~1798	南溟學	五龍齋遺稿	●	●
0934	1731~1809	趙有善	蘿山集	-	-
0935	1731~1812	申體仁	晦屏集	●	●
0936	1732~1809	成大中	青城集	●	●
0937	1732~1811	俞漢鵠	自著	●	●
0938	1733~1805	李義肅	頤齋集	●	-
0939	1734~1765	蘇始萬	菊軒集	-	-
0940	1734~1799	朴胤源	近齋集	●	-

0941	1735~1762	莊憲世子	凌虛關漫稿	-	-
0942	1735~1801	朴永錫	晚翠亭遺稿	●	-
0943	1735~1809	申大羽	宛丘遺集	-	-
0944	1736~1811	金相進	濯溪集	-	-
0945	1736~1820	李萬運	默軒集	-	●
0946	1737~1805	朴趾源	燕巖集	●	●
0947	1738~1780	李令翊	信齋集	-	-
0948	1738~1799	范慶文	儉巖山人詩集	-	-
0949	1738~1805	李鎭宅	德峯集	-	-
0950	1738~1811	李東汲	晚覺齋集	-	-
0951	1738~1816	鄭宗魯	立齋集	●	●
0952	1739~1799	金正默	過齋遺稿	●	●
0953	1739~1807	朴準源	錦石集	●	-
0954	1739~1808	趙鎭寬	柯汀遺稿	-	●
0955	1739~1810	李堉	俛庵集	-	-
0956	1739~1812	崔興璧	蠹窩集	-	●
0957	1739~1821	韓敬儀	菑墅集	-	-
0958	1740~1766	李彥瑱	松穆館燼餘稿	-	-
0959	1740~1777	洪樂仁	安窩遺稿	●	●
0960	1740~1786	金龜柱	可庵遺稿	●	●
0961	1741~1793	李德懋	靑莊館全書	●	●
0962	1741~1826	尹愔	無名子集	●	●
0963	1742~1801	李家煥	錦帶詩文鈔	-	●
0964	1743~1791	金宗燮	濟庵集	-	-
0965	1743~1807	李楨國	尤園集	-	-
0966	1744~1807	洪元燮	太湖集	●	●
0967	1744~1809	南漢朝	損齋集	-	-
0968	1744~1816	李忠翊	椒園遺藁	-	-
0969	1744~1823	柳範休	壺谷集	●	-
0970	1744~1835	鄭來成	思軒集	-	-
0971	1745~1802	李元培	龜巖集	●	●
0972	1745~1820	李采	華泉集	●	-
0973	1746~1827	金載瓚	海石遺稿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0974	1748~1800	黃德壹	拱白堂集	-	-
0975	1748~1807	柳得恭	洽齋集	●	●
0976	1748~1812	南景羲	癡庵集	-	-
0977	1749~1824	徐澄修	明臯全集	●	●
0978	1750~1805	朴齊家	貞黻閣集	●	●
0979	1750~1827	黃德吉	下廬集	●	●
0980	1750~1828	夏時贊	悅菴集	-	●
0981	1750~1836	李明五	泊翁詩鈔	-	●
0982	1751~1824	尹大淳	活水翁遺稿	-	●
0983	1752~1800	正祖	弘齋全書	●	●
0984	1752~1820	李晚秀	屐園遺稿	●	●
0985	1753~1809	車佐一	四名子詩集	-	-
0986	1754~未詳	任天常	窮悟集	-	●
0987	1754~1825	李書九	惕齋集	●	●
0988	1754~1832	李頤淳	後溪集	-	-
0989	1755~1812	洪仁謨	足睡堂集	-	●
0990	1755~1822	柳棡	近窩集	-	-
0991	1755~1831	李野淳	廣瀨集	-	-
0992	1756~1822	金相日	一广遺稿	-	-
0993	1757~1821	金羲淳	山木軒集	●	●
0994	1758~未詳	徐慶昌	學圃軒集	-	-
0995	1758~1833	李仁行	新野集	●	●
0996	1759~1789	裴相說	槐潭遺稿	-	-
0997	1759~1816	徐榮輔	竹石館遺集	●	●
0998	1759~1828	張混	而已广集	-	●
0999	1759~1838	宋釋圭	剛齋集	-	●
1000	1760~1821	南漢皜	誠齋集	-	-
1001	1760~1826	尹弘圭	陶溪遺稿	-	-
1002	1760~1828	申綽	石泉遺稿	●	-
1003	1760~1839	成海應	研經齋全集	●	●
1004	1760~1840	南公轍	金陵集	●	●
1005	1762~1787	李崑秀	壽齋遺稿	-	-
1006	1762~1801	尹行恁	碩齋稿	●	●

1007	1762~1813	崔璧	質菴集	-	-
1008	1762~1822	徐有本	左蘇山人集	-	●
1009	1762~1836	丁若鏞	與猶堂全書	●	●
1010	1762~1849	趙秀三	秋齋集	●	-
1011	1763~1833	吳熙常	老洲集	●	●
1012	1764~1842	朴時源	逸圃集	-	-
1013	1764~1845	徐有渠	楓石全集	-	●
1014	1764~1848	姜必孝	海隱遺稿	●	●
1015	1765~1817	朴宗慶	敦巖集	-	-
1016	1765~1832	金祖淳	楓臯集	●	●
1017	1765~1842	白慶楷	守窩集	●	●
1018	1766~1815	朴宗興	冷泉遺稿	-	●
1019	1766~1821	金鑪	灌庭遺藁	-	●
1020	1766~1838	沈象奎	斗室存稿	●	-
1021	1767~未詳	林得明	松月漫錄	●	●
1022	1767~1830	李勉伯	岱淵遺藁	-	●
1023	1768~1833	姜浚欽	三溟詩集	●	-
1024	1768~1834	柳健休	大埜集	-	-
1025	1768~1834	李升培	修溪集	-	●
1026	1769~1801	姜彝天	重菴稿	-	●
1027	1769~1845	申緯	警修堂全藁	●	-
1028	1770~1835	李學達	洛下生集	●	●
1029	1771~1849	朴允默	存齋集	●	●
1030	1772~1832	姜至德	靜一堂遺稿	-	-
1031	1772~1837	李禮煥	蘭菊齋集	-	-
1032	1772~1839	李載毅	文山集	-	-
1033	1774~1840	李秉遠	所菴集	-	-
1034	1774~1842	金憲基	初庵全集	-	-
1035	1774~1842	洪奭周	淵泉集	●	●
1036	1774~1848	鄭象履	制庵集	-	-
1037	1774~1851	洪敬謨	冠巖全書	●	●
1038	1776~1840	金邁淳	臺山集	●	●
1039	1776~1852	洪直弼	梅山集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1040	1777~1861	柳致明	定齋集	●	●
1041	1778~1853	李廷柱	夢觀詩稿	-	-
1042	1779~1865	鄭奎漢	華山集	-	-
1043	1782~1850	趙寅永	雲石遺稿	●	●
1044	1783~1873	鄭元容	經山集	●	●
1045	1784~1852	成近默	果齋集	●	●
1046	1786~1856	金正喜	阮堂全集	●	-
1047	1789~1866	李是遠	沙磯集	-	●
1048	1790~1866	卞鍾運	歎齋集	-	-
1049	1791~1849	趙秉鉉	成齋集	-	-
1050	1791~1854	朴永元	梧墅集	●	●
1051	1791~1867	宋來熙	錦谷集	●	●
1052	1792~1863	李晚用	東樊集	-	-
1053	1792~1868	李恒老	華西集	●	●
1054	1793~1874	尹定鉉	榕溪遺稿	●	●
1055	1796~1870	趙斗淳	心庵遺稿	●	●
1056	1797~1865	金進洙	蓮坡詩鈔	●	-
1057	1797~1886	許傳	性齋集	●	●
1058	1798~1868	洪翰周	海翁藁	-	-
1059	1798~1879	奇正鎭	蘆沙集	●	●
1060	1799~1877	申佐模	澹人集	●	●
1061	1800~1870	趙秉憲	肅齋集	●	●
1062	1801~1859	俞莘煥	鳳棲集	●	●
1063	1803~1865	李尙迪	恩誦堂集	●	-
1064	1807~1876	朴珪壽	璣齋集	●	-
1065	1808~1858	宋達洙	守宗齋集	●	●
1066	1808~1858	鄭芝潤	夏園詩鈔	-	-
1067	1811~1876	任憲晦	鼓山集	●	●
1068	1813~1872	柳疇睦	溪堂集	●	●
1069	1814~1888	李裕元	嘉梧藁略	●	●
1070	1815~1900	張福樞	四末軒集	●	●
1071	1817~1863	南秉哲	圭齋遺藁	●	●
1072	1818~1886	李震相	寒洲集	●	●

1073	1819~1891	金平默	重菴集	●	●
1074	1820~1884	姜璋	古歡堂收艸	●	●
1075	1827~1899	金興洛	西山集	●	-
1076	1829~1899	金永壽	荷亭集	-	-
1077	1832~1893	柳重教	省齋集	●	●
1078	1832~1894	韓章錫	眉山集	●	●
1079	1833~1904	許愈	后山集	●	●
1080	1833~1906	崔益鉉	勉菴集	●	●
1081	1835~1922	金允植	雲養集	●	●
1082	1836~1905	宋秉璿	淵齋集	●	●
1083	1836~1907	許薰	舫山集	●	●
1084	1837~1902	李種杞	晚求集	●	●
1085	1841~1922	田愚	艮齋集	●	●
1086	1842~1915	柳麟錫	毅菴集	●	●
1087	1846~1916	奇宇萬	松沙集	●	●
1088	1846~1919	郭鍾錫	俛宇集	●	●
1089	1848~1909	李沂	李海鶴遺書	●	●
1090	1850~1927	金澤榮	韶濩堂集	●	●
1091	1851~1909	申箕善	陽園遺集	●	●
1092	1852~1898	李建昌	明美堂集	●	●
1093	1855~1907	李南珪	修堂遺集	-	●
1094	1855~1910	黃玆	梅泉集	●	●
1095	1873~1933	曹兢燮	巖棲集	●	●
총계(184)				103	110

위 184개 문집 가운데 몽골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103, 건주여진 관계 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110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몽골은 56%, 건주여진은 60%에 이른다. 이후 이 관련기록들을 위의 분석도표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시대별로 대몽골제국, 대원올로스, 원말명초, 명대몽골사(북원), 청대몽골사로 나누어 분석하면 이 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몽골과 건주여진에 관한 관심의 내용과 인식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1101개 문집에서 몽골은 470개, 건주여진은 560개에 수

록되어 있으며 점유율은 몽골이 42.7%, 건주여진이 50.9%로 나타난다. 또 시대별로 살펴볼 경우 몽골의 경우는 37% → 44% → 56%, 건주여진의 경우는 39% → 59% → 6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몽골과 건주여진이 동시에 언급된 경우는 첫째시기가 108, 둘째시기가 144, 셋째시기가 83 등 총 335이며, 총 점유율은 30.4%이고 시대별 점유율은 21.4% → 35.3% → 45.1%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조선선비의 대외인식을 반영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시대가 내려갈수록 몽골과 건주여진을 동시에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주변세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대를 나타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건주여진의 경우 문집에서는 출현비율이 시대가 늦어질수록 높아지는 데 반해, 연행록의 경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우리민족이나 주변민족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높아지는데, 문집에서 건주여진의 출현비율이 시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연행록은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으며, 문집은 역사의 기원에 대한 관심고조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 및 건주여진에 인식의 변화 내지 추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문헌에 수록된 관련기사의 정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3.4 출생연대 미상 문집 6개 및 기타 관련저작(일록, 총서 등) 26개의 분석일람표

[표 11] 출생연대 미상 문집 6개의 분석일람표

번호	생존연대	저자	문집명	기록여부	
				몽골	건주여진
1096	未詳	孫肇瑞	格齋集	-	-
1097	未詳	元昊	觀瀾遺稿	-	-
1098	未詳~1499	李宗準	慵齋遺稿	-	-
1099	未詳~1504	李龜	再思堂逸集	-	-

1100	未詳	金終弼	楓巖集	-	-
1101	未詳	成汝學	鶴泉集	-	●
총계(6)					1

위 출생연대 불명의 6개 문집 가운데 몽골이나 건주여진의 기록이 실린 문집은 건주여진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학천집(鶴泉集) 하나로 나타났다. 이 문집의 저자인 성여학(成汝學)은 성혼(成渾, 1535~1598)의 제자로 문집 내에 정묘호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시대별로 손조서(孫肇瑞)은 세종 때의 인물, 원호(元昊)는 단종 때의 인물로 생육신의 하나, 김종필(金終弼)은 성종 때 태어나 중종 때 죽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여학을 제외한 5명은 시대별로 조선시대 초기(1392~1600)의 앞부분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조선시대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에 속하며 몽골이나 건주여진에 대한 기록은 귀부나 정벌과 관계되어 나타난다. 이들 5명의 문집에 몽골이나 건주여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이들이 대외정책을 관장하는 고위직에 오른 인물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12] 기타 관련저작(일록, 총서 등) 26개의 분석일람표

번호	생존연대	저자	문집명	기록여부	
				몽골	건주여진
1102	1439~1504	成倪	慵齋叢話	●	-
1103	1469?~1506?	曹伸	說聞瑣錄	-	-
1104	1543~1611	尹國馨	甲辰漫錄	-	-
1105	1549~1607	李廷馨	東閣雜記	●	●
1106	1551~1588	許筠	海東野言	●	●
1107	1563~1628	李晬光	芝峰類說	●	●
1108	1570~1641	趙慶男	歷代要覽	●	●
1109	1577~1607◎	申晔	再造藩邦志	●	●
1110	1581~1643	金時讓	紫海筆談	●	-
1111	1582~1639◎	趙慶男	亂中雜錄	●	●
1112	1583~1584◎	禹性傳	癸甲日錄	-	-
1113	1589~1671	權鼈	海東雜錄	●	●

3.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의 기사분석 방식과 분석일람표

1114	1592~1595◎	都世純	龍蛇亂中日記	●	-
1115	1592~1609◎	鄭慶雲	孤臺日錄	●	●
1116	1592~1637◎	未詳	逸史記聞	●	●
1117	1609~1616◎	未詳	凝川日錄	●	●
1118	1658◎	申瀏	北征日記	●	●
1119	1681~1763	李灑	星湖僊說	●	●
1120	1712~1791	安鼎福	東史綱目	●	●
1121	1732~1809	成大中	青城雜記	●	●
1122	1736~1806	李肯翊	燃藜室記述	●	●
1123	1759~1816	徐榮輔	萬機要覽	●	●
1124	1765~1814	韓致齋	海東釋史	●	●
1125	1788~未詳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	●
1126	1808~1866	趙在三	松南雜識	●	●
1127	1814~1888	李裕元	林下筆記	●	●
총계(26)				23/88	20/77

[※ ◎는 저자의 생존 연대가 아닌 사건이 기록된 연대를 가리킨다.]

위 26개의 기타 관련저작(일록, 총서 등)은 시대별로 조선초기부터 후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임의로 추출된 이 일록이나 총서 26개에서 몽골은 23개, 건주여진은 20개에 수록되어 있으며 점유율은 몽골이 88%, 건주여진이 77%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연행록이나 문집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녔거나 특정시대의 전쟁기록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여행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시대의 전쟁에 대한 기록에서 몽골과 건주여진이 동시에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그렇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의 신충일(申忠一, 1554~1622)의 건주문견록(建州聞見錄, 1595)이나 정묘호란 직전 이민환(李民奩, 1573~1649)의 책중일록(柵中日錄, 1618~1620)과 건주문견록(建州聞見錄)에도 군사동맹세력으로서 몽골과 건주여진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연행록을 제외하고 신유(申瀏, 1619~1680)의 북정일기(北征日記, 1658)나 영고탑북정지(寧古塔北征誌, 1871) 등 만주나 흑룡강 등 특정지역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모두 강력

한 군사동맹세력으로서의 몽골과 건주여진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몽골과 건주여진의 기록이 조선시대의 여행기나 문집, 총서 등에 일관되게 등장하고 주목받는 것은 한국의 지리여건 상 그들을 제외하고 중원 일변도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조선의 지배층들이 주자학적 질서를 통치와 인식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대외정책 방면에서는 문화와 군사를 분리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것이 실제적인 면에서는 주자학적 명분에 밀려 실행이 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중원과 변방세력에 대한 균형적 입장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대외정책에서 명분보다는 실리추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 기사의 상세분석 사례

4.1. 이갑(李珥, 1737~1795)의 여행기사(燕行記事)에 수록된 몽골 및 건주여진 기록의 분석

4.1.1 이갑(李珥)의 약력과 여행기사(燕行記事)

18세기는 조선선비들의 대외 인식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시기이며, 이갑의 여행기사(燕行記事)는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여행기사는 정조 1년인 1777년 7월 26일 그가 사행에 부사로 뽑힌 날부터 이듬해 3월 29일 복명할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일기체로 엮은 기록이다. 내용은 크게 일기, 문견잡기(聞見雜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속에 몽골족의 유래, 태극달자(太極獐子)의 유래, 합밀국(喀密國), 서달(西撻) 등 몽골 관련기록이 약 90여건이 등장하고 있다. 건주여진에 관한 기록은 1636년 대청제국이 성립된 후 이미 1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다.

이갑의 사절단은 1776년 정조의 즉위를 둘러싸고 시파(時派)와 벽파(僻派)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과 그로 인해 야기된 1777년 벽파의 역모사건을 해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벽파 역모사건의 전말에 대한 토역주문(討逆奏文)의 전달과 청나라의 승인이 이 사절단의 주요사명이었다. 사절단의 명칭은 진하사은진주겸동지사(進賀謝恩陳奏兼冬至使)이며 정사는 이광(李堯), 부사는 이갑(李珥), 서장관은 이재학(李在學)으로 당시 이갑은 이조판서였다. 그러나 이 사절단은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그 사명은 1778년 3월 체제공(蔡濟恭)을 정사로 하는 사절단(謝恩兼陳奏使)에 의해 마무리 되었다.

이갑의 약력은 연안이씨족보(延安李氏族譜) 및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대략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3] 이갑의 약력

연대(영조)	사적	연대(정조)	사적
1737년(영조13)	출생	1777년(정조1) 1월	연풍군(延豐君)
1769년(영조45)	등과(登科)	1788년(정조12) 12월	이조판서

동년 10월	정언(正言)	1789년(정조13) 6월	예조판서
1770년(영조46) 12월	교리	동년 11월	공조판서
1771(영조47) 2월	수찬	1790년(정조14) 1월	병조판서
1774(영조50) 5월	대사간	1791년(정조15) 6월	형조판서
1775(영조51) 2월	도승지	1792년(정조16) 윤4월	한성부판윤
동년 6월	사헌부대사헌	동년 11월	동지경연사 (同知經筵事)
동년 윤10월	황해 감사	1795년(정조19)6월 4일	사망

이갑의 여행기는 조선시대의 수많은 연행록 가운데에서도 한양에서 북경 조양문에 이르는 이정(里程)을 참소(站所)까지를 곁들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즉 이정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대표적인 여행기이다. 그는 이 여행길에서 직접 체험한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는데 그 항목은 풍토, 제도, 지리, 민속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점에서 이전에 북경을 여행했던 김창업(金昌業)의 연행일기(燕行日記, 1712)나 홍대용(洪大容)의 담헌연기(湛軒燕記=을병연행록, 1765)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필자가 이갑의 여행기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사실 서호수(徐浩修)의 연행기(燕行紀)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의 여행기 중 몽골관계기록을 대표하는 것이 서호수의 연행기이다. 정조 시대에 몽골 사정 및 몽골어에 매우 정통한 여행기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시대의 통치계층이나 지식인 사이에 몽골에 관한 무언가의 구체적인 정보가 내부적으로 회람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북경여행기로는 이 연행기사(1777)를 필두로 채제공(蔡濟恭)의 함인록(含忍錄, 1778), 이덕무(李德懋)의 입연기(入燕記, 1778), 박제가(朴齊家)의 연행시(燕行詩, 1778 · 1790 · 1801),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1780), 홍양호(洪良浩)의 연운기행(燕雲紀行, 1782), 서호수의 연행기(燕行紀, 1790), 유득공(柳得恭)의 난양록(灤陽錄=熱河紀行詩, 1790) 등이 있으며 대부분 몽골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미 박지원과 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난 몽골관계 기록에 대해서는 박원길의 『조선과 몽골 - 최덕중, 박지원, 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난 몽골인식-』(서울, 소나무, 2010)에서 상세하게

논한 바 있지만 당시 각 여행기들에 기록된 몽골관련 정보에 대한 상호연관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주자학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이 지녔던 몽골인식은 그대로 각자의 여행기에 나름대로의 형태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또 각자의 연고에 따라 그 인식이나 자료를 상호교환하게 마련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갑의 여행기에 나타나는 몽골관계 기사를 정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 그의 몽골인식은 물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조선의 몽골관련 기록의 출처를 밝히고자 하는 것에 있다.

4.1.2 여행기사의 몽골 및 건주여진 기록 분석

여행기사의 몽골 및 건주여진 기록을 앞에서 분석의 표준으로 제시한 항목에 따라 먼저 여행기사에 나타난 관계기록의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기타 관련저작(일록, 총서 등) 26개의 분석일람표

번호	분류	내용	비고
1. 역사사적			
대원제국(Yeke Yüan Ulus) 시대의 역사사적			
1	지방의 연혁 소개	【구련성(九連城)】 【영평부(永平府)】	2건
2	종교사적	【도교의 숭배】 【동악묘(東岳廟)】 【북진묘(北鎮廟)】 【화덕진군(火德眞君)】	4건
3	유교관련 사적	【백이숙제각(伯夷叔齊閣)】 【한유(韓愈)의 사당】	2건
4	인물	【역대제왕묘의 몽골장군: 목화려(木華黎)】	1건
5	대도의 원대유적	【국자감(國子監)】 【대도(大都)의 궁궐】 【순경원(巡警院)】	3건
6	습속	【북방민족의 국호】	5건

		【원나라 사람들의 글자 금기】 【원대의 변발호복】 【장례습속: 상장(喪葬)제도】 【장례습속: 화장제도】	
합계	17건		
북원 시대의 역사사적			
1	전적지	【명대의 몽골방어선과 재력소비】	1건
합계	1건		
대청제국 시대의 역사사적			
1	오이라드(준가르)	【오이라드(西撻)의 토벌과 청조귀순】 【제14왕 윤정(允禎=允灑)의 티베트 출정】 【연경요(年羹堯)의 청해출정】	3건
2	함밀국(Khamil)	【하미(Hami)】	1건
합계	4건		
2. 몽골의 지리적 위치 및 지명, 강명			
1	몽골의 지리적 위치	【변문(邊門)밖은 몽골의 땅】 【산해관(山海關)의 북쪽은 몽골의 땅】 【산해관의 기후는 안팎으로 다르다】 【연경(燕京)은 북쪽의 몽골과 너무 가깝다】 【의무려산(醫巫閭山) 북쪽은 몽골의 땅】	5건
2	기타	【몽골의 기후 : 거짓 태양(sundog)】	1건
합계	6건		
3. 몽골부족			
1	유래	【몽골부족의 유래와 강역】	1건
2	부족의 수	【몽골부족 46부】 【몽골부족 48부】	2건
3	부족의 현황	【태극달자(太極撻子)의 역사와 위상】 【몽골부족의 복속상태】	2건
합계	5건		
4. 몽골습속			
1	유목생활	【몽골인의 유목생활과 여행습속】 【몽골 겐(Ger)】 【몽골 겐(Ger)을 조선사신도 사용하다】	3건
2	일반습속	【몽골인의 음식】 【몽골수레】 【요람】 【수염】	8건

4.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몽골·건주여진 기사의 상세분석 사례

		【만주 및 몽골의 우입습속】 【몽골인의 모자】 【몽골관인의 의복과 모자】 【은들의 사용과 유래】	
3	북경몽골관	【북경의 몽골관 정경】	1건
합계	12건		
5.몽골인			
1	몽골인의 외형	【몽골인의 형상】	1건
2	몽골인의 언어	【호동(衛術)】 【조선사신단의 몽골어 역관】 【몽골 및 만주인의 자국 언어 준수와 그들의 음운에 대한 조선인의 평가】 【몽골어의 중요성과 사역원의 몽학현황】	4건
3	몽골인의 성격	【몽골인의 품성】	1건
4	몽골학자 및 관원	【한림학사 박명(博明)】	1건
5	몽골인의 교역	【몽골인의 상거래】 【몽골무역: 생산품과 교역】	2건
합계	9건		
6.몽골동물			
1	낙타	【몽골 낙타】 【심양장군 홍상(弘晌)의 행렬과 낙타】	2건
2	말	【몽골말】	1건
3	기타	【몽골양(염소)】	1건
합계	4건		
7.청조와 몽골의 정치적 관계			
1	청조의 통치구조	【건륭제의 청조 중원지배 논리와 만주족의 근원】 【청대의 이원통치제도】 【청대의 원대 통치제도 활용】 【만주인과 몽골인의 관직은 동등하다】 【종인부(宗人府)】 【연합지배체제 내의 만주인과 몽골인의 자체 구별】	6건
2	몽골사절 및 지위	【몽골 영주의 지위】 【청조의 사신단 접대부서】 【새해의 의례와 몽골·조선사절단】 【몽골사절의 지위: 조선보다 높다】	4건
3	만몽연혼사례	【연혼정책의 대상】	3건

		【몽골로 시집가는 만주공주】 【제14왕 윤정의 몽골부인 목순공주(穆順公主)】	
4	기타	【만주인의 글자 금기】 【명나라 멸망의 동요】	2건
합계	15건		
8. 몽골팔기(八旗)와 맹기제도(盟旗制度)			
1	맹기제도	【청대의 몽골방어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몽골인과 만주인은 팔기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팔기의 색깔과 황제 친위군】 【팔기의 지휘통솔체계】 【팔기의 급여】 【경성팔기】 【한군팔기】 【변방의 팔기 몽골병】 【팔기의 사냥】 【만주팔기로 편입된 몽골인과 조선인】	10건
2	몽골관료와 이변원	【이변원의 설치와 몽골통치】 【이변원의 조직과 직무】 【관작제도】 【몽골어 상주문의 만주어 번역】	4건
3	기타	【봉인(封印)제도】 【청대의 사역관(四譯館)】	2건
합계	16건		
9. 몽골인과 티베트불교(라마교)			
1	라마교사원 및 승려	【실승사의 정경】 【실승사의 몽골승려】 【청조황제 원당의 주관자는 몽골 라마승】	3건
2	청조와 라마교	【청대의 불교정책】	1건
합계	4건		
10. 몽골관련 기타 기록			
1	러시아	【러시아는 몽골의 별종: 대비달자 명칭의 유래】 【옥하관의 러시아인: 러시아와 조선의 숙소분쟁】	2건
합계	2건		
총계	95건		

위의 표에 제시된 항목을 따라 이갑의 연행기사에 나타난 관계 기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사적

가. 대원제국 시대의 역사사적

연행기사에는 대몽골제국 관련부분은 타나나지 않고 대원제국의 시대의 기록부터 등장하고 있다. 내용은 주로 지방의 연혁이나 종교사적, 유교관련 사적, 대도의 원대 유적이나 습속 등 모두 17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지방의 연혁에 대한 소개로 대원제국 때의 관련부분이 2건 등장한다.

【구련성(九連城)】

요나라와 금나라 때 9성을 쌓기 시작해 고려와 접경을 이루고 출전이나 방어하는 곳으로 삼았다. 원나라 때에도 역시 이곳에서 방수(防守)하였다. 명나라는 그 성에서 물러나 탕참(湯站)에서 수비를 하였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지고 터만이 남았다.

[聞見雜記(上): (九連城)遼金始築九城,與高麗接境,以爲出戰入守之所,元時亦爲防守於此,皇明退其城於湯站以守之,今皆廢,只有遺址.]

【영평부(永平府)】

옛날에는 궁벽하고 황량한 변방이었다. 그러나 금나라와 원나라가 잇달아 연경(燕京)에 도읍하고 또 명나라도 수도로 정하자 이 땅은 도읍의 주변지역이 되었다. 노룡새(盧龍塞)란 노룡산(盧龍山)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한다.

[1777년 12월 21일: 舊爲窮荒絕塞之地,而金元連都燕京,皇明仍又定鼎,此土便作畿甸,盧龍塞者,以有盧龍山,故名云.]

다음은 종교 사적에 대한 부분으로 모두 4건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조선시대의 북경 여행기에 상세한 언급이 있다.

【도교의 승배】

도사(道士)는 높은 관과 넓은 소매의 [의관을 착용하고] 중들과 섞여 살

아, 원래부터 모든 면에서 도교와 불교의 구별이 없다. 석가를 존중하고 받드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관제(關帝)는 오직 중국에서만 사당을 세우고 황제로 책봉한 것인데 오늘날 집집마다 정성을 다해 숭배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왜 금나라나 원나라 이래 더욱 성행했을까. 아마도 명태조가 계명산(鷄鳴山)에 사당을 세운 이후 천하가 그것을 본받아 풍속이 된 것일 것이다.

[聞見雜記(上): 道士峩冠闊袖,與髡徒雜處,凡百出入,元無道釋之別,釋氏之尊奉,其來蓋久,而關帝則雖是中國之建祠封帝者,至於比屋崇奉之若是盡誠,豈亦自金元以來尤盛耶,抑明祖勅祠鷄鳴以後,天下效之,因以成風耶.]

【동악묘(東岳廟)】

이 사당은 [원나라] 연우(延祐: 인종) 때에 처음 세웠고 [명나라] 정통(正統: 영종) 때에 그 규모를 더욱 넓혔으며 [청나라] 옹정(雍正: 세종) 때에 또 수만금을 들여 개축하였다.

[1777년 12월 27일: 此廟元延祐中始建,正統年間,益拓其制,雍正時,又捐數萬金,別爲修葺.]

【북진묘(北鎮廟)】

북진묘(北鎮廟)가 있다. 순(舜) 임금은 12산을 봉하고 의무려산을 유주(幽州)의 진산(鎮山)을 삼았다. 역대로 이에 의거하여 여기에 사당을 세우고 예를 다하여 악독(岳瀆)과 같이 숭배한다. 금나라, 원나라 이후 계속 연경에 도읍하고 청나라 사람이 이르러서는 동북에서 발원하였기 때문에 더욱 받들어 모신다. 당나라 개원(開元) 때 광녕공(廣寧公)을 봉하였고, 요나라와 금나라는 왕 칭호를 덧붙였다. 원나라 대덕(大德) 때 정덕광녕왕(貞德廣寧王)으로 봉했다. 명나라 홍무(洪武) 때 봉호(封號)를 고쳐 “북진의 무려산(北鎮醫巫闾山)의 신(神)”이라고만 일컫고 세시에 제사를 올릴 때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주관했다. 지금도 예전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1778년 2월 26일: 有北鎮廟,蓋舜封十二山,以醫闾爲幽州之山鎮,歷代因之,

建廟於此,禮等岳瀆,而金·元以後,連都燕京,至於清人,則肇基東北,故尤爲崇奉,唐開元封廣寧公,遼金加王號,元大德封貞德廣寧王,明洪武改封號,只稱北鎮醫巫閭山之神,歲時祀享,朝廷遣官祭告,卽今尙因舊制.]

【화덕진군(火德眞君)】

화덕진군 사당은 경성(京城)의 북쪽에 있다. 당나라 정관(貞觀) 무렵부터 [사당] 시작되었고 원나라, 명나라에 이르러 다시 개축되었다. ... 옛 사적을 살펴보면 원나라, 명나라 이래로 신령하고 기이한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제사지내는 법도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聞見雜記(上): 火德眞君廟在京城北,始唐貞觀至元明更修築 ... 考其舊蹟,自元明以來,多靈異云,而祀典則未能詳知也.]

화덕진군묘를 언급한 조선시대의 여행기 중 이갑만이 그 시작을 당나라 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나라의 주역이 북방유목민족인 타브가치(Tabgachi) 출신들이고 당시 마니교가 활발히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음은 유적관련 사적으로 2건이 소개되어 있다.

【백이숙제각(伯夷叔齊閣)】

제2문 위에 1칸 누각이 있는데 편액을 백이숙제각(伯夷叔齊閣)이라 하였고, 안쪽 동서 벽에는 “송나라 진종(眞宗) 상부(祥符) 4년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휘종(徽宗)이 백이(伯夷)를 청혜후(淸惠侯)로 봉했으며, 숙제(叔齊)를 인혜후(仁惠侯)로 봉했다. 원나라 세조는 백이를 소의청혜공(昭義淸惠公), 숙제를 승양인혜공(崇讓仁惠公)으로 추봉(追封)했다.”라고 새겼다.

[1778년 2월 17일: 第二門上,有一間樓閣,扁曰伯夷叔齊,閣內東西壁,刻曰宋眞宗祥符四年,遣官致祭,徽宗封伯夷爲淸惠侯,叔齊爲仁惠侯,元世祖追封伯夷爲昭義淸惠公,叔齊爲崇讓仁惠公.]

【한유(韓愈)의 사당】

[문필봉(文筆峯)이라 부르는데 무령현(撫寧縣)에 있다. 봉우리 뒤에 창려현(昌黎縣)이 있는데 속설에 한문공(韓文公)이 이 산의 정기를 타고났다고 한다. 그 때문에 고을 안에 창려 사당을 지었고 또 한상(韓湘)의 사당도 있다고 한다.] 《영평부지(永平府誌)》에는“공이 자칭 창려(昌黎)라 하였기 때문에 송나라 원풍(元豐)에 이르러 공을 봉하여 창려백(昌黎伯)으로 삼았고, 원나라 말년에 이르러 지금의 창려에 처음으로 사당을 지었다.”라고 개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777년 12월 20일: 號爲文筆峯,而在撫寧縣,峯後有昌黎縣,俗稱韓文公鍾得此山之氣,故縣中設昌黎廟,亦有韓湘之祠云,]取考永平府誌,槩曰,公自稱昌黎,故至宋元豐封公爲昌黎伯,及至元末,今之昌黎,始有祠云.]

다음은 역대제왕묘에 모셔진 군신에 대한 부분으로 이 가운데 몽골의 장군들이 등장하고 있다.

【역대제왕묘의 몽골장군: 점몰홀(粘沒忽)·목화려(木華黎)】

춘추 중월에 길일을 택하여 자시에 역대 제왕의 사당에게 제사하는데, 사당은 서부성문(西阜城門) 안에 있다. 정전에는 ... 당태종(唐太宗)·요태조(遼太祖)·금태조(金太祖)·세종(世宗) 등 4위로 실 하나를 만들고, 송태조(宋太祖)·원태조(元太祖)·세종(世宗)·명태조(明太祖) 등 4위로 실 하나를 만들었다. ... 점몰홀(粘沒忽)·목화려(木華黎)·서달(徐達) 등은 서무(西廡) 제2단에 모셨다.

[聞見雜記(上): 春秋仲月擇吉,以子時祭歷代帝王廟,廟在西阜城門內,正殿 ... 以唐太宗·遼太祖·金太祖·世宗以上四位爲一室,以宋太祖·元太祖·世宗·明太祖以上四位爲一室 ... 粘沒忽·木華黎·徐達以上西廡第二壇.]

위의 기록에서 원태조 뒤에 나오는 세종(世宗)은 세조(世祖)의 오류이고 목화려(木華黎)는 칭기스칸의 서아시아 원정 때 중원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던 국왕(國王) 모칼리(Mukhali)의 음역이다. 모칼리의 앞에 등장하는 점몰홀(粘

沒忽)은 금나라 완안종한(完顏宗翰, 1080~1137)의 본명으로 흔히 한자로는 점몰갈(粘沒喝)이라고 표기된다. 개국공신으로 금나라 희종(熙宗)의 즉위 후 진국왕(晉國王)으로 봉해졌다.

다음은 대도의 원대유적부분으로 3건이 소개되어 있다.

【국자감(國子監)】

원나라 초기에 사당과 학교가 모두 불타 예전 추밀원(樞密院) 자리에 창립한 것이라 한다. ... 원나라 인종 때에 우집(虞集)이 [석고(石鼓)를] 진흙 가운데에서 발견하여 지금의 국학(國學) 대성문(大成門) 안에 두었는데, 원나라 사업(司業) 반적(潘迪)이 석음훈(釋音訓)을 지어 자그마한 비에 새겨 그 옆에 세웠다.

[1778년 1월 30일: 元初廟學俱燬,取舊樞密院地,創立之云 … 元仁宗時,虞集得之泥中,始置今國學大成門內,而元司業潘迪撰釋音訓,刻於短碑,而立其傍矣.]

【대도(大都)의 궁궐: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다】

궁궐은 원나라 사람들이 실로 송나라 임안(臨安)의 제도를 모방하였기 때문에 극히 장려하였다.

[聞見雜記(上): 宮闕則元人實摹宋之臨安制度,故已極壯麗.]

이같은 대도의 전형을 송나라의 수도인 임안(臨安)으로 보고 있는데 두 도시 모두 자연공원이 많고 또 대도가 유교의 이상향을 충실한 반영한 도시라는 점에서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도는 임안과는 달리 철저히 계획된 도시이며 북방의 특색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조선시대의 여타 여행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순경원(巡警院)】

성(城)마다 어사(御史)를 설치하여 순시하고 병마지휘사사(兵馬指揮使)와 또 도·부지휘(都·副指揮)를 설치하였다. 이는 곧 송나라 때의 사상도지휘(四廂都指揮)이고 원나라 때의 순경원(巡警院)이다.

[聞見雜記(上): 每城設御史巡視,有兵馬指揮司使,又設都副指揮,卽宋之四廂都指揮,元之巡警院也.]

다음은 원나라 사람들의 습속 등에 관한 부분으로 모두 5건이 소개되어 있다.

【북방민족의 국호: 땅으로 국호를 삼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요(堯)·순(舜) 이래로 모두 천명을 받은 땅으로 천하의 칭호를 삼았지만 호인들은 방언(方言)이나 자의(字義)를 택해 나라 이름을 정하였다. 거란 이전부터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금나라·원나라·청나라가 바로 이리하다. 명나라는 비록 중국이라고는 하나 해와 달이 같이 나간다는 비결을 사용해 명(明)이라는 글자로 나라 이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후 중원에 다시 왕자(王者)가 일어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해도 해도 이 같은 제도를 따라 다시는 지명으로 국호를 삼지 않을 지도 모른다.

[聞見雜記(上): 中國則自堯舜以來,皆以受命之地,爲有天下之號,胡人則或以方言,或擇字義,定其國名,契丹以前,不必一一遍舉,而金及元清亦如此,皇明則雖曰中國,而用日月並行之讖,亦以明字,別作國號,此後中原雖有王者,復作其,將遵襲此制,而不復以地名爲號耶.]

【원나라 사람들의 글자 금기】

북방 습속은 기피하고 꺼리는 것이 특히 심하다. 원나라는 건국(建國)·건원(建元)·궁문(宮門)의 이름을 대부분 『주역』의 건괘(乾卦)·곤괘(坤卦)의 글에서 취했다. 그리하여 둔(屯)·몽(蒙)·사(師)·박(剝)·이(離)·곤(困)·규(睽)·혁(革)·짐(漸)·승(升)·무망(無妄)·대과(大過)·소과(小過) 등의 괘(卦)를 신하들의 진(箋)·표(表)에 쓰지 못하도록 금한다. 만약 사용하면 즉각 그것을 지적한다. 무릇 회피하는 글자가 179자인데, 선(仙)·영(靈)·귀(歸)·화(化)·천(泉)·능(陵) 등의 글자도 모두 금한다는 것이 전장(典章)에 실려 있다. 그러나 주현(州縣)의 이름은 고친 것이 없다.

[聞見雜記(上): 胡俗忌諱特甚,元則建國建元及宮門之名,多取易卦乾坤之文,而如屯蒙師剝離困睽革漸升無妄大小過等卦,禁戒羣臣不得用於箋表,或用則輒駁之,凡廻避者一百七十九字,如仙靈歸化泉陵等字皆禁之,載在典章,惟州縣之名無所改.]

【원대의 변발호복】

비록 원나라는 중국에 들어와 황제로 군림했지만 천하백성들에게 변발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온 천하가 모두 호복을 하고 있다.

[聞見雜記(上): 大抵元氏雖入帝中國,天下猶未剃髮,今則四海之內,皆是胡服.]

【장례습속: 상장(喪葬)제도】

상가에서 북치고 피리 불면서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도 역시 원나라의 유풀이다. 청나라 사람도 따르지 않는 것을 명나라에서 그것을 버리고 못하고 이어받아 준수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5~6장(丈)이 되는 명정(銘旌)과 100여 필이나 되는 송백(送帛) 및 장사지내는 절차, 무덤을 만드는 제도는 [모두] 명나라의 잘못된 습속들이다. 또 들으니 명나라 때에 기복·공복[恭功] 이하 상인은 효모(孝帽)의 꼭대기에 모두 붉은 베 한 떨기를 달고 “효도 꽃(花孝)”이라 불렀다 한다. 명나라 태조가 비록 중화의 옛 제도를 회복했다고 하나 실제 금나라·원나라의 호풍(胡風)을 바로잡아 고치지 못하여 선왕의 제례(制禮)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는 그들(청인)의 변발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 같은] 습속이 백년을 접하면 [저절로] 오랑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청나라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금하고 경계하고 있다. 장사지낼 때 한인들이처럼 잔치를 열어 조문객을 접대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풍악을 울리는 일을 본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상여를 메는 인부는 [고인의] 품급에 따라 숫자를 정하게 하며 만장은 9척을 넘지 못하게 한다. 또 상을 당했는데도 관의 업무를 보는 것과 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길복(吉服)을 입는 것과 상중에 장가드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금법을 만들어 엄

히 다스린다.

[聞見雜記(上): 喪家之鼓吹燕賓,亦是元氏之遺風也,清人固不足道,而明朝猶不免遵襲者何耶,五六丈銘旌,百餘疋送帛,及其出殯之節,成墳之制,無非皇明謬習,又聞明時墓功以下,孝帽頂心,皆綴紅絨一朵曰花孝云,明祖雖曰盡復中華之舊制,實則金元胡風,多未矯革,先王制禮,便爲掃地,此不待伊川之被髮,可占百年之爲戎矣,到今清人反爲禁戒,送殯時,使不得效漢人設席款客及唱戲鼓樂之事,擡夫隨品定限,銘旌無過九尺,又禁冒哀從仕及喪未除而卽吉,居喪娶妻者,雖未知能不違越,而設禁則嚴矣.]

【장례습속: 화장제도】

무릇 화장은 불교에서 시작되었는데 금나라와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자 이내 풍속이 되었다. ... 이것은 청나라 사람의 죄가 아니다. 실제 금나라·원나라 때부터 이미 그러했다. [화장습속은] 연경 동쪽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지금은 남방이 가장 심하다고 한다. 청나라 사람이나 한인도 모두 [이런 습속이] 예에 어긋나고 어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원나라 세조는 일찍이 시체를 불태우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여 법전에 기재할 정도였다. 강회는 가난하여 장례치를 형편이 못되는 자와 객사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화장·수장 및 시신을 여러 해가 되도록 노천에 방치하는 것을 모두 엄금하였다. 저들의 문자(만주어) 중에도 불사(佛事)를 배척하고 화장을 경계하는 말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간곡히 권유해도 끝내 그것을 척결할 수 없었다.

[聞見雜記(上): 蓋火葬倡于釋氏,金元皆據中國,仍爲成風 ... 此非但清人之罪也,實自金元已然,不獨燕京以東而已,卽今則南方尤甚云,清漢皆知其悖禮不仁,故元世祖蓋嘗嚴飭焚尸,至載典章,康熙則貧不能辦葬者及客死不得返葬者外,火葬水葬及棄毀死尸經年暴露者,並一切嚴禁,渠輩文字中,亦多譏詆佛事,戒飭火葬之說,不啻反覆懇惻,而竟未能禁斷.]

나. 복원 시대의 역사사적

이갑의 여행기에는 복원에 관련된 사적이 1건이 등장하는데 명대의 몽골방

어선에 관한 것이다.

【명대의 몽골방어선과 재력소비】

명나라가 원나라를 대신해 일어난 뒤 동북쪽의 외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태조(太祖)가 처음 북평부(北平府)를 두고 중병(重兵)을 주둔시켰다. 거용관(居庸關)·산해관(山海關)으로부터 심양에 이르는 관외(關外)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보(城堡)는 홍무(洪武) 초년에 설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건문(建文)에 이르러서도 [군사가 여전히] 북방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정난(靖難)의 변도 발생했다. 영락(永樂) 이후에 드디어 남경(南京)을 버리고 연경으로 도읍을 옮겨 동북의 방어에 주력하였다. 역로에서 본 것으로 말하더라도 거쳐 지났던 참(站)들이 둔위(屯衛)·성소(城所)가 아니면 반드시 진보(鎭堡)였다. 길이는 수 천리를 뻗어 있었다. 파수대(墩障)가 별처럼 깔려 있고 성지(城池)가 바둑처럼 널려 있으며 봉화대·치첩(雉堞)이 도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당시에 이것을 쌓는 노역이 장성을 쌓는 것에 못지않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각처에 모두 양식을 비축하고 군사를 주둔함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힘이 모두 동북에 몰리게 되어 남방이 텅 비게 되었다. [따라서] 도적이 창궐해도 막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청나라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서도 고기를 잡는 어부지리를 얻었다. 이는 만리장성을 쌓아 오랑캐를 막다가 도리어 관동(關東) 도적에게 망한 [진나라의] 일과 무엇이 다른가.

[聞見雜記(上): 皇明代元而興,憂在東北,故太祖首置北平府而宿重兵,自居庸山海,以至瀋陽關外諸城堡,無非洪武初設置,而傳至建文,北方偏重,已有靖難之舉,永樂以後,遂棄南京而移都於燕,尤爲專意東北,雖以歷路目見者言之,所經各站,非屯衛城所則必是鎭堡,延袤數千里,墩障星羅,城池碁布,烟臺雉堞,到處相望,當時築斯之役,想不啻長城,況各處皆儲糧宿兵,天下之力,盡萃於東北,以致南方空虛,流賊猖獗,莫可禁制,而清人拱手以收漁人之功,此奚異於築城備胡,而反亡於關東盜耶.]

다. 대청제국 시대의 역사사적

이갑 여행기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서부몽골부족인 오이라드에 대한 관심이다. 그가 북경을 방문할 당시인 1777년에는 이미 서부몽골 최후의 유목제국인 준가르제국도 붕괴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부족의 존재나 향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몽골만이 청나라를 견제하고 최후로 붕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몽골에 대한 인식은 당시의 조선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적이며 모호하지만 정치적 방면만으로는 박지원과 같이 미래의 주도세력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이갑의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당시 조선 선비들이 지닌 국제정치정세의 감각이나 파악정도를 알려주는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갑의 여행기에는 대청제국의 역사사적이 합밀(哈密)을 포함하여 4건이 등장하는데 모두 서부몽골에 관련된 사적들이다.

【오이라드(西蹇)의 토벌과 청조귀순】

서달(西蹇) 역시 서쪽 변방에 위치한 몽골의 한 부족이다. 그들의 습속은 본래 [고정된] 집이 없으며 [유목생활을 영위한다]. 사람들은 [성격이] 사납고 군사가 강하다. 전부터 복속과 배반을 반복하면서 탐밀(塔密=哈密)의 조공로도 막아 버렸다. 강희 때 변방을 소란케 하는 사건을 처음 일으킨 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 노략질을 자행했다. 대군이 이르면 철수하고 물러나면 다시 쳐들어왔다. 군대가 도달하면 노략질을 멈추는 형식이 아침에는 화친하고 저녁에는 배반하는 형세와 같았다. 그래서 청나라 군사 40만이 떠나면 변방에 늘 주둔하게 되었다. 연도(沿道)의 주부(州府)는 해마다 [물자를] 징발하여 공급하는 일에 시달렸다. 산서(山西) 등지에서는 민간의 돼지·양·나귀·말을 모두 빼앗아 역로를 통해 군사들에게 보냈다. 백성들은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었고 원망소리는 곳곳에서 무리지어 생겨났다. 인심이 소란하자 반란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희 말년에 부영안(富寧安)이 장수로서 아주 공을 세웠다. 이에 옹정(雍正)이 조서를 내려 칭송하면서 아주 후한 포상과 함께 세습이 가능한 후작

(侯爵)으로 봉하였다. 정미년(1727)에는 그를 내각(內閣)으로 불러들이고, 대신 악종기(岳鍾琪)에게 군사를 거느리게 하였다. 신해년(1731) 봄에 서달(西撻)에게 패하여 군사 8000명이 죽고 말 3만 필을 잃어 경사(京師)가 진동하였지만 그해 9월에 다시 대첩을 거두어 수만 명을 참획(斬獲)했다. 이로부터 서달의 군세가 조금 꺾이었다. 을해년(1755) 연간에 또 변경을 침탈했는데 건륭(乾隆)이 처서 평정하였다. 지금은 아주 귀화하였다 한다. [聞見雜記(下): 西撻亦西邊蒙古之一種也,其俗本無室廬,人悍兵強,自前反覆無常,塔密貢路,亦爲遮絕,康熙時輕啓邊釁,無時入寇,肆行恟掠,大軍至則散,退則復來,兵連禍結,朝和夕叛,清兵四十萬,恒留絕塞,沿途州府,逐年徵發,供億繁重,山西等地則民間豬羊驢馬之屬,盡奪而驛送軍前,民不聊生,怨言朋興,人心騷擾,莫不思亂,康熙末年,富寧安爲將頗有功,雍正賜詔獎諭,賞賚甚厚,仍封世襲侯爵,丁未年遂召入內閣,代以岳鍾琪總其師,辛亥春,敗於西撻,折兵八千,失馬三萬,京師震動,是年九月,又大捷,斬獲數萬,自是撻兵少挫矣,乙亥年間,又侵邊境,乾隆討平,今則歸化云.]

위의 기록에 나타나는 서달(西撻)은 서부몽골부족인 오이라드(Oyirad)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부영안(富寧安, ?~1728)은 양람기(鑲藍旗) 만주인으로 성(姓)은 부찰씨(富察氏)이며 아란태(阿蘭泰, ?~1699)의 아들이다. 강희 54년(1715) 준가르(Jegünger)제국의 체왕-아랍탄(Tsewang arabtan, 策旺阿喇布坦, 1697~1727)이 함밀을 침공하자 1717년 정역장군(靖逆將軍)으로 임명되어 바르컬(Barköl, Баркөл, 巴里坤)에 주둔하면서 준가르군을 누차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옹정제의 즉위 후 무영전대학사(武英殿大學士)로 추천되었지만 현지에 머물러 방어를 담당했다. 1726년 북경으로 돌아와 일등후(一等侯)로 봉해졌으며 양백기(鑲白旗) 및 정홍기(正紅旗) 한군도통사(漢軍都統事)를 겸임했다. 그리고 서안장군(西安將軍)으로 복무 중 세상을 떠났다. 위의 기록에 나오는 정미년(1727)은 병오년(1726)의 오류이다. 그의 후임자인 악종기(岳鍾琪, 1686~1754)는 사천(四川) 성도인(成都人)으로 1718년 사천(四川) 영녕협부장(永寧協副將)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면 위의 기록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악종기의 행적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악종기는 1717년 준가르의 체링-돈도브(Tsering dondub, 大策凌敦多卜)가 티베트를 침입하자 1720년 정서장군(定西將軍) 같이필(噶爾弼)을 따라 티베트로 들어가 라샤(拉薩)에서 준가르군을 격파했다. 그리고 1721년 사천제독(四川提督)이 되었으며 옹정 2년(1724) 연갱요(年羹堯)를 따라 룽상-단진(blo-bzang-danjin, 羅布藏丹津)의 반란을 토벌하기도 하였다.[※룽상-단진은 청해 코소드(Khoshod, 和碩特)부 구시칸(Güshi Khan, 顧實汗)의 손자로 그의 반란에 대해서는 馬汝珩·馬大正, 「論羅卜藏丹津叛亂與清政府的善後措施」 『新疆大學學報』1980-3; 馬連龍, 「論羅卜藏丹津叛亂的前因後果」 『青海社會科學』1993-1 ; 湯代佳, 「試析羅卜藏丹津“叛亂”之原因」 『青海民族研究』1998-4 ; 趙心愚, 「羅卜藏丹津反清與麗江的改土歸流—試析雍正初麗江改土歸流的主要原因—」 『西藏大學學報』2008-1 ; 孫雲軍, 「論羅卜藏丹津叛亂原因」 『東京文學』2008-9를 참조.] 이 공으로 삼등(三等)작위와 황대(黃帶)를 받았다. 1725년 감숙순무(甘肅巡撫) 및 천섬총독(川陝總督)을 겸임했다. 1728년 호남(湖南) 정주(靖州)의 생원(生員)인 증정(曾靜, 1679~1735)이 학생(學生) 장희(張熙)를 시켜 악종기가 악비(岳飛)의 후예라고 투서하면서 그에게 반청기병(反清起兵)을 권하자 악종기는 그들을 조정에 고발하여 주모자들은 체포되고 옹정조(雍正朝)의 가장 엄중한 문자옥(文字獄)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1729년 갈단-체링(Galdan tsering, 噶爾丹策零, 재위, 1727~1745)이 변경을 침입하자 청조는 부이단(傅爾丹)(傅尔丹(?~1752)은 鑲黃旗 만주인으로 姓은 瓜尔佳이며 費英東의 증손이다 康熙 20년(1681) 三等公爵을 계승했으며 관직은 正白旗 蒙古都統, 領侍衛內大臣, 吏部尙書에 이르렀다. 강희 말년 갈단칸의 정토에 振武將軍으로 참가하여 格爾額爾格에서 적을 격파하는데 공을 세웠다. 옹정 7년(1729) 靖邊大將軍에 임명되어 川陝總督 寧遠將軍 岳鍾琪와 함께 갈단-체링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1731년 6월 호톤 호수에서 적의 계략에 빠져 참패하였고 이로 인해 지위가 振武將軍으로 격하되었으며 錫保가 靖邊大將軍이 되었다. 옹정 10년(1732년) 7월 烏遜珠勒에서 벌어진 준가르군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하여 削爵奪官 당했다. 乾隆 초 다시 기용되어 1748년 大金川의 정토에 나섰으며 이후 川陝總督을 거쳐 1749년에 黑龍江將軍이 되었다.]에게 알타이산, 악종기에게 함밀의 바르쿨에 주둔시켜 방비

했다. 1730년 갈단-체링이 룽상-단진을 보낼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화해를 청하자 일시 휴전이 되었지만 그해 겨울 준가르군이 침범함으로서 휴전은 깨졌다. 1731년 반격에 나선 부이단의 청군은 그해 6월 홉드 서쪽의 호톤(Хотон)호수에서 준가르군에게 대패당했다. 홉드를 장악한 준가르군은 체링-돈도브의 지휘 하에 9월 칼카몽골(Khalkha Monggol) 중부지역까지 진공했으나 강희제의 사위이자 투시에투칸부(Tüshiyetü Khan aimag, 土謝圖汗部)의 군왕인 체링(Chering, 策凌)에게 저지당하였다. [※체링(?~1750)은 칭기스칸의 20대손으로 1692년 조부 단진(Danjin, 丹律)과 함께 청나라에 귀부했다. 유목지는 타미르(Tamir)강 유역일대로 아버지인 삼바(Samba)가 1696년 親王으로 봉해졌다. 이때부터 청조는 투시에투칸부의 권력을 축소하기 위하여 삼바를 사인노얀칸(Sayin-Noyan Khan)으로 간주하고 그 휘하의 부중을 사인노얀칸부(Sayin-Noyan Khan aimag, 賽因諾顏汗部)라는 독립부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링은 1706년 강희제의 10번째 딸인 和碩純愨公主와 혼인하였고 和碩額駙의 칭호와 함께 貝子 品級을 받았다. 그리고 옹정 원년(1723)에 多羅郡王에 봉해졌으며 1727년 러시아와 布連斯奇 국경조약을 체결했다. 옹정제는 1725년에 투시에투칸부에서 20기를 잘라 공식적으로 사인노얀칸부를 발족시켰다. 사인노얀칸부는 게레-산자(Gere-Sanja)의 손자인 투멘캥(Tümenkeng)이 달라이라마로부터 사인노얀(Sayin Noyan)의 호를 받았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다. 그는 1731년 준가르군의 격퇴로 인한 공을 인정받아 和碩親王에 봉해졌고 칼카-예케-자사그(Khalkha Yeke Jasag)라는 칭호도 수여되었다. 이어 1732년 에르데니조의 전투공적으로 超勇親王 및 固倫額駙에 봉해졌다. 사인노얀칸부는 건륭31년(1766) 청나라 황족 출신인 총곤잡(Chonggonjab)장군의 상주로 삼바의 증손인 노르보잡(Norbujab)이 사인노얀칸부의 부장으로 공인됨으로서 투시에투칸부와 정식으로 구분되었다. 사인노얀칸부에 대해서는 Д.Дашням, 『Халхын сайн ноён хан Намнансүрэн』УБ, 1990을 참조.]

이어 1732년 1월 준가르가 함밀을 공격했으나 곧 후퇴했다. 그리고 1732년 6월 준가르의 소(小) 체링-돈도브는 3만명을 이끌고 재차 칼카를 공격하여 항가 이산 동쪽에 이르렀다. 이 공격 역시 군왕 체링에 의해 저지되었고 체링은 후퇴

하는 준가르군을 에르데니조(erdeni juu:光顯寺)까지 추격하여 대파했다. 에르데니조의 전투에서 준가르군은 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는 참패를 당했다.[※ 에르데니조 전투의 발생연도에 대해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卷69 「喀爾喀賽因諾顏部總傳」 옹정 9년(1731) 조에는 “所部兵隨大軍剿噶勒丹策凌,擊其衆於克爾森齊老及額爾德尼昭,大敗之”처럼 1931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清世宗實錄』이나 『平定準噶爾方略』에 의하면 1932년 6월임이 나타난다. 이 전투의 시말에 대해서는 『準噶爾史略編寫組, 『準噶爾史略』北京, 1985, pp.174-179를 참조.] 군왕 체링은 이 공으로 초용친왕(超勇親王)에 봉해졌다. 이 때 녕원대장군(寧遠大將軍) 악종기는 변방을 소홀히 하여 준가르군이 누차 합밀에 침공하게 만들었으며 또 가축과 식량을 적에게 빼앗겼다는 죄목으로 대학사(大學士) 악이태(鄂爾泰)와 부장(副將) 장광사(張廣泗)에게 탄핵되어 삭탈관직 당했다. 그리고 일시 병부(兵部)에 구금되었다가 곧 석방되어 집에 머물렀다. 그의 관직은 부장인 장광사가 계승했다.

건륭 11년(1746)에 금천(金川)의 전투가 일어나고 원정군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자 건륭제는 악종기가 오랫동안 사천(四川)을 관할했고 병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들어 그를 종군시켰다. 그는 1749년 정월 경략대학사(經略大學士) 부항(傅恆, ?~1770)을 따라 대금천(大金川) 전투에 참여했다. 이 때 그는 단기로 례오위(勒烏圍)에 들어가 대금천(大金川) 토사(土司) 사라분(沙羅奔)에게 항복을 권유하여 금천이 평정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공으로 태자소보(太子少保) 및 병부상서(兵部尚書)가 관직에 추가되고 사천제독(四川提督)에 임명되었다. 1754년 진곤기(陳琨起)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사천 자주(資州: 지금의 四川 資中)에서 병사했다. 저서로는 『강원집(姜園集)』과 『공음집(蛩吟集)』 등이 있다. 그는 침착하고 지력이 많으며 병사들에게 엄격한 대신 동고동락을 같이 했으며 인재를 잘 발탁해 적재적소에 썼다는 평을 받았다. 청대에 한족 대신으로 대장군을 수여받고 만주병사를 휘하에 두고 통제한 것은 그가 유일하다. 건륭제는 그를 “삼조무신거벽(三朝武臣巨擘)”이라 칭송했다.

이갑의 기록에 나오는 악종기(岳鍾期)는 악종기(岳鍾琪)의 오류이다. 또 위의 기록상으로는 잘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1731년 봄과 가을의 전투는 그의

공적과는 무관함도 알 수 있다. 특히 1731년 9월의 전투는 내용상으로 볼 경우 1732년 8월의 에르테니조 전투를 가리키는 것임도 알 수 있다. 이갑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 이전부터 서부몽골의 움직임에 민감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예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갑이 이 같은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위 기록의 마지막 부분 즉 준가르칸국의 멸망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731년 호토호 전투의 패배로 청군이 일시 수세로 몰리는 기미가 보이자 옹정제는 대규모의 증원군을 급파하였다. 전열을 정비한 청군은 1733~1734년부터 공세로 전환하여 항가이 산중의 올리야스테를 공격·합락하였다. 그리고 계속 진군하여 홉드도 탈환하고 일부는 카라-이르티쉬하선까지 진출했다. 양측의 공방이 장기화되자 옹정제는 1735년 갈단-체링에게 항가이산맥 이동(할흐 몽골)은 청조, 이서 및 서남방(준가리아 및 카슈가르)은 준가르의 영토로 인정하자는 협상안을 제출하여 휴전협정을 맺자고 제의했다. 이 제안을 받은 준가르측이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은연중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옹정제의 사후(1735년) 분계선에 대한 양측의 최종협약이 이루어져 1740년 건륭제의 정식재가 하에 양측의 분쟁은 종결되었다. 이후 양국은 갈단-체링이 죽을 때까지 평화를 유지했다.

갈단-체링의 타계 후 준가르칸국은 혼란기를 맞았다. 홍-타이지를 계승했던 그의 아들 체왕-도르지-남잘(Tsewang dorji namjal, 策妄多爾濟那木札勒; 재위, 1745-50)은 음란 잔혹한 청소년이었다. 그는 결국 아크수(Aksu, 阿克蘇)에서 피살되었다. 새로 홍-타이지에 오른 인물은 그의 서형(庶兄)인 람-다르자(Lama darja, 喇嘛達爾札; 재위, 1750-52)였지만 인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약 1세기 동안 초로스부의 홍-타이지정권에 굴복하고 있었던 다르베드, 코소드, 코이드 등 제부는 다시 이탈의 조짐을 나타내 준가르칸국은 와해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 때 체링-돈보브(Tsering dondub)의 손자인 다와치(Dawachi, 達爾札)가 코이드부의 영주인 아모르사나(Amursana, 阿睦爾撒納: 체왕-아랍탄의 외손자)와 결탁하여 람-다르자를 습격·살해했다.

아모르사나의 지원으로 홍-타이지에 오른 다와치(재위, 1752~1755)는 즉위

후 권력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아모르사나를 배척했기 시작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아모르사나는 자신을 지지하는 더르베드와 코소드부의 귀족들과 함께 다와치 정권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1754년 지지자들과 함께 청조의 건륭제에게 귀부의사를 표하면서 일리(Или, 伊犁)공략의 비책을 올렸다.

아모르사나의 준가르 공략의 비법을 접수한 고종 건륭제는 이때가 준가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 호기로 간주하여 1755년 대군을 준가르로 보냈다. 청군은 아모르사나의 비법대로 이리를 공략하여 다와치를 사로잡고 준가르칸국을 멸망시켰다. 준가르의 멸망은 외형적으로 청조의 군사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준가르칸국 내부에서 발생한 제후 간의 대립으로 인한 자멸이라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준가르의 멸망 직후 아모르사나가 일리로 돌아와 청조의 지배에 대해 쫓겨갔지만 그것은 멸망 후의 한 거품에 불과하였다. 그는 청군에 패해 러시아령 시베리아로 도주하는 도중 병사(1757년)하였다. 준가르칸국은 17~18세기 북방아시아의 동서 교섭에 큰 역할을 연출했지만 결국 청조와 러시아에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제공하면서 사라져 갔다.

【제14왕 윤정(允禛=允禔)의 티베트 출정】

옹정(雍正)은 강희(康熙)의 넷째 아들로 이름은 윤정(允禛)이고 무오생(戊午生)이다. 강희는 아들이 매우 많다. 덕비(德妃)가 낳은 두 아들 중 첫째가 옹정(雍正)인데 [강희의 아들 중] 출생순위는 4번째이다. 그 다음이 제14왕 윤진(允禔)인데 대장군(大將軍)으로 서달(西達)에 출정하였다.

[聞見雜記(下): 雍正,即康熙之第四子,其名允禛,戊午生,康熙諸子甚多,而德妃生二子,長即雍正,序居四,其次即十四王允禔,以大將軍出征西達.]

위의 기록에서 이같은 옹정제의 이름과 제14왕의 이름을 혼동하고 있다. 즉 옹정제의 이름인 윤진(胤禔)과 제14왕의 이름인 윤정(胤禛)을 서로 맞바꾸어 기록하고 있다. 또 청대의 이름 기휘를 알지 못하여 윤(胤)을 모두 윤(允)으로 바

꾸어 표기하고 있는데 옹정제의 이름은 윤진(胤禛)이다. 옹정제는 즉위 후 명휘(名諱)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를 제외한 기타 황형제(皇兄弟)들의 윤자(胤字)를 윤자(允字)로 바꾸게 하고 또 제14왕의 경우 정(禎)과 진(禛)이 동음(同音)이기 때문에 윤제(允禓)로 이름을 바꾸게 했다.

윤정(允禩=胤禩, 1688~1755)은 강희 48년(1709)년 베이서(貝子, Beyise)로 봉해졌고 1718년에 무원대장군(撫遠大將軍)으로 제수되어 1719년 3월부터 서녕(西寧)에 주둔하면서 신강(新疆), 감숙(甘肅), 청해(青海) 등 서북지방의 전투를 총괄했다. 1720년 장군 연신(延信)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티베트에 들어가 준가르의 체링-돈도브 군을 그곳에서 몰아냈다. 그는 군중에서 대장군왕(大將軍王)으로 칭해졌고 상주문에도 대장군왕신(大將軍王臣)이라 자칭할 정도로 강희제의 신임을 독차지 했다. 그러나 옹정 즉위 후 강희제의 장례참석을 명분으로 소환된 뒤 군권이 박탈되었다. 옹정 원년(1723) 군왕(郡王)으로 봉해졌지만 1725년에 다시 패자(貝子)로 강등되었고 1726년 패자(貝子) 직위의 박탈과 함께 연금되었다가 건륭의 즉위 후 풀려났다. 윤정의 이력에서도 나타나듯이 그의 오이라드 출정은 1720년 티베트 출정이다.

【연갱요(年羹堯)의 청해출정】

연갱요(年羹堯)는 명주(明珠)의 손서(孫婿)이다. 섬천총독(陝川總督)으로 있었을 때 일찍이 청해(青海)의 전투에서 승리한 공이 있으므로 신임이 두터웠지만 제왕의 당으로 의심받아 죄에 연루되었다. ... 그 후 청해(青海)의 공으로 하여 특별히 극형을 면하고 자살하게 하고, 그 아들 연부(年富)도 행동이 제 아비와 같다 하여 곧 베어 죽였다.

[聞見雜記(下): “年羹堯即明珠之孫婿也,爲陝川總督,嘗有青海戰捷之功,倚毗方切,又疑其爲諸王之黨,隨事構罪 ... 其後以青海之功,特免極刑,使之自裁,其子年富以行事與其父相類立斬.]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연갱요(年羹堯, 1679?~1726)의 자(字)는 양공(亮工)이고 호(號)는 쌍봉(雙峰)이다. 원적(原籍)은 안휘(安徽) 회원(懷遠)이며 후에 한군양황기(漢軍鑲黃旗)에 예속되었다. 그의 누이가 바로 윤진(胤禛)의 세 번째 부

인(福晉, Fujin)으로 옹정의 즉위 후 귀비(貴妃)로 봉해졌다. 연개요의 부인은 종실(宗室)인 보국공(輔國公) 소연(蘇燕)의 딸이다. 그는 강희 39년(1700)에 진사(進士)가 된 이후 강희 48년 (1709)에 내각학사(內閣學士)가 되었고 곧이어 사천순무(四川巡撫)로 승격했다. 이후 그는 청군과 준가르의 칸인 체왕-아랍탄이 티베트에서 전쟁할 때 청군의 보급책임을 맡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강희 57년(1718) 사천총독(四川總督) 및 관순무사(管巡撫事)으로 임명되었으며 강희 60년(1721)에 천섬총독(川陝總督)으로 승격되었다. 그해 9월 청해 곽라극(郭羅克) 지방이 반란을 일으키자 정면 진공과 동시에 당지 부락 지도자 간의 모순을 이용하여 신속히 반란을 평정했다. 강희 61년(1722) 11월 무원대장군(撫遠大將軍) 윤제(胤禩)와 함께 북경으로 돌아왔다. 옹정즉위 후 융과다(隆科多)와 함께 옹정의 좌방우비(左膀右臂)로 불려졌다. 옹정 원년(1723) 10월 청해에서 룽상-단진의 반란이 일어나자 무원대장군(撫遠大將軍)으로 임명되어 서녕(西寧)에 주둔하면서 반란을 진압해 나갔다. 특히 옹정 2년(1724) 초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 반란의 주도자인 룽상-단진이 겨우 200여명만 이끌고 준가르의 체왕-아랍탄에게 도망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는 15일(2월 8일부터 23일)동안 대군이 천리를 종횡하여 신속히 적진을 덮친 속도전의 상징으로 유명하다. 옹정제는 즉위 후 그를 은인이라고 할 정도로 신뢰했지만 점차 그의 권세가 높아지자 제거를 결심하고 옹정 4년(1726) 제왕의 당으로 몰아 92개 죄목을 씌워 자살을 강요했다. 92개 죄목의 구성은 대역죄(大逆罪) 5조(條), 기망죄(欺罔罪) 9조, 참월죄(僭越罪) 16조, 광패죄(狂悖罪) 13조, 전천죄(專擅罪) 6조, 기각죄(忌刻罪) 6조, 잔인죄(殘忍罪) 4조, 탐람죄(貪婪罪) 18조, 침식죄(侵蝕罪) 15조이다.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청해 전투는 1724년 룽상-단진의 반란진압을 가리킨다.

【하밀(Khamil)국】

합밀국(塔密國)은 서역(西域)의 서쪽에 있다. 그 풍속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청인에게 귀부하여 항상 왕래했기 때문에 복색이 청나라 사람과 구별이 없다. 그 참외를 보면 크기가 우리나라 호박만 하고 맛이 매우 달다. 겨울에도 역시 그것이 있다.

[聞見雜記(下): 塔密國,在西域之西,其俗未能詳知,而蓋歸附於清人,尋常往

來,故服色與清人無別,見其眞瓜,大如我國胡瓠,而味甚甜,冬亦有之矣.]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합밀(哈密)은 몽골어 Khamil, 돌궐어 Qamul의 음역이다. 합밀의 역사에 대해서는 서호수의 여행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이 지방의 특산물은 합밀참외(哈密瓜)이다. 합밀참외는 이지상(李志常, 1193~1256)이 지은 구처기(邱處機, 1148~1227)의 『장춘진인서유기(長春眞人西游記)』에도 “또 서과를 바쳤다. 그 무게는 저울에 미쳤으며, 감미로운 과일은 침허(枕許)와 같았다. 그 향기로운 무릇 중국에는 없는 것이다(且獻西瓜,其重及秤,甘瓜如枕許,其香味蓋中國未有也)”처럼 기록되어 있으며 강희 때부터 진상품으로 바쳐졌다. [※ 『新疆回部志』: 강희때부터 합밀이 마음을 바쳐 투항했는데, 이 과일도 비로소 공납하게 되었다. 이 과일을 합밀과라고 불렀다(自康熙,哈益投誠,此瓜始人貢,謂之哈密瓜).] 합밀참외(哈密瓜)라는 명칭이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때는 강희 때부터라고 보인다.

(2) 몽골의 지리적 위치 및 지명, 강명

이갑의 여행기에는 몽골의 지명 및 강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몽골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기록이 4건, 기후에 관한 기록이 2건 수록되어 있다. 몽골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기록은 모두 몽골과 중원의 경계에 관한 것들인데 그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변문(邊門)밖은 몽골의 땅】

봉황성(鳳凰城)도 명나라 때 수비하던 땅이다. 청나라 사람들은 구련 탕참을 모두 폐지하고 오로지 이곳을 변문으로 삼아 목책을 세워 경계를 하였다. 여지도(輿地圖)에는 “이 목책은 이곳에서 남쪽으로 수십 리 되는 바닷가에서 멈춘다. 북쪽으로는 흥경(興京)을 지나 위원보(威遠堡)의 동북에서 뻗어나가 혼동강(混同江)에 이른다. 그리고 오랄(烏喇) 지방을 둘러싸고 나가다가 객합성(客哈城) 뒤에서 멈춘다. 또 개원(開原)으로부터 서쪽으로 의무려산(醫巫閭山)의 북쪽과 홍라산(紅螺山)의 남쪽을 둘러 나와

철원(鐵原)·광녕(廣寧)·의주(義州)·금주(錦州)·영원(寧遠) 등지를 거쳐 산해관에 도달하여 장성 밖의 동북면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각처에 모두 판자문을 설치하여 변문(邊門)이라고 칭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봉황성 변문부터 산해관까지 주위가 무릇 1800여 리이고 변문이 모두 17이다. 변문은 봉황(鳳凰)·흥경(興京)·개원(開原)·광녕(廣寧)·의주·금주·산해 등 일곱 성장(城將)이 나누어 관할한다. 책을 세운 바깥은 모두가 몽골의 땅이다.

[聞見雜記(上): 鳳凰城亦明時防守之地,而清人則盡廢九連湯站,專以此爲邊門,樹木柵以爲界,按輿地圖,此柵自此以南則不過數十里,止於海濱,而北則遙過興京,自威遠堡東北直跨混同江,繞出烏喇地方,止於客哈城後,又自開原而西,繞出醫巫閭之北紅螺山之南,包跨鐵原·廣寧·義州·錦州·寧遠等地,直抵山海關,以爲長城外東北邊界,各處皆設板門,號稱邊門,自鳳凰城邊門至山海關,周圍凡一千八百餘里,邊門共十七,分屬鳳凰·興京·開原·廣寧·義州·錦州·山海等七城將,設柵之外,皆是蒙古界也.]

【산해관(山海關)의 북쪽은 몽골의 땅】

홀연히 몇 개의 봉우리가 은은하게 서북방에 비친다. 이것이 바로 의무려산(醫巫閭山)으로 이리저리 구불구불 중흥으로 뻗어 있다. 이후 관내(關內)에 이르기까지 오른편에 이 산을 끼고 갔다. 여러 날 들관으로만 가다가 비로소 산을 보니 눈이 확 열린다. 산의 지맥이 바닷가에 솟구쳐 산해관(山海關)을 둘러싸고 있다. 이 산의 북쪽은 몽골 지방이라 한다.

[1777년 12월 12일: 忽有數峯隱映於西北之方,乃醫巫閭山,逶迤縱橫,自此後至關內,連爲右挾此山而行,屢日野行之餘,始見一山,令人眼開,山之支脈,盤屈海邊,直繞山海關,而山之北,卽蒙古地方云.]

【연경(燕京)은 북쪽의 몽골과 너무 가깝다】

연경은 옛날의 유주(幽州)이다. 역대의 연혁을 보면 명나라 초기에 순천부(順天府)가 되었고 영락(永樂) 연간에 북경(北京)이 되었다. 청나라도 그것을 따라 순천부를 경사(京師)로 삼았다. 지세로 논하면 중원의 동북

쪽에 위치하며 태행산(太行山)·연연산(燕然山)이 구불구불 그 북쪽을 두르고, 끝없이 넓은 바다가 그 동쪽에 흐르고 있어 천하의 대세가 모두 품안으로 돌아온다. 참으로 으뜸가는 도읍지이다. 그러나 이적(夷狄)과 화하(華夏)의 경계가 그다지 서로 멀지 않다. 북으로 가면 거용관에 이르고 서로 가면 자형관(紫荊關)에 이르는데 이곳은 몽골달자(蒙古韃子)와 땅을 서로 접하고 있다. [거리] 가까운 곳이 100리이며 먼곳도 300리에 불과하다. 용적(戎狄)이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된 것도 이렇듯 땅이 너무 가깝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聞見雜記(上): 燕京,古之幽州也,歷代沿革,至大明初爲順天府,永樂年中爲北京,清又仍之,以順天府隸京師,以地勢論之,居中原之良位,太行燕然逶迤而環其北,大海汪洋而經其東,天下大勢,盡歸襟帶之內,眞伯王之都也,然夷夏之限,不甚相遠,北抵居庸關,西逼紫荊關,蒙古韃子接境連居,近則爲百里,遠不過三百里,戎狄之入主中國,亦豈非壤地逼近之故耶.]

【의무려산(醫巫閭山) 북쪽은 몽골의 땅】

의무려산 뒤부터 모두 몽골 땅에 속한다. [몽골 땅은] 끝없는 사막으로 북해(北海)가 그것을 감싸고 있다.

[聞見雜記(下): 醫巫一山之後,盡屬蒙古之地,茫茫大漠,北海環之.]

이갑의 여행기에는 그가 통과한 몽골지역의 기후에 관한 독특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해관(山海關)의 기후는 안팎으로 다르다】

산해관을 나온 이후 바람이 불고 또 [날씨도] 춥다. 가끔 산골짜기에 얼음이 아직 녹지 않은 것이 있으니 관의 안과 밖의 기후가 판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1778년 2월 23일: 出關以後,風而且寒,往往山谷氷澌未消,可見關內外節候之頓異也.]

【몽골의 기후 : 거짓 태양(sundog)/3태양과 2태양】

맑음. 햇무리가 지고 양쪽에 고리가 생겼다. 일찍 청석령(靑石嶺)을 지났다. ... 맑음. 햇무리가 지고 왼쪽에 고리가 생겼다. 새벽에 오도하(五渡河), 사방대(四方臺), 신민점(新民店)을 지나갔다.

[(1777년 12월 4일)晴,日暈有兩珥,早過靑石嶺 ... (1777년 12월 11일)晴,日暈有左珥,平明過五渡河,四方台,新民店.]

이갑이 12월 4일과 11일에 본 현상은 거짓태양(sundog=parhelion)이라 불리는 대기의 기하학적 광학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추운지방의 겨울철에 종종 관찰된다. 빛의 굴절현상으로 나타난 이 현상에는 신기루(mirage), 무지개, 빛이 작은 물방울들 사이나 그 주위를 통과할 때 여러 가지색의 광원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코로나(Corona)와 그림자 광환(glory), 새털구름(卷雲)에서 나타나는 햇무리(halo)나 달무리(halo), 일출과 일몰 때 나타나는 거짓태양(sundog), 새털구름에서 나타나는 해기둥(sun pillar)등이 있다. 장가구선린협회(張家口善隣協會=蒙古善隣協會)의 부속기구로 1944년에 세워진 서북연구소(西北研究所)에서 내몽골의 인류학·생태학 연구에 종사하던 매도충부(梅棹忠夫)도 겨울철에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뒤 거짓태양(幻日)이란 이름으로 보고하고 있다.[*梅棹忠夫, 『回想のモンゴル』東京, 1991, p.70]

(3) 몽골부족

이갑의 여행기에는 몽골부족에 관한 기록이 유래와 강역, 부족의 숫자, 부족의 현황 등 모두 5건이 등장하는데 먼저 유래와 강역 및 몽골부족의 숫자부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부족의 유래와 강역】

몽골은 원나라의 유종(遺種)으로 예전의 달단(韃靼)이다. 동쪽의 흑룡강에서 서쪽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북으로는 옛 장성 밖을 따라 영고탑 근처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들의 역로로 말하면 산해관

이동이 몽골 지방에 가장 가까운데 큰길에서 먼 곳이 50리에 불과하다.
 [聞見雜記(下): 蒙古卽元之遺種,而古韃靼也,東自黑龍江,西至于海北,沿古長城外,至寧古塔近處,皆其巢穴,而以我人歷路言之,山海關以東則蒙古地方最近,距大路遠者不過五十里.]

【몽골부족 46부】

청인에게 복속한 부가 무릇 46부인데, 청인이 처음 발흥할 때 부락을 거느리고 와서 귀부했다.

[聞見雜記(下): 其服屬於清人者凡四十六部,清人初興,率其部落而歸附.]

【몽골부족 48부】

평소 복속하는 몽골 48부외에 먼 변경[의 몽골부족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聞見雜記(下): 平日服從之蒙古四十八部外,其不能遠拓邊境可知矣.]

조선시대의 여행기에서 몽골 48부라는 기록은 최덕중이나 박지원의 여행기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48부라는 것이 청조에 투항한 몽골부족 숫자의 고정된 명칭이 아니라는 것은 서호수의 여행기에서도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아마 조선시대의 여행기에 종종 등장하는 몽골 48부라는 명칭은 애초 무언가의 전문이나 보고에 의해 생겨났고 이후 습관적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그 최초의 진원지는 아직 파악할 수 없다.

다음은 태극달자(太極獐子)와 현재 몽골부족의 복속상태 현황에 대한 기록인데 그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태극달자(太極獐子)의 역사와 위상】

황태길(黃台吉)·청태길(靑台吉)이란 소위 태극달자(太極獐子)를 가리키는 말이다. 몽골말로 태극(太極)을 태길(台吉: Taiji)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몽골 추장들의 칭호가 되었다. 그들(청인)의 몽골 관작 중에 소위 태길(台吉)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명나라 영종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야선

(也先:Esen)의 누이를 취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예가 청(靑)·황(黃) 두 태길이다. 때문에 명나라의 후예라고 자칭하는데 아주 강성하다. 강희(康熙)의 태후(太后: 孝莊文皇后)가 태길의 고모이다. 태길이 일찍이 고모가 병이 중하다는 말을 듣고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군사를 끌고 거용관(居庸關) 밖에 도달했다. 그때 태후는 이미 죽었다. 강희는 그들이 관내에 들어 오는 것을 두려워 비밀리에 발상한 후 사신을 파견하여 어물어물 미봉하면서 군사를 돌리게 했다. 그리고 해마다 은(銀) 수십 만 냥을 주면서 기미(羈縻)한다고 한다.

[聞見雜記(下): 黃台吉靑台吉,即所謂太極獃子也,蒙語太極稱以台吉,仍爲蒙古酋長之號,渠輩蒙古官爵中所謂台吉者,蓋以此也,皇明英宗陷虜時,納也先之妹生子,其後遂爲靑黃兩台吉,故自稱皇明之裔,頗極強盛,康熙之太后,即台吉之姑也,台吉嘗聞其姑之病重,稱以相見,引兵到居庸關外,時太后已死,康熙惧其入關,祕不發喪,遣使彌縫,使之退兵,仍歲給銀數十萬兩,以爲羈縻云.]

태극달자(太極獃子: Taiji Monggol)에 대한 기록은 1712년 북경을 방문한 김창업의 여행기에도 등장하고 있다. 즉 김창업이 무령현(撫寧縣) 유관(榆關)에서 묵을 때 이곳에 살고 있는 11대 토박이인 한인 영종(榮琮, 60세)과의 문답에서도 등장하는데 그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 부락에서도 다 공물을 바칩니까.” “어제 이미 진공(進貢)했습니다.”
“태극달자(太極獃子)도 진공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 달자는 이롭습니까, 아니면 해롭습니까. 황조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군병이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김창업(金昌業, 1658~1721), 『연행일기(燕行日記)』 「1712년 12월 19일」: 問蒙古部落,皆入貢否,答昨日已進貢去了,問太極獃子亦進貢麼,答否,問這獃子利害否,皇朝怕他否,答怎麼不怕,問怕怎麼,答怕兵衆.]

이로 미루어 보면 1712년 당시 조선의 지배층에게 태극달자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김창업이 보고한 태극달자와 이갑이 기록한

태극달자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몽골부족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1855년 북경을 방문한 서경순(徐慶淳, 1804~?)의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1855년 12월 22일」에도 태극달자에 관한 기록이 “몽골 48부 중에 동북방의 여러 종족이 가장 강성하다. 대비달자(大鼻獺子) 역시 흑룡강의 북쪽에 있다. 동으로 흑룡강으로부터 개원(開元) 이북까지 이른 다음 진나라 장성 밖을 따라 북쪽으로 서쪽으로 꾸불꾸불 뻗어나가 한나라 서역의 우진(于闐) 지방까지 도달하는 곳이 모두 몽골의 경계이다. 그 넓이가 중원에 비하여 여러 배나 된다. 상고 시대에는 관도 상에 실리지도 않았으며 황막한 무인지대였다. 당·송 이후에 땅이 더욱 넓혀지고 사람이 더욱 번창하여 지금은 46부나 된다. 그들은 서로 웅장한데 각기 한 지역의 황제가 되어 동·서·남·북 황제라 호칭한다. 하나는 황태극(皇太極)이며 하나는 청태극(靑太極)인데 이들은 중국 서남 지방에 있다. 하나는 액라사(厄羅斯)로 곧 대비(大鼻)이며 하나는 칼카(喀爾喀: Khalkha)인데 이들은 중국의 동북 지방에 있다(蒙古四十八部中東北諸種最強盛, 大鼻獺子亦在黑龍之北, 東自黑龍江至開元以北及沿秦長城之外, 逶北逶西, 至于漢西域于闐地方, 皆是蒙古之界, 其廣比中原, 不啻屢倍, 上古則不載於版圖, 荒漠無人居, 唐宋以後, 地益廣人益繁, 今爲四十六部, 互相雄長, 各帝一隅, 號稱東西南北皇帝, 一曰皇太極, 一曰靑太極, 此在中國之西南, 一曰厄羅斯, 卽大鼻也, 一曰喀爾喀, 此在東北)” 처럼 수록되어 있다. 서경순의 기록은 “보고 들은 것을 고르고 주워 모아서(採撫見聞)”라는 본인의 표현처럼 앞선 기록들을 참조해서 만든 것인데 이곳에 등장하는 황태극(皇太極)은 위치 상 티베트의 구시칸왕조이며 청태극(靑太極)은 청해몽골일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태극달자의 구성을 다시 황태길(黃台吉: Hung-Taiji)과 청태길(靑台吉: Ching-Taiji)로 나누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는 강희(康熙)의 태후(太后)인 효장문황후(孝莊文皇后, 1613~1687)[※孝莊文皇后는 코르친부 망고스(Manggus)의 큰아들 자이상(Jaysang, 宰桑)의 딸로 1625년에 청태종에게 출가하여 순치제를 낳은 어머니이다.]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할 때 이같은 태극달자 관련 부분은 1675년 보르니(Burni, 布爾尼)의 반란과 누르하치 때부터 연혼관계를 맺고 일종의 국가연합통치체도를

구축하고 있었던 자사그-호쇼이-투시에투-친왕(Jasag Hosho-i Tūshiyetü Chin Wang, 扎薩克和碩土謝圖親王) 계열(코르친-우익중기), 자사그-호쇼이-다르칸-친왕(Jasag Hosho-i Darkhan Chin Wang, 扎薩克和碩達爾漢親王) 및 자사그-조릭토-친왕(Jasag Jorigtu Chin Wang, 扎薩克卓哩克圖親王) 계열(코르친-좌익중기)을 뒤섞어 만든 가짜문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는 별도로 김창업이나 서경문, 뒤의 박지원의 기록을 합쳐 고찰해 볼 경우 황태길(黃台吉)·청태길(靑台吉)은 에센칸의 후예라 불려지는 초로스(Choros, 綽綽羅斯)부의 부장 카라-콜라(Khara Khula, 哈喇忽喇)의 아들인 바아토르-홍-타이지(Ba'atur Khong Tayiji, 巴圖爾洪台吉, 재위 1634~1653)와 칭-타이지(Ching Tayiji), 태극달자(太極獋子)는 준가르(Jegünger)나 칭해 및 티베트에 진출한 오이라드의 코소드(Khoshod, 和碩特)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가짜문서의 존재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나약국서(羅約國書)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갑이 입수했던 태극달자 가짜문서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황극달자(黃極獋子)가짜문서의 계통을 이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갑이 조선의 지배층에게 별단으로 보고된 황극달자 문서를 보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박지원의 기록을 참조할 때 그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관 조달동(趙達東)이 별단(別單)을 꾸미러다가 이 글을 서반(序班)으로부터 얻어 밤에 나에게 보였다. 서장관 역시 와서 “아까 나약국서를 보셨는지요. 세상일이 크게 야단났다”고 말한다. 나는 “세상일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애초에 나약국이란 없다. 내가 20년 전에 일찍이 별단 중에서 이 같은 문서를 보았는데 역시 ‘황극달자(黃極獋子)는 부질없이 쓴다’라고 했다. 선배들과 함께 둘러앉아 한 번 읽은 뒤 매우 북방을 우려한 적이 있었다. 더러는 청나라의 정권을 대신할 자는 황극이라고 말하는 이도 없지 않았다. 이제 이 글을 본즉 가감 없이 그것과 비슷하다. 서반배들이라는게 모두 강남 빈민들의 자식으로서 객지에서 몸 붙일 곳이 없어 이 따위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날조하여 우리 역관들에게 공비(公

費) 돈을 받고 속여 파는 것이다. 별단에는 비록 보고 들은 사건을 신계 하긴 하지만 대체로 모두 길목에서 들은 이야기들이니 어찌서 이 신빙할 수 없는 허탄한 소리를 사행 때마다 돈을 주고 사서는 막중한 어전에 여쭙는 자료로 삼는단 말인가. 내 의견으로는 별단 중에 적당하게 짐작하여 취사를 함이 좋겠다”고 하였다. 서장관 역시 그래야 할 것을 깊이 납득하였다. 그러나 조 역관은 이에 대하여 몹시 변명하려고 애썼다.[『熱河日記』 「口外異聞·羅約國書」: 趙譯達東將修別單,得此於序班,夜以示余,書狀亦來語曰,俄見羅約國書乎,天下事大惶恐,余曰,天下事姑舍是,但恐天下元無羅約國,吾於二十年前,曾於別單中,見似此文書,亦稱黃極撻子慢書,先輩圍坐一讀,深以北方爲憂,或謂代清者極也,今見此書,似無加減,序班輩皆江南窶人子,羈旅無賴,類作此等危妄語,以賺我譯,公費銀兩,別單雖許,聞見事件,皆是道聽塗說,奈何逐年買謊語,每行沽偽撰,以備莫重奏御之資乎,愚意則別單中合當商量去就,書狀大以爲然,趙譯頗分疏.]

박지원의 기록에 등장하는 서반들이란 사신단의 안내나 조회 시 자리배치 등을 담당하는 홍려사(鴻臚寺)나 회동관(會同館)의 말단 관리(從九品)들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의 빈민 출신들로서 급여도 매우 적었다. 따라서 청조는 그들에게 조선 사신단의 물품구매를 주관하는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주어 그 이득으로 생계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취했다. 따라서 이들은 생계를 위해 조선 사신단의 모든 거래를 독점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기록이 흥대용의 여행기이다.

서반(序班)이라는 것은 서리(胥吏)다. 사행이 연경에 도착하면 예부에서 서반 10인을 뽑아 순번으로 돌아가며 아문에 숙직하여 관아의 일에 충당한다. 이들은 모두 지방의 성(省)으로부터 뽑혀 온 자들로 봉급이 매우 낮았다. 그리하여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연경의 화물(貨物) 중 좀 고상한 것은 모두 서반에게 무역을 주관하고 그 이윤을 먹도록 하였다. 때문에 서적·서화·붓·먹·향차(茶) 등은 다른 상인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물가가 해마다 올라가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등쌀에 시달리게 되어 혹 그들 몰래 사고팔다가 그들로부터 온갖 곤욕을 받기도 한다. 내가 유리창(琉璃廠)과 융복시(隆福市)에 갔을 적에 서반들은 혹시 내가 그들 몰래 서적을 살까 염려해서 꼭 따라다니면서 사찰을 하였다. 달래도 보았지만 끝내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나의 유관을 싫어하여 항상 저지하러 들었다. 부가(傅哥)는 산서(山西) 사람으로서 나와 한동갑이었는데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적마다 끝내 속을 털어 시원스럽게 말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을 오래 겪어보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또한 남쪽 지방의 풍속이 북쪽 지방 사람의 솔직함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가가 말하기를, “서반은 일은 고되고 봉록은 적습니다. 그러기에 10년 동안 있다가 지현차(知縣差)로 되는 것이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고 하였다.[『湛軒燕記』「衙門諸官」: 序班者,胥吏也,使行入京,禮部調序班十人,更番直宿于衙門,以備諸官役使,皆從外省選上,俸食清貧,數十年以來,凡燕貨之稍雅者,皆令胥班主其貿易而食其剩餘,如書籍書畫筆墨香茶之屬,他商儉不敢與焉,以此物價逐年增高,東人苦其刁踊,或有潛買,詈辱備至,余往琉璃廠及隆福市,序班恐余潛買書籍,必跟隨伺察,或諭解之,終不聽,是以惡余游觀,常欲沮尼之,傅哥,山西人,與余同庚,每延坐與語,終不見開懷暢談,此不惟熟經東人,亦足見南方俗尚終不及北方之坦率也,傳言序班事役煩而俸祿薄,但積仕十年,得一知縣差,爲救貧之道云.]

즉 이들은 말이 통하는 조선의 역관들과 한 통속이 되어 물품의 구입은 물론 관청에서 흘러나온 각종 정보도 거래했다. 바로 이갑의 사신단이 구매했던 태극달자 문서건도 이들이 조작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 역관이 서관을 통해 구입한 태극달자 문서는 일종의 정보 사기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태극달자 조작문서와 뒤에 언급되는 윤정의 몽골부인(무순공주)건 및 앞선 1731년의 기록을 합쳐볼 경우 서관들이 판매한 정보에는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731년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매우 가까운 정보이지만 태극달자 및 무순공주건은 몽골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정보에 속한다. 하여튼 이러한 가짜문서 사건들은 모든 조선사신단의 임무 중에 주변정세 특히 몽골의 동향을 탐문하여 보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몽골부족의 복속상태: 미래의 주인공은 몽골이다】

몽골은 가장 강하고 [땅이] 크며 동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복종의] 약속을 받은 것은 겨우 수 백리 안쪽의 약간의 종족일 뿐이며, 실제 이것도 기미(羈縻)에 불과할 뿐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저희들의 강적이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환난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어찌 알겠는가. ... 또 들으니 서장에 종족과 부락이 아주 번성하고 물과 풀을 찾아다니며 살아 간다고 한다. 땅이 한없이 넓고 말과 가축이 산에 가득하며, 또 황제나 왕을 칭하는 자가 과연 몇 종족인지 알 수 없다 한다. 이로 보면 평소 복종하는 몽골 48부 외에 먼 변경[의 몽골부족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앞으로 그들이 더욱 성하여 차츰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은 대적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순망치한의 근심이 어찌 없다고 하겠는가.[聞見雜記(上): “蒙古則最強且大,亦最近於東北,受其約束者僅數百里內若干種,而不過羈縻而已,其餘則皆渠之強敵,又安知不患生於所忽耶 ... 聞見雜記(下): 又聞西庄之地,種落極繁,惟逐水草而居,地方無限,馬畜彌山,亦未知稱帝稱王者,果爲幾種云,以此觀之,平日服從之蒙古四十八部外,其不能遠拓邊境可知矣 ... 他日種類益盛,浸淫內入,則其鋒所向,定難抵敵,齒寒之患,安知其無也.]

몽골부족의 복속현황에 대한 부분은 그가 보고들은 지식에 의거하여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태극달자 문서 건에서도 나타나듯이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를 비롯한 조선의 선비나 지배층들이 청조를 옹호 유력한 세력으로 몽골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의 몽골인식이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4) 몽골습속

이갑의 여행기에는 몽골습속 중 유목생활에 관련된 것이 3건, 일반습속과 관련된 것이 8건, 북경의 몽골관에 대한 것이 1건 등 모두 12건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유목생활에 관련된 부분부터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인의 유목생활과 여행습속】

모두 사납고 거칠며 고정가옥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아주 추운 때라도 단지 달구지 위에 장막을 치고 길에서 자며 아침에 눈을 털고 일어난다. ... 여행할 때에는 장막을 치고 들에서 거처한다. 풍속이 본래 그러한 것이다. [聞見雜記(下): 皆悍惡羸健,不思室居,雖極寒之時,只設帳於車上而宿於道路,朝乃拂雪而起 ... (1777년 12월 9일)往往行路,設幕野處,其俗本然.]

【몽골 겐(Ger)】

겐 안은 아주 둥글며 10여 인을 수용할 만한데 [바닥에는] 양가죽과 잡털 갓옷을 두루 깔았다. [가운데에 걸려 있는 솔]아래에 석탄이 타오른다. 겐의 꼭대기에 [덮은] 덮개를 걸어서 햇빛을 받고 연기를 통하게 한다. [聞見雜記(下): 幕中正圓,可容十餘人,周鋪羊皮及雜毛裘,下熾石炭,幕頂撒蓋,以受日光,兼通烟氣.]

【몽골 겐(Ger)을 조선사신도 사용하다】

[구련성(九連城) 30리에 이르러 잤다] 의주의 장교가 먼저 도착하여 산 밑에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구덩이 가운데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막을 쳐 놓았다. 그리고 장막 겐은 개가죽 휘장을 두르고 덮었다. 겨우 한 사람이 누울 만한데 따뜻하기가 온돌과 같았다. 상사(上使)는 몽골 전장(蒙古氈帳)을 쳤다.

[1777년 11월 27일: (到九連城三十里止宿)灣府將校先已來到山之下,掘地作坎,坎中燃炭,設幕於其上,又以狗皮,帳揮且覆焉,纔容一人臥,其溫如燠,上使設蒙古氈帳矣.]

조선사신단이 몽골꺄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에 대해서도 이전에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이갑이 이후 북경의 몽골관에서 꺄의 내부를 자세히 살핀 것도 구련성에서의 체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몽골의 일반습속 부분으로 모두 8건이 수록되어 있다.

【몽골인의 음식】

배가 고프면 다만 낙타의 고기를 씹을 뿐이다. 또 개와 한 그릇에 먹는다.

[聞見雜記(下): 飢則只噉駱肉,又與狗同器而食.]

조선 여행기에 기록된 몽골의 음식관련 조항 중 낙타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나 개와 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갑의 여행기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기록은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닌 들은 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조선의 여행기에 몽골인들이 개를 끄찍이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등장하지만 개와 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다. 몽골의 개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언급한 바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궁꺄이나 지방에서 몽골개를 사육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보인다.

그 대표적인 기록을 제시해 보면 ① 「燕山 9년(1503) 4월 22일」: “병조에 전교하기를 ‘응방(鷹坊)에 있는 몽골개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서 간수하지 않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있으면 죄를 주도록 하라.’하였다(傳于兵曹曰,鷹坊獐狗分受人員,如有不謹看守,致令逃逸者科罪)”. ② 「연산 9년(1503) 4월 28일」: “금년에는 백성이 주려 죽으며 부자간에도 서로 보지하지 못하니, 몽골개 같은 것을 더욱이 궁중에서 기르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崔淑生曰]今年百姓飢死,父子不相保,如獐狗之類,尤不宜畜於宮禁也)”. ③ 「태종 17년(1417) 7월 16일」: “임금(太宗)이 ‘상품(上品)으로 몸체가 큰 몽골개를 사신에게 주고자 하니, 이 뜻을 각도 도관찰사(都觀察使)·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공문을 보내 널리 구하여 바치게 하라’고 하였다(上曰,欲以上品體大達達狗子贈使臣,將此意行移於各道都觀察使·都節制使,廣求以進)”를 들 수 있다.

【몽골수레】

몽골의 수레는 바퀴에 바퀴살을 쓰는 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데 극히 날래다.

[聞見雜記(上): 蒙古之車,其輪用箭,制度與我國同,而極爲輕銳.]

【요람】

앉고 서지 못하는 어린이는 소위 ‘요차(搖車)’에 담는데, 모양은 체(篩)와 같으나 조금 길다. 포대기를 그 안에 깔고 줄로 들보에 맨 다음 밀어주기를 마치 그네 뛰는 모양처럼 한다. 좌우로 밀어주어 우는 것을 그치게 하고, 몹시 울면 그 앞에 나가 젖을 내어 놓고 먹인다. 그래서 자란 뒤에는 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달리기를 잘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절하고 또 병이 많다고 한다.

[聞見雜記(上): 幼兒之不能坐立者,盛於所謂搖車,如篩形而稍長,鋪襪於其內,以索懸於樑間,推送如鞞韃狀,左右擔颺,以止其啼,啼甚則就其前而出乳飼之,以故及長,耐風寒善馳騁,不然則夭且多病云.]

【수염】

남자 호인은 모두 구레나룻만 드문드문할 뿐 수염이 뺨을 덮은 자는 하나도 없다. 그 풍속을 들었는데 27세 이전에는 모두 수염을 깎고 28세부터 비로소 기르기 시작한다고 한다.

[聞見雜記(下): 男胡皆是疏髯,絕無鬚鬚之被頰者,聞其俗二十七歲以前,皆翦其鬚,自二十八歲始不翦云.]

호인들이 수염을 기르는 나이가 있다는 기록은 이갑의 여행기에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호인이 만주인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만주인과 몽골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만주 및 몽골의 우입습속】

[청인의 의복제도] 겉옷은 옷섶이 없고 속옷은 혹 섶이 있으나 모두 오른 쪽으로 여민다. 예전에 좌임이라고 한 것은 혹 단 종족을 가리킨 것인가. 아니면 청인이 중화의 제도를 따른 것일까.

[聞見雜記(上): (衣服之制)表衣則無衽,裡衣或有衽,而皆是右衽,古所謂左衽者,或指別種耶,或清人遵用華制耶.]

북방민족의 특색 중의 하나가 피발좌임(被髮左衽)이지만 몽골의 경우는 의복 제도가 우임이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몽골인의 모자】

모자 갓옷의 꾸밈은 수달피로부터 여우·오소리·쥐·수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등급이 있고 은서피(銀鼠皮)와 흑호피(黑狐皮)는 금하여 쓰지 못한다. 평상시에 쓰는 모자는 홍진사(紅眞絲)로 엮고 조복의 모자는 홍룡사(紅絨絲)를 썼는데 대단히 두껍고 길어서 테를 꿰맨 털의 선과 서로 가지런하다. 양모(涼帽)는 선이 없기 때문에 비록 항상 쓰는 모자라도 붉은 실이 모자 옆으로 나온다. 몽골의 모자는 위가 편편하고 청인의 모자는 위가 둥글어서 이것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귀천의 구별은 오직 정자(頂子)와 방식에 있다.

[聞見雜記(上): 帽子及裘飾,上自貂皮下至狐貉鼠獾,皆有等級,而銀鼠皮及黑狐皮則禁不用,常時帽子,絡以紅眞絲,朝服之帽則用紅絨絲,而甚厚且長,與緝邊之毛緣相齊,而涼帽則無緣,故雖常着之帽,紅絲輒出帽邊,蒙古之帽其頂平,清人之帽其頂圓,以此足可卞矣,其所以表賤者專在於頂子及坐褥.]

【몽골관인의 의복과 모자】

[사하점(沙河店)을 지나는]길에서 몽골의 한 관인이 수레를 몰고 지나는 것을 만났다. 두 사람은 앞에서 인도하고 두 사람은 뒤따르는데 모두 누런 옷을 입었다. 그중 한 사람은 몸에 붉은색 모직 옷을 입고 머리에 같은 빛의 갈대 갓(帽罩子)을 써서 온몸이 모두 붉은 빛이다. 보기에 황홀하여 귀신 장군과 같다.

[1777년 12월 18일: (過沙河店)路逢蒙古一官人驅車以過者,二人前導,二人隨後,皆着黃衣,其中一人,身被猩猩氈衣,頭戴同色帽罩子,渾身皆是赤色,所見恍惚,疑似鬼將矣.]

【온돌의 사용과 유래】

강[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온돌방이다. 그 방식은 모두 창 밑에 설치하여 벽돌로 쌓았다. 높이는 겨우 걸터앉을 정도이며 길이는 그 집방 크기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넓어야 겨우 누울 만한 정도이며 키가 큰 사람은 발을 뺀고 쉴 수가 없다. 강 위에는 모두 물억새 삿자리를 깔고 부자는 삿자리 위에 또 흰 담요를 깔았다. 그리고 강 아래에는 모두 벽돌을 깔았다. 사치한 집은 그 아래에 아궁이를 만들고 불을 때는데 그것을 지강[地炕]이라고 한다. 아궁이는 모두 강 앞에 만들고, [벽]밖에서 불을 때 [강으로 열기를 들여보내는 방식을 가진] 집은 극히 적다. 옛날부터 공사(公私)의 가옥 제도가 모두 책에 나타나 있는데 강이란 이름은 당나라나 송나라 이전의 문자에서는 볼 수 없다. 이 제도가 어느 시대의 것을 본 땀는지 알 수 없으나 금나라와 원나라 이래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은 위로 천자·왕궁에서 아래로 여염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제도를 쓴다. 강남만이 마루에서 살고 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일찍이 우리나라 북관(北關) 시골집들의 제도와 양식이 대체로 이와 같다고 들었다. 북방의 가옥 제도가 본래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비록 [그들의 것에] 규모가 큰 것은 있어도 정밀하고 교묘한 것은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한다.

[聞見雜記(上): 所謂炕者即我國之房也,其制皆設於窓下,以輒築之,其高僅可以踞坐,長則隨其家舍間架之長短而爲之,廣則僅臥,而身長者不能舒足,炕上皆鋪氈簟,富人則簟上又鋪白氈,炕下亦皆鋪磚,奢侈之家,其下又作因爨火,稱以地炕因,則皆設於炕前,而從外爨火之家則絕少,自古公私家舍之制,盡著方冊,炕之名曾不見於唐宋以前文字,未知此法倣於何代,而金元以來已如此,今則上自天子王公,下至閭閻四庶,皆用是制,江南則樓居而不爲設炕云,嘗聞我國北關村舍制樣,大體多類此,豈北方家制,本如是耶,大抵規模,闊大則有之,精

緻巧妙,不及於我國矣.]

온돌의 기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역사적으로 고구려나 발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필자는 몽골 허더아랄의 아브라가(aburgu, авpara) 유적지에서 온돌과 유사한 유적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것이 칭기스칸 시대의 것인지 진왕 예순테무르 시대의 것인지는 판별할 수 없다.

다음은 북경의 몽골관에 대한 기록이다.

【북경의 몽골관 정경】

그들의 관사가 옥하관(玉河館) 북쪽에 있다. [관사에] 거주하는 자들이 낙타를 타고 길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들의 관사에 대해] 들었다. 즉 관사의 사면을 흙담으로 두르고 가옥과 같은 것은 없다. 넓은 마당은 텅 빈 채 오직 10여 개의 펠트제 천막이 늘어서 있을 뿐이다. [그들이] 자고 거처하는 곳에 승마용 낙타 수십 마리가 있는데 흙벽 아래 누워 쉬고 있다. 천막 안은 아주 동글며 10여 인을 수용할 만한데 [바닥에는] 양가죽과 잡털 갓옷을 두루 깔았다. [가운데에 걸려 있는 솔]아래에 석탄이 타오른다. 천막의 꼭대기에 [덮은] 덮개를 걸어서 햇빛을 받고 연기를 통하게 한다.

[聞見雜記(下): 其館在玉河館北,居者𡵓騎橐駝,遍行于路上,聞館之四面,圍以土牆,無屋宇之制,廣場莽蕩,惟列十餘氈幕,其所寢處,只有所騎橐駝數十匹,偃息於牆下,而幕中正圓,可容十餘人,周鋪羊皮及雜毛裘,下熾石炭,幕頂撤蓋,以受日光,兼通烟氣.]

북경의 몽골관은 조선사신단의 숙소인 옥하관(玉河館)과 담을 하나두고 이웃해 있다. 따라서 북경 몽골관에 대한 기록이 조선시대의 여행기에 적잖이 남아 있는데 이갑의 기록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 북경몽골관은 이억성(李億成, 1708~?)과 같은 몽골어 전문통역관들이 방문하여 실전 몽골어를 습득 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를 보여주는 기록이 1790년 2월 이익(李瀾)에 쓴 몽학삼서중간서(蒙學三書

重刊序)의 “간혹 몽골사람들과 직접 말을 해 보면 음이 다르고 말이 달라서 피차간에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보기만 한다. 이 또한 몽골 어학서 중에 그 진짜를 얻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본학 당상관인 이익성이 일찍이 훈장이 되었을 때 이 점에 대하여 개탄하며 매양 연경에 가면 문득 몽골관에 들러 그들과 자의를 논란하고 어음을 연습하였다(然間與蒙人接語,音異語殊,彼此瞠然,此亦未必不由於蒙書之不得其眞也,本學堂上李公億成,升爲訓長時,慨然於此,每赴燕京,輒就蒙古館,與之論難字義,習演語音.)”라는 대목이다.

조선사신단의 전용숙소였던 옥하관은 뒤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러시아의 등장 이후 한때 조선·러시아사신단의 공동숙소로 변했다가 결국 러시아 사신단의 전용숙소가 되었다.

(5) 몽골인

이갑의 여행기에는 몽골인의 외형 1건, 언어관련 4건, 성격관련 1건, 학자 1건, 교역 2건 등 모두 9건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몽골인의 외형부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인의 형상】

몽골인은 청인과는 저절로 구분된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푸르며 수염이 붉다. ... 모두가 모질고 사납게 생겨서 보기가 싫었다.

[(聞見雜記(下))其爲人與淸人自別,兩顴高,眼碧髻紫 ... (1777년 12월 9일)箇箇獐悍,見之可惡矣.]

다음은 몽골언어 관련 부분으로 모두 4건이 소개되어 있다.

【호동(衙衙)】

무릇 성중의 마을을 모두 호동(衙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나라 때부터 일컬어 온 것이다.

[(聞見雜記(上): 凡城中里巷皆稱以衙衙,此亦自元時所稱也.)]

【조선사신단의 몽골어 역관】

몽학(蒙學) 행훈도(行訓導) 방효언(方孝彦)은 정사 배행이다. 짐바리용 말이 1필이고 내농포(內農圃) 무역쇄마(貿易刷馬)가 1필인데 말몰이는 용천의 노비인 창번(昌蕃)이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말이 1필인데 말몰이는 1명이다. ... 몽학(蒙學) 전 판관(判官) 유상익(劉商翼)은 서장관 배행이다. 짐바리용 말이 1필이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말이 1필인데 말몰이는 가산의 노비인 덕기(德己)이다.

[1777년 11월 27일: 蒙學行訓導方孝彦,正使陪行,并卜一隻,內農圃貿易刷馬一隻,驅人龍川奴昌蕃,私持馬一匹,驅人一名 ... 蒙學前判官劉商翼,書狀陪行,并卜一隻,私持馬一匹,驅人嘉山奴德己.]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내농포(內農圃)는 조선시대 환관들이 궁중납품을 목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던 밭이나 또는 그 관서를 말한다. 그 위치는 창덕궁 돈화문 밖 동편에 있다. 본래 서울 성내에서는 농사가 금지되었으나 내농포는 궁중납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채소재배가 허용되었다. 쇠마(刷馬)는 지방에 배치한 관청용의 말이다. 방효언(方孝彦)은 정조 14년(1790)에 기존의 몽학교재였던 『몽어유해(蒙語類解)』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첩해몽어(捷解蒙語)』를 수정하여 간행한 인물이다. 몽학삼서가 나오기 전에는 『수성사감(守成事鑑)』 『어사잠(御史箴)』 『공부자(孔夫子)』 『백안과두(伯顔波豆: Bayan Bagatur)』 『대루원기(待漏院記)』 등이 몽골어 교재로 사용되었다. 유상익(劉商翼)은 1720년 생으로 영조 29년(1753)에 몽골어 역과(譯科)에 급제한 인물이다.

【몽골 및 만주인의 자국 언어 준수와 그들의 음운에 대한 조선인의 평가】

청인과 몽골인은 모두 한어를 사용하는데 한인은 청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궐 안과 아문(衙門)에서는 반드시 청나라 말을 쓰게 하므로 한인도 관리가 되려면 청나라 말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한다. 한인은 정(丁) 자를 모르는 무식한 자라도 그 말 자체가 모두 문자이기 때문에 말이 간단하고 음이 느려 청탁(淸濁)이 분명하다. [그러나] 청나라 말과

몽골어는 쓸데없이 길고 의미가 없으며, 우리나라 말은 번쇄하고 곡절이 많다. 청인은 근본은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청나라 문서의 모든 문자는 반드시 한자와 병기시키며 임금이 보는 문서도 모두 청나라 말로 번역하여 아뢴다...또 수도와 외방의 상주문 가운데 만주문으로 된 것은 곧장 올리고 한문과 몽골문은 모두 해당 부원(部院)에서 청나라 말로 번역하여 내각(內閣)으로 보낸다.

[聞見雜記(上): 清人蒙人則皆用漢語,漢人則不用清語,而然闕中及衙門則必令用清語,故漢人之出於仕路者,不得不學習清語云,漢人雖目不識丁者,其語皆是文字,故語簡而音緩,必清濁分明,清語蒙語則冗長無義,我國之語則煩細多曲折,清人則以其根本爲重,清書凡百文字,必與漢字參用,御覽文書亦皆翻清而奏 ... 凡京外奏本,滿文直爲進奏,漢文及蒙古文,皆自該部院翻以清書,送於內閣.]

【몽골어의 중요성과 사역원의 몽학현황】

또 역원(譯院)에 사학(四學)을 설치하였으나 근래에 모두 버려졌다. 왜학은 거의 없고 한학(漢學)은 훈상(訓上) 두어 사람에게 불과하다. 인재의 재질은 고사하고 말도 통하기가 어렵다. 교린과 사대에는 말 잘하는 것이 중한데 이러한 인물, 이러한 언어를 가지고 장차 어떻게 누구의 손을 빌려 응대하겠는가. 청학(淸學)·몽학(蒙學)은 더욱 버려두었는데 몽학이 가장 심하여 비록 배우고자 하나 우리나라에 실제 그 말을 자세히 아는 자가 없다. 청인은 이미 문자를 해득하고 또 한어를 할 줄 알므로 청학은 폐하더라도 오히려 말을 통할 길이 있지만, 몽골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미 문자도 통하지 못하며 그 말도 화어(華語)와는 아주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몽학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한 사람도 입을 열어 말 한마디 할 자가 없으니 만일 혹시 몽골에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聞見雜記(上): 且譯院雖設四學,而近皆專拋,倭學則絕無莖有,漢學則訓上數人之外,人才長短,姑置不論,話亦難通,則交隣事大,辭令爲重,而以此人物,以此言語,將何所藉手應接乎,清蒙兩學則尤爲棄置,而蒙學最甚,雖欲學之,我國

實無詳知其語者,清人則既解文字,亦能漢語,清學雖廢,猶有通情之路,至若蒙古則最隣於我國,既不通文字,其言亦絕異於華語,而我國之全不留意於蒙學乃如此,無一人開口而措一辭者,設或有事於蒙,何以處之,誠可寒心也.]

정조 시 조선의 몽골어 교육이 매우 엉망이며 제대로 된 통역관이 없다는 말은 서호수의 여행기에도 나오고 있다. 서호수가 연경을 방문하기 직전인 1790년 2월에 몽학훈장(蒙學訓長) 방효언(方孝彦)의 몽학삼서 수정본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10월에 귀국한 서호수가 정조에게 몽골어나 만주어 전문통역관들의 실력부채를 논하며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채택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역시 교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실히 배워 실전에 활용하는 인물은 드물었다고 보인다.

다음은 몽골인의 품성에 관한 부분으로 1건이 소개되어 있다.

【몽골인의 품성】

강하면서도 사납고 추악하기가 이와 같기 때문에 청인들은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천하게 여긴다. [그래서] 꾸짖고 욕할 때 그를 몽골 사람에게 비교하면 반드시 불끈 성을 내고 큰 욕이라고 여기니 몽골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대개 몽골과 달자는 미련스럽고 흉추(凶醜)하여 금수와 같은데 달자(러시아)는 배나 더하다.

[聞見雜記(下): 其性之勁悍醜惡如此,故清人上下,皆畏而賤之,罵辱之際,比以蒙古則必勃然而怒,以爲大辱,其不以人類相待可知也 ... 蓋蒙及獐子,蠢頑凶醜,全是禽獸,而獐子尤倍之.]

이같은 몽골인의 품성을 기록하면서 한·중·일 3국 사람이 습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들으니 왜인(倭人)이 일찍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집에 사치하고 중국 사람은 의복에 사치하며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에 사치한다’고 한하는데 그 말이 그럴 듯한 것 같다.[聞見雜記(上): 聞倭人嘗曰,渠輩則侈於第宅,唐人

則修於衣服,我人則修於飲食,其言似近理也.]

다음은 몽골인 학자에 부분으로 1건이 소개되어 있다.

【한림학사(翰林學士) 박명(博明)】

학문은 강희(康熙)와 옹정(雍正)이 모두 주자를 극히 높이고 숭상하였기 때문에 모두 주자학이라고 말하지만 그 도(道)는 불교 아닌 것이 없고 그 예는 만주 풍속 아닌 것이 없다. ... 대개 강희 때에 여러 책을 편집하는데 참여한 자로는 문한(文翰)에는 우통(尤侗), 역학(易學)은 호후(胡煦)로 모두 남방의 거벽(巨擘)이다. 장정옥(張廷玉)도 반드시 그 가운데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지금은 각로(閣老) 우민중(于敏中)과 이전 한림학사 박명이 또한 칭송을 받는데 박명은 몽골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꽤나 배척한다.

[聞見雜記(上): 學則康熙雍正,俱極尊尚朱子,故雖曰皆是朱學,而其道則無非釋氏,其禮則無非滿州...蓋康熙時所與編輯諸書者,文翰則尤侗,易學則胡煦,俱是南方之巨擘,而張廷玉必與於其中,今則閣老于敏中, 前翰林學士博明,亦皆見稱,而明則以其蒙人,故渠輩頗斥之.]

위의 기록에 우통(尤侗, 1618~1704)은 강남 장주(長洲: 江蘇 蘇州) 출신으로 1679년 박학홍유(博學鴻儒)로 추천받아 한림원검토(翰林院檢討)를 제수받고 명사(明史)의 편찬에 참여한 학자이다. 문집으로는 『서당전집(西堂全集)』이 있다. 호후(胡煦, 1653~1736)는 광산(光山) 남향점(南向店) 노호산(老虎山) 출신으로 주역(周易)에 조예가 깊은 학자이며 1716년 홍려사경(鴻臚寺卿)으로 발탁되었다. 문집으로는 『周易函書』 『釋經文』 『約圖』 『孔朱辨異』 『易學須知』 『篝燈約旨』 『葡法詳考』 『約注』 등이 있다. 장정옥(張廷玉, 1672~1755)은 안휘(安徽) 동성인(桐城人)으로 보화전대학사(保和殿大學士), 군기대신(軍機大臣), 태보(太保) 등을 역임한 학자이며 우민중(于敏中, 1714~1780)은 1737년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인물이다. 박명은 조선시대 여행기에 자주 나오는 인물로 조선선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몽골학자이다. 박명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자세

히 언급한 바 있는데 이갑의 기록은 그가 몽골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배척당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은 몽골인의 교역에 대한 부분으로 2건이 소개되어 있다.

【몽골인의 상거래】

외국과 물화를 거래하는 것은 모두 한계를 정해 구속을 받지만 몽골 상인들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한다.

[聞見雜記(下): 外國雖通物貨,俱有防限操切,而此則商賈互相往來無間.]

【몽골무역: 생산품과 교역】

몽골 지방의 생산물은 말과 가죽제품이고 대비달자(러시아)의 생산물은 유리거울과 가죽제품인데 아주 우수하다. 이리하여 달자들이 연경에 들어온 뒤로부터 가죽제품들이 비로소 싸졌다. 무릇 청인들은 비단제품 중 싼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팔고 우리나라 사람이 취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달자(러시아)에게 판다.

[聞見雜記(下): 蒙之地產,卽馬與皮物,而大鼻獐子物產之石鏡皮物尤佳,故獐子入燕而後,皮物始賤,而凡清人以疋緞品輕者,必售於我人,我人之所不取者,必賣於獐子,蓋蒙及獐子,蠢頑凶醜,全是禽獸,而獐子尤倍之.]

(6) 몽골동물

이갑의 여행기에는 몽골동물 중 낙타 2건, 말 1건, 몽골양(염소) 1건 등 모두 4건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의 낙타】

낙타는 염소 머리에 말 몸뚱이요 소 발굽에 노새 꼬리이다. 주둥이는 뾰족하고 목이 가늘며 털은 짙은 회색이고 높이는 한 길 남짓하다. 길이는 두 발이 넘는다. 등에는 육봉(肉峯)이 있는데 앞뒤로 붙쭉 솟아나서 안장 모양과 흡사하다. 물건을 실을 때에는 길마를 쓰지 않고 두 봉우리 사이

에 신는다. 힘이 말 3~4필만 하다. 걸음은 보폭이 넓다. 굽에 살이 많아서 돌길에는 불리하다고 한다. ... 낙타는 본래 몽골의 산물이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모조리 관외(關外)로 몰아내었기 때문에 낙타를 가지고 다니는 자는 전혀 없었다. 경사(京師)에 이르러야 간혹 있다.

[(1777년 12월 17일)駝則羔頭馬身牛蹄驪尾，喙尖項細，毛深灰色，高爲丈餘，長過二把，背有肉峯，前後突起，依然是鞍子形，凡馱物不用鞍，而載於兩峯間，力能兼三四馬，其步闊，而蹄多肉，不利於石路云 ... 聞見雜記(上))若駱駝則本是蒙產，而蒙人盡爲驅出於關外，故持駱駝而行者絕無，至京師始或有之.]

【심양장군(瀋陽將軍) 홍상(弘晌)의 행렬과 낙타】

처음에 23리가 되는 쌍양점(雙陽店)에서 머물러하였는데 마침 심양장군(瀋陽將軍)의 일행도 이곳에 들었다. 그래서 여관을 찾는 것 등 불편한 것이 많을 것 같아 그대로 전진하였다. [아까] 오는 길에 심양 장군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말을 타고 앞에서 달리는 자가 연속 끊어지지 않고 낙타를 타고 뒤따라오는 자도 많았다. 그 속에 한 대대(大隊)가 정열하고 오는데 일부는 창칼을 가졌고 일부는 깃발을 들고 있었다. 수염이 세고 나이는 60여 세쯤 되어 보이는 한 사람이 하얀 여우 가죽을 덮은 말을 타고 견마 잡이도 없이 왔는데 이 사람이 심양장군 홍상(弘晌)이라 한다. 장군과 추종자들의 옷 모습은 모두 똑같고 다만 모자 위의 산호정자(珊瑚頂子)와 공작(孔雀)의 깃으로 구별이 될 뿐이다. 또 한 사람 산호 정자를 단 자가 있어 고삐를 나란히 하고 온다. 이 자가 부도통(副都統)이라고들 하는데 꼭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앞에 늘어선 장수들과 추종자들이 매우 많아 앞뒤로 서로 이어졌는데 거의 5, 6백 인이나 된다. 영접하여 기다리는 관원들이 모두 나와서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 고관(高官)인 것을 알겠다. 들으니 도로를 조사하는 일로 산해관(山海關)까지 갔다 오는 것이라 한다.

[1778년 2월 24일: 初欲止宿於二十三里雙陽店，適值瀋陽將軍之行，店舍容接，自多不便，故仍爲前進，路逢瀋將之來，騎馬前驅者，連續不絕，後行囊韃者，其數亦衆，中有一大隊團束，而至或持戈劍，或持旗幟，一人鬚白，而年可六十餘，

被白狐裘,乘馬無牽而來,是爲瀋陽將軍弘晌云,將軍與趨從,皆是一也,只以其帽上珊瑚頂子及孔雀羽辨之矣,又有一人,懸珊瑚頂子者,并轡而來,是副都統云,未知信否也,前排之壯,趨率之盛,首尾相接,幾爲五六百人,迎候諸官,皆出待路上,可知爲高官也,聞以道路看檢事,出巡至山海關而還云.]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심양장군 홍상(弘晌, ?~1781)은 강희제의 태자였던 윤제(胤禔)의 12번째 아들이다. 청 종실로 원적은 만주 양람기(鑲藍旗)이다. 그는 건륭 2년(1737) 산질대신(散秩大臣)으로 삼등대위(三等待圍)를 제수 받았으며 이어 일등대위(一等待圍)로 승격되었다. 1748년에 양람기한군부도통(鑲藍旗漢軍副都統) 겸 양백기호군통령(鑲白旗護軍統領)이 되었으며 1765년에는 양황기몽골부도통(鑲黃旗蒙古副都統)이 되었다. 1766년에 쿠차(Kucha, 庫車)에 파견되었다가 1770년 1월 복주장군(福州將軍)으로 임명되었고 1773년 성경장군(盛京將軍=瀋陽將軍)이 되었다. 그는 심양장군으로 재임 중인 1778년 3월 한산종실(閑散宗室)을 대릉하(大凌河)목장으로 이주시켜 개간할 것을 바라는 상주를 올리기도 하였다. 1779년 수원성장군(綏遠城將軍)으로 임명되었으며 1781년에 사망하였다. 관리들의 직위를 나타내는 모자 위의 산호정자는 몽골어로 징스(jingse, жинс)라고 부르며 공작의 깃은 오투고(otuga, отго)라고 부른다.

【몽골말】

간밤 눈으로 길이 미쳐 열리지 못하여 더욱 길이 험하다. 길에서 호마(胡馬) 500필과 낙타 네 마리가 들[野]을 덮어 오는 것을 만났다. 멀리 바라볼 때는 양 떼 같았는데 앞에 가까워지니 장관이었다. 말은 모두 흰 빛이다. ... 모는 자가 4, 5인에 불과한데도 한 떼의 짐승들이 감히 달아나지 못하니 잘 길들여진 것을 알 수 있다. 듣건대, 모두 역마인데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분양하는 법과 비슷한 듯하다. ... 서번(西蕃: 티베트)의 말을 달마(獐馬)라 하고 몽골의 말을 몽마(蒙馬)라고 하는데 지금은 몽마·달마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여위고 또 드물다.

[(1777년 12월 17일)前夜一雪,未及開路,尤覺崎嶇,路逢五百胡馬,四頭羣駝,蔽野以來,遠望如羊羣,近前乃壯觀也,馬則皆是白色 ... 驅者不過四五人,而一

陣羣獸,無敢橫逸,其善御可知矣,聞皆是驛馬,而分養於各縣,似與我國分養之法一般也 … (聞見雜記(上))西藩之馬,謂之獐馬,蒙古之馬,謂之蒙馬,卽今毋論蒙獐馬,罷弊且稀.]

【몽골양(염소)】

[관소(館所)에 머물러 있을 때 삼사(三使) 및 원역(員役)의 일공(日供) 정사(正使)는 3일마다 몽골양 한 마리가 제공된다. 그리고 매일 양이 한 마리 제공되는데 이는 부사와 서장관 몫까지 같이 합친 것이다.

[1777년 12월 27일: 留館時,三使及員役日供 … [正使]每三日蒙古羊一隻,又每日羊共一隻,與副使·書狀同.]

(7) 청조와 몽골의 정치적 관계

대청제국은 만주인과 몽골인의 연합체제로 성립된 나라이다. 이갑의 여행기에도 이것을 입증해 주는 기록들이 청조의 통치구조 관련 6건, 몽골사절 및 지위 관련 4건, 만몽연혼사례 관련 3건, 기타 2건 등 모두 15건이 수록되어 있다.

청조의 통치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만주족의 근원과 중원지배의 논리와 통치방법 등 모두 6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륭제의 청조 중원지배 논리와 만주족의 근원】

[건륭]황제는 늘“나는 요나라나 금나라의 후손이 아닌데도 명나라 때에 세계(世系)를 잘못 만들어 전했다. 또 내가 중원에 들어와 주인이 된 것은 한나라와 당나라처럼 서로 침입하고 공격한 것과는 다르다. 오삼계(吳三桂)가 문을 열고 맞아들였기 때문에 천명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 일을 반드시 책으로 엮어 천하에 반포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시켜 지어 바치게 했는데 책이 너무 방대하여 어제 일이 끝날지 모른다고 한다. … 작년 가을에 건륭이 유조를 내려 [만주인의] 세대(世代)에 관하여 말하기를“우리 선조가 금나라와 같은 계열이라고 명나라 사람이 비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니 그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명나라 사직이 이미 망한 후 오삼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정당당하게 천하를 얻었다. 한(漢)·당(唐)·송(宋)·명(明)처럼 서로 침략하거나 정벌한 것이 아니다. 마땅히 [이런 사실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후세에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태학사 아계(阿桂) 등에게 조목을 나누어 편찬토록 명했다. [그리고] 직접 내용을 보고 고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언제 그 일이 끝날지 그 책이 몇 편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1778년 3월 29일: 皇帝以爲吾非遼金之後,明時誤傳世契,且吾之入主中原,自與漢,唐之相侵伐有異,吳三桂開門以迎,故順承天命,此事不可不撰出一冊,頒示天下,方使翰林學士製進,其冊浩多,訖工無期云矣 … (聞見雜記(下))前年秋,乾隆則下諭歷言世代,以爲其先與金同派,明人之詆毀者皆悞,不可不辨,且明社既移之後,爲吳三桂所迎入,得天下之堂堂正正,非如漢·唐·宋·明之或侵或伐,當爲一書,垂示後世云云,而令太學士阿桂等分條纂編,以待親覽釐正,不知何時訖役,其書當爲幾編.]

건륭제의 중원지배논리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언급은 이전에 서호수의 여행기에 수록된 청조 시조설화를 설명하면서 그 원인을 언급한 바 있다. 사실 만주인은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후예라고 간주해도 좋을 정도로 이전부터 만주 지역에 계승되어 온 문화나 전통을 고수해온 민족이다. 건륭 43년(1778)에 반포된 『흙정만주원류고(欽定滿洲源流考)』에는 특이하게도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거란과 고려의 고구려 후계 다툼과 같은 사태, 즉 조선과 여진 간에 고구려 적통을 둘러싼 정통성 논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 건륭의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역사적으로 침략과 정벌을 한 민족에 거란이나 금나라, 몽골 등 북방민족은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그들이 자신들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족과 북방민족은 서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는 숨겨진 역사인식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청조의 통치제도는 원대 통치방식의 계승이라는 이갑의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청대의 이원통치제도】

대개 연경의 모든 조치는 원나라는 금나라 것을 명나라는 원나라 것을 따랐을 뿐 순수하게 중화의 제도를 쓴 일이 없었다. 즉 화장(火葬)·숭불(崇佛)·음설불경(淫褻不經)한 일 같은 것을 조금도 고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옛 제도를 의논하는 선비들이 지금도 한스럽게 여기고 있다. 순치(順治)가 계승하여 호복으로 다 변혁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실제 명나라의 옛 법을 모두 준수하여 개혁한 것이 없었다. 만주의 제도가 간혹 그 속에 섞이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청인과 몽골인에게만 해당되었고 중국과는 관계가 없었다.

[聞見雜記(下): 大抵燕京措置,元因於金,明因於元,未嘗純用華制,如火葬崇佛淫褻不經之事,多未釐革,故尚論之士,至今追恨,順治承之,雖不能盡變胡服,而明朝舊章則實皆遵行,無所改易,滿州之制,雖或雜於其間,此則獨用於清人及蒙古,而無與於中國.]

【청대의 원대 통치제도 활용】

순치(順治)가 만든 통치제도를 보면 천하를 통치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제가 오랑캐라 하여 업신여길 수 없을 정도이다. 즉위 초에 절의를 표창하고 효행을 정표(旌表)하며, 늙은이를 보살피고 어린이를 구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선 과거의 규정을 만들어 공사(貢士)를 뽑아 쓰며, 대학[辟雍]에 친림하여 선사(先師)에게 예를 드렸다. 또 역대 제왕의 사당에 제사하고, 각성(各省)의 제왕의 능과 대소 사전(大小祀典)·악장(樂章)·법률을 개수하도록 명했으며, 한족을 내외 관직에 배치하기를 모두 예전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문부(文簿)를 만들어 행하는 것만은 반드시 만주인 관원을 두어 주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각 그 풍속에 따라 몽골의 통치는 이번원, 만주의 통치는 내무부에서 관장하였으며 증원은 모두 한법(漢法)에 따라 통치했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곳에서는 반드시 원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도리어 그 권한을 빼앗았다.

[聞見雜記(下): 蓋觀順治之開闢規模,其所統攝九州,治成制定者,不可以夷狄而忽之,即位之初,獎節旌孝,養老恤幼,首定科規,選用貢士,親臨辟雍,以禮先

師,致祭歷代帝王廟,命修各省帝王陵,大小祀典及樂章法律,漢人則布列於內外官次,悉如舊例,而只令奉行文簿,每衙門必置滿官,使主其事,雖自以爲各因其俗,而制治蒙古,屬理藩院,滿州屬內務府,中原則治之皆倣漢法,而其實則繁處亦必以元制參用,反奪其權.]

위의 두 기록은 조선선비의 눈에도 청조의 통치가 만주와 몽골을 한 묶음, 한쪽을 한 묶음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당시의 조선 지배층이 원나라의 민족정책이나 통치체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청나라가 명나라와 특이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통치체제도 만·몽 연합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갑의 대청제국 통치체도의 인식은 마치 청나라가 원나라의 정신적 계승국인 것처럼 역사적으로 원나라가 없으면 청나라도 없다는 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인과 몽골인의 관직은 동등하다】

서양인 약간이 흠천감(欽天監)에 예속되어 역법을 맡고 있지만 그 밖의 외국인으로 관직을 받은 자는 없다. 그러나 몽골인들의 관직은 만주인과 같다.

[聞見雜記(下): 西洋人若干,雖隸於欽天監,以修曆法,而其餘則外夷無入仕者,此則仕宦與滿州同.]

위의 기록 역시 만·몽 연합통치체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언급되는 종인부 역시 만주인과 몽골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직들이다.

【종인부(宗人府)】

종인부는 곧 우리나라의 종친부이다. 순치 초년에 설치하여 화석친왕(和碩親王) 또는 다라군왕(多羅郡王)으로 부(府)의 일을 총령(總領)케 하고, 다라패륵(多羅貝勒)으로 좌종정(左宗正)을 삼았으며, 고산패자(固山貝子)로 우종정(右宗正)을 삼았다. 그리고 진국공(鎮國公)으로 좌우종인(左右

宗人)을 삼아 황족의 속적(屬籍)을 관장케 한다. 1등은 화석친왕(和碩親王), 2등은 다라군왕(多羅郡王), 3등은 다라패륵(多羅貝勒), 4등은 고산패자(固山貝子), 5등은 진국공(鎭國公), 6등은 보국공(輔國公)이다. 7등은 진국장군(鎭國將軍)인데 이는 황제의 서비(庶妃)의 소생이다. 8등은 보국장군(輔國將軍)인데 친왕의 측실(側室)의 소생이고, 9등은 봉국장군(奉國將軍)인데 군왕의 측실 소생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종실인데, 큰아들은 다 작위를 계승하고 다른 자식들은 처음 봉할 때 모두 강등하였다가 뒤에 가봉(加封)을 만나면 차차로 승봉하여 1등에 이른다. 제종(諸宗)은 매월 세 차례 조회하고, 봄가을 두 계절(季月)에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익힌다. 응정 초년에는 따로 종학(宗學)을 세워 제종(諸宗)을 교훈하였다. 중궁(中宮)의 딸은 고륜공주(固倫公主)이고, 서비(庶妃)의 소생은 화석공주(和碩公主)이다. 친왕의 딸은 화석格格(和碩格格)인데 뒤에 군주(郡主)라 칭하였다. 군왕(郡王)의 딸은 다라格格(多羅格格)으로 뒤에 현주(縣主)라 칭하였다. 패자(貝子)의 딸은 고산格格(固山格格)인데 뒤에 현군(縣君)이라 칭하였다. 공(公)의 딸은 공격格格(公格格)인데 후에 향군(鄉君)이라 칭하였다. 그 뒤 패륵(貝勒)의 딸 다라格格은 다시 군군(郡君)으로 칭하였다.

[聞見雜記(下): 宗人府,即我國宗親府,順治初設置,以和碩親王或多羅郡王,總領府事,多羅貝勒爲左宗正,固山貝子爲右宗正,鎭國公爲左右宗人掌皇族之屬籍,一等爲和碩親王,二等爲多羅郡王,三等爲多羅貝勒,四等爲固山貝子,五等爲鎭國公,六等爲輔國公,七等爲鎭國將軍,即皇帝庶妃所生,八等爲輔國將軍,即親王側室所生,九等爲奉國將軍,即郡王側室所生,其餘俱爲宗室,長子皆襲爵,諸子初封皆降等,後遇加封則次次陞封至一等,諸宗每月三次上朝,春秋二季,習騎射,雍正初,命別立宗學,教訓諸宗,中宮女爲固倫公主,庶妃所生爲和碩公主,親王女爲和碩格格,後稱郡主,郡主女爲多羅格格,後稱縣主,貝子女爲固山格格,後稱縣君,公之女爲公格格,後稱鄉君,其後貝勒女多羅格格則更稱以郡君.]

【연합지배체제 내의 만주인과 몽골인의 자체 구별】

대개 귀부한 몽골은 그 인구가 본래 적지만 대접은 만주와 차별이 없다.

… 그러나 그중에도 한계는 존재하는데 그들 역시 자기 종족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청인과 한인이 끝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몽골인들도 청인과는 스스로 구별하고 있다.

[聞見雜記(下): 蓋歸服之蒙古,其種本少,而待之與滿州無別 … 而實則其中
 煞有界限,渠輩亦各從其類,有若清漢之終不相混,其爲人與清人自別.]

위의 기록은 대청제국의 성격이 만주인과 몽골인의 연합정권이지만 내부적으로 만주인과 몽골인 사이에는 역시 민족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찰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뒤에 언급되는 【몽골 영주의 지위】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다음은 몽골사절 및 지위에 대한 부분으로 모두 4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 영주의 지위】

그 나라는 북경에서 3000리 떨어져 있는데 낙타를 타면 한 달 만에 북경에 도달한다고 한다. 그 [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거리에 나오면 별로위의(威儀)가 없어 청인들은 모두 말을 달려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몽골 사람들은 바라보고 모두 말에서 내리니 그들 중에도 품급이 있는 것 같다.

[聞見雜記(下): 本國距京三千里,乘橐駝行一月始到京云,其王子乘馬出街,別無威儀,清人則皆馳馬掠過,蒙人則望見輒皆下馬,渠中則似有等威矣.]

【청조의 사신단 접대부서】

대개 조공을 바치는 사신단이 북경에 이르면 회동관(會同館)이 예부에 보고한다. 그러면 제독(提督) 및 그 관의 관원이 나와서 감사한 뒤 담당관을 나누어 배정하여 위로 올리는 주문(奏聞)을 주관케 한다. 이후 공물은 내무부에 교부하고, 코끼리는 난의위(鑾儀衛)에, 말은 상사원(上駟院)에, 요도(腰刀)·피물(皮物)은 무비원(武備院)에, 유향은 위의 제독(提督)에게 교부한다. 대개 여러 나라의 사신 접대에 쓰이는 돼지·오리·닭·생선

· 곡수 · 채소 · 과실 · 꿀 · 기름 · 소금 · 초 · 장 · 술 등은 예부에서 광록시(光祿寺)에 글을 보내 가져다 쓴다.

[聞見雜記(下): 凡貢使到京,會同館呈報禮部,提督及該管司官,赴管查驗,分撥員役,管領該部奏聞,貢物交進內務府,象交鑾儀衛,馬交上駟院,腰刀皮物交武備院,疏黃交該提督,凡接待諸國使臣之猪羊鵝鷄魚麪菜蔬果品黃蠟油鹽醋醬酒等物,禮部移文光祿寺取用.]

【새해의 의례와 몽골 · 조선사절단】

[새해의 의례]홍려시(鴻臚寺) 관원이 왕 · 패륵 · 패자 · 공 등을 태화전 앞 단지 안에 인도하여 나누어 배립시키고, 조선 · 몽골 등의 사신을 인도하여 액문(掖門)을 경유, 서반(西班) 끝에 세운다. ... 홍려시관이 조선 등 여러 나라의 사신을 인도하고, 이번원이 몽골 사신을 인도하여 차례로 각각 순서에 따라 삼례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를 행한다. 교방사는 단폐대악(丹陛大樂)으로 치평장(治平章)을 연주한다. 예가 끝나면 음악이 그친다. 물러가라고 알리면 왕 이하 각관이 모두 물러간다.

[聞見雜記(上): 鴻臚寺官引王貝勒子公等,於太和殿前丹墀內分翼排立,引朝鮮蒙古諸使臣,由掖門入於西班末立 ... 鴻臚寺官引朝鮮等國使臣,理藩院引蒙古使臣,以次各就拜位,行三跪九叩頭之禮,教坊司作丹陛大樂,奏治平之章,禮畢樂止,贊退,王以下各官皆退.]

【몽골사절의 지위: 조선보다 높다】

명나라 이래로 우리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 여러 나라와는 아주 달랐다. 청나라 사람도 역시 그 예를 인습하여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언제나 왕래하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부인 유아라도 이목에 익어서 저 사람들은 우리 보기를 한나라 사람과 같이 한다. 멀고 가까운 여러 번국 중에 오직 우리나라만이 매년 진공(進貢)하여 지성으로 섬기고 또 저희들의 사는 곳과 인접해 있으니 대접하는 도리가 친후(親厚)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약한 나라로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도리어 몽골달자(蒙古韃子)만도 못하다.

[聞見雜記(下): 明朝以來,接待我使,迥異諸國,清人亦襲其例,冠蓋織路,我人尋常往來,故雖道路婦孺,耳目稔熟,彼之視我,便同一國之人,遠近諸藩中,惟我國連年進貢,至誠事大,且隣於渠之巢穴,則見待之道,宜其親厚,而然然畜之以弱國,其所畏憚,反不如蒙古獐子.]

조선의 통치계층들은 대청제국을 무시하면서도 사신단의 대열에서는 항상 선두에 서기를 원하며 또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서호수 등 많은 여행기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사신은 서열 상 몽골사신의 뒤에 위치하며 대접도 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음은 만주족과 몽골족의 연합통치체제를 상징하는 만·몽 연혼정책 부분으로 모두 3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3건 중 제14왕 윤정의 몽골부인 목순공주(穆順公主)에 관한 부분은 이갑이 여행기에만 실려 있는 매우 흥미진진한 기록이다.

【연혼정책의 대상】

[청조는 만주인에게] 중국 사람과 외번 색목인과의 혼인은 엄금한다. [그러나] 이들(몽골)과는 서로 혼인한다.

[聞見雜記(下): 中國之人,與外番色目人,爲婚者,雖嚴禁,而此則昏媾相通.]

【몽골로 시집가는 만주공주】

강희 때로부터 점점 친근한 뜻을 보여 딸을 낳으면 반드시 시집보낸다. 또 종왕, 친왕의 딸도 양공주(養公主)라 이름 붙여 시집보내는데 은과 비단, 소와 말을 많이 보내주었다. 그런데 거처와 음식이 중국과 판이하기 때문에, 처음 시집가면 청인들이 모두 가서 집을 지어 주고 살게 해도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살기를 싫어하다가도 오래되면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오라고 청해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한다. 존귀한 황제로서 그들과 친호(親好)함이 이와 같고 또 고관대작으로 그들을 묶어 놓고 있으니, 속으로 두려워하며 밖으로는 은의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聞見雜記(下): 自康熙時,漸示親近之意,凡生女,必嫁與之,又以宗親王女嫁

之,名曰養公主,銀緞牛馬資送甚多,蓋居處飲食,與中國絕異,其始到也,清人皆爲之往營其室廬以居之,猶涕泣不已,久則安之如素,雖請之,亦不頻頻往來云,以皇帝之尊,結好於醜種如此,又糜以高官大爵,豈非內實畏懼,而外示恩意耶.]

【옹정제 제왕의 당 사건: 제14왕 윤정의 몽골부인 목순공주(穆順公主)】
 옹정(雍正)은 강희(康熙)의 넷째 아들로 이름은 윤정(允禛)이고 무오생(戊午生)이다. 강희는 아들이 매우 많다. 덕비(德妃)가 낳은 두 아들 중 첫째가 옹정(雍正)인데 [강희의 아들 중] 출생순위는 4번째이다. 그 다음이 제 14왕 윤진(允禛)인데 대장군으로 서달(西撻)에 출정하였다. 옹정(雍正)은 덕망이 조금도 없었다. 윤진은 군사를 데리고 밖에 있으면서 여러 번 큰 공을 세워 대중의 마음이 모두 그에게 있었다. 강희(康熙)가 죽은 뒤 대신이 유조(遺詔)라 칭하고 윤정(允禛)을 옹립하니 의혹이 많았다. 그 유조에는“네 번째 왕인 윤정에게 전위한다(傳于四王允禛)”고 적혀있다.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기를‘우(于)’자는 본래‘십(十)’자였는데 그 위에 한 획을 꾸며 더한 것이고‘윤진(允禛)’의 ‘진(眞)’자 윗머리의‘십(十)’자를‘복(卜)’자로 고친 것이라 했다. 14왕 윤진의 지위와 형세는 매우 위태로웠고 시기와 의심이 가장 많이 받았다. 때문에 [옹정이] 즉위하자 곧 소환되었다. 강희(康熙)의 상례에 참가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덕비와 서로 보는 길도 끊어 재앙의 빛이 곧 나올 듯하였다. 이에 덕비가 젖을 내놓고 스스로 때리며 통곡하기를“너희 형제가 함께 이 젖을 먹고 컸는데 어찌서 이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머리로 쇠기둥을 들이받고 죽었다. 그리하여 모두 말하기를‘어머니를 꺾박해 죽었다’고 하였다. ... 그리고 황고(皇考)께서 돌아가셨을 때 윤제(允禩=允禛)가 서녕(西寧)에서 와서 태후와 짐을 보지 않고 먼저 북경으로 가서 행례를 행한 뜻과 짐의 앞에 와서는 또 털끝만치도 슬퍼하는 빛이 없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그가 상주했는데 그 속에 “나는 머나먼 변방 지방에 가 있으므로 몸이 병들어 세상에 있을 날이 오래지 않다며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대개 옹정(雍正)이 가장 꺼리는 것은 14왕인데 그 죄상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못하는 것이 없었다. 심지어는 길가에 방을 붙이기까지 하였으나 끝내 도륙

을 가하지 않고 다만 가두어 두기만 하였다. 그 까닭은 알 수가 없다. 혹은 말하기를“윤진의 아내는 몽골 무이타왕(無耳朶王)의 딸 목순공주(穆順公主)인데 극히 용감하고 날래며 전투에 능했다. 윤진이 서녕(西寧)에 있을 때 일찍이 몽골 지방으로 사냥 갔다가 졸지에 공주를 만나 싸우다가 사로잡혔다. 몽골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목순(穆順)이 결혼을 하고자 하였다. 윤진이 아버지의 명령이 없으므로 사양하니 몽골왕은 드디어 강희에게 청하여 그를 아내를 삼게 하였다. 그가 낳은 자식 역시 매우 사납고 용맹하였다. 윤진이 옹정에게 잡혀 갇힌 뒤 목순은 크게 노한 나머지 청나라와 관계를 끊었다. 옹정이 실은 목순 모자와 몽골왕의 원조가 있을 것을 꺼려서 감히 해를 가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윤진뿐 아니라 다른 제왕도 모두 죄를 씌워 가두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다. 이는 어질지 않다는 평판을 면하고자 함이었던 것이다. 이상이 옹정이 즉위한 뒤 제왕과 대신을 다스린 대략이다.

[聞見雜記(下): 雍正,即康熙之第四子,其名允禎,戊午生,康熙諸子甚多,而德妃生二子,長即雍正,序居四,其次即十四王允禩,以大將軍出征西陲,雍正少無德望,允禩擁兵在外,屢建大功,衆心咸屬,而康熙死,二三大臣稱以遺詔,擁立允禩,物情多惑,其遺詔曰,傳于四王允禩,人皆疑之,以于字本是十字,而矯加一畫於其上,允禩之眞字上頭十字,改作卜字,十四王地勢甚逼,最見猜疑,故嗣位之初,即爲召還,而使不得入臨於康熙之喪,亦絕德妃相見之路,禍色甚急,德妃露乳,自打而哭曰,汝兄弟共飲此乳而長大,今何相陌至此耶,因觸頭於鐵柱而死,於是皆謂逼殺母妃,…皇考賓天,允禩從西寧來,不見太后及朕,先問到京行禮儀註,及至朕前毫無哀戚之容,其奏中有曰,我到地盡頭之處,一身已病,在世不久,多出怨語 … 蓋雍正之所最忌者十四王也,暴揚其罪狀,無所不至,至榜於街路,而終不加顯戮,只令幽囚,未知其故也,或曰,允禩之妻,即蒙古無耳朶王之女穆順公主,極驍勇善戰,允禩在西時,嘗獵蒙古地方,猝遇公主,與戰被擒,蒙王將殺之,穆順欲與成婚,允禩以無父命辭之,蒙王遂請於康熙而爲其妻,生■亦甚梟猛,允禩被囚後,穆順大怒,遂絕於清,雍正實忌穆順母子及蒙王之助,不敢加害云,然非但允禩,其他諸王亦皆數罪囚繫,而未見有戕殺者,蓋其意欲免不仁之目也,此乃雍正即位後,諸王大臣按治之大畧矣.]

위의 기록은 옹정의 즉위비밀과 그로 인해 야기된 제왕의 당 사건을 기술한 부분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갑은 옹정제의 이름과 제14왕의 이름을 뒤바꿔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덕비(德妃, 1660~1723)의 질책과 죽음에 이르는 부분, 윤정의 몽골부인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덕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덕비는 만주 정황기(正黃旗)인으로 성은 오아씨(烏雅氏)이며 호군참령(護軍參領) 위무(威武)의 딸이다. 그가 강희제에 출가하여 윤진을 낳은 시기는 19세 때인 1678년이다. 그러나 당시 그녀의 지위는 궁녀에 불과했기 때문에 윤진은 황귀비(皇貴妃)인 동가씨(佟佳氏=孝懿仁皇后)에게 보내져 양육되었다. 그녀는 1679년 덕빈(德嬪)으로 봉해졌으며 1681년에 덕비(德妃)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723년 9월 승하 후 효공인황후(孝恭仁皇后)로 봉해졌다. 덕비의 죽음에 대해서 이갑은 무언가의 전문(傳聞)에 의거한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인은 분명치 않다.[※ 참고로 덕비의 젓가슴 운운 질책이 허엘룬이 칭기스칸과 카사르의 불화 시 행했던 질책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말이 북방사회에서 형제간의 불화를 질책할 때 쓰는 상용어인지 모르며 만약 상용어가 아니고 진실도 아니라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인물은 고대 몽골의 史話을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허엘룬의 테무진 질책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비사』제 244절 : “칭기스칸이 카사르의 소매를 묶고 모자와 허리띠를 뺀 [뒤 카사르의] 말을 심문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도착했다. [어머니가 도착하자] 칭기스칸은 놀라 어머니를 무서워했다. 어머니는 노기에 차 도착한 [뒤] 달구지에서 내려 스스로 카사르를 묶은 소매를 풀고 모자와 허리띠를 카사르에게 주었다. 어머니는 노기에 차 스스로 노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세리 의자에 앉아 자기의 두 유방을 꺼내 두 무릎 위에 놓은 뒤 말하기를 “보이는가. 이것이 너희들이 빨았던 유방이다. 너희들은 물어뜯고 있는 [즉] 자기의 태를 물어뜯고 자기의 배꼽을 자르는 [자와 같은 망종들이다!](Chinggis-Khagan Khasar-un khanchud huyaju makhalai, büse inu abchu üge inu asagun бүкүү-дүр eke-de күртежү Chinggis-Khagan geyegchü eke-deche emi’ebe. eke a’urlaju күрчү терген-eche ba’u’ad eke ö’esün Khasar-un

huyagsad khanchud dalju talbi'ad makhalai, büse inu Khasar-a ögchü eke kilnglaju a'ur-iyar darun yadan jabilan sa'uju khoyar kököd-iyen gargaju khoyar ebüdüg dege'ün bisari'ulju ügülerün üjebei-ü, Kökögsen köken tanu ene büi, ede khadarun da'un kharbisu-'an khajagsad, küyi-yen tasulugsad]).

다음에 주목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윤정의 몽골부인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윤정은 몽골부인이 없다. 윤정은 5명의 부인으로부터 모두 11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것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윤정의 부인과 자식

No	지위	출신부	자식	비고	
1	嫡福晉	完顏氏	弘明(1705-1767)		
			弘暉(1707-1758)		
2	側福晉	舒舒覺羅氏	弘春(1703-1739)		
			郡主(1705-1729)		1719년 喀爾沁貝子 僧袞紮普에게 출가
			縣君(1706-1761)		1727년 那穆都魯氏 哈祿에게 출가
			郡主(1707-1776)		1727년 사인노얀칸부 부속 厄魯特前旗 多羅郡王 色蔔騰旺布(Sebtenvanbu)에게 출가
3	側福晉	伊爾根覺羅氏	弘映(1707-1771)		
			無名(1705-1706)		
			縣主(1706-1773)		1729년 敖漢旗 博爾濟吉特氏 四等台吉 德綬에게 출가
4	庶福晉	伊爾根覺羅氏	縣主(1753-1767)	鈕鈺祿氏 額爾登額에게 출가 예정이나 출가 전 사위사망으로 수절	
5	妾	吳氏	無名(1737-1741)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목순공주(穆順公主)는 몽골어로 얼음공주(mösün gūngjü, мөсөн гүнж)라는 뜻이며 귀가 없다는 무이타왕(無耳朶王)은 몽골어로

sonur-ügei(соноргүй), khubu(хув), khulugar chikintai(хулгар чихтэй), chikin-ügei(чихэнгүй)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왕이나 태자를 뜻하는 tayji(тайж)가 붙은 결합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 인물들은 문헌에서 고증할 수 없다. 따라서 귀 없는 몽골왕과 얼음공주의 이야기는 역시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윤정의 자식 중 이 스토리와 연관될 수 있는 인물로는 1727년 사인노안칸부의 부속기인 오이라드 전기 도로이-군왕인 셉텐반부(Sebtenvanbu)가 유일하다. 즉 완전한 가공의 스토리는 아닌 셈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그럴싸하게 꾸며진 가공의 스토리에 불과하지만 몽골사정에 어두운 조선사신단에게는 사실 그 진위를 판별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몽골 정보를 구입하는 조선 사신단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청조의 통치제도와 연관된 글자의 금기나 정권에 관계된 유언비어 등 기타 항목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갑은 박지원의 수집한 황화요(黃花謠)처럼 청나라와 관계된 몽골의 유언비어를 채집하지는 못했지만 명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동요는 수집하고 있다. 원래 유언비어는 민심의 흐름과 정치적 정세변동을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스파이들에게 관심이 높은 대상이기도 하다. 이는 주자학을 신봉하고 있는 조선이 선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주인의 글자 금기】

청인이 꺼리는 것이 무슨 글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사(死)·종(終) 등의 글자를 몹시 꺼린다. 그러므로 연종(年終)의 종(終) 자를 반드시 문자에는 연말(年末)로 고쳐 쓰고, 옹정의 생일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감히 사(死) 자를 말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또 축원·기송(祈頌)에 갖은 방법을 다하여 칭송하지 않음이 없으며 처마에도 반드시 송도(頌禱)하는 글을 적는데 복(福)·녹(祿) 등의 글자는 어느 곳이나 다 쓴다. 그래서 기명(器皿)·음식·관곽(棺槨)의 위에까지도 두루 쓰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것도 또한 원나라·명나라의 유풍인지 모른다. 명나라 말년에 침적(闖賊)이 복왕(福王)을 죽이고 그 피를 사슴의 피에 타서 장사들에게 먹이면서 이름을 복록주(福祿酒)라 하였고, 유적(流賊)을 죽였을

때에도 이런 글자를 썼으니 참혹한 일이다.

[聞見雜記(上): 清人則所忌者雖未的知某某字,而蓋聞死終等字深諱之,故年終之終字,必於文字間改書以年末,雍正之生日在十月,故是時則不敢言死字云,且祝願祈頌之道,亦無不用其極,門楣必題頌禱之辭,如福祿等字,到處皆用,至於器皿飲食及棺槨之上,無不遍書,此亦元明遺風耶,明末闖賊殺福王,取其血而以鹿血和之,聚飲將士,名曰福祿酒,流賊屠殺之際,亦用此等字慘矣.]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침적(闖賊)이나 유적(流賊)은 명말 이자성(李自成, 1606~1645)이나 장헌충(張獻忠, 1606~1646) 등이 이끄는 농민반란군에 대한 멸칭(蔑稱)이지만 여기서는 이자성을 지칭한다. 이자성은 섬서성(陝西省)의 빈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역졸(驛卒)에 복무하다가 1631년 섬서 연수(延綏)지방의 기근을 기회로 봉기하여 틈적(闖賊)의 수령이 되어 틈장(闖將)을 자칭하였다. 그는 일시 명군에게 패배했지만 1640년 사천(四川)에서 다시 재기하여 종래의 유적성(流賊性)을 버리고 균전(均田)과 면세(免稅)를 내세우며 농민의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기반구축을 통해 그는 수만의 정예군을 양성하는데 성공했으며 백성들로부터 틈왕(闖王)이란 칭호도 얻었다. 그는 1641년 1월 낙양을 공격하여 그곳에서 탐욕과 주색잡기로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던 복왕(福王) 주상순(朱常洵, 1586~1641)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1월 20일 후원(後園)에서 7~8 마리의 사슴을 끌어내 복왕과 함께 큰 술에 삶아 병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 연회를 복록연(福祿宴 = 福祿(鹿)宴)이라 불렀다. 이후 그는 북경을 공격하여 1644년 3월 19일 숭정제(崇禎帝)가 매산(煤山)에서 목을 매고 자살케 함으로써 명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듬해 오삼계(吳三桂)를 선도로 하는 청군(淸軍)에 패하여 호북(湖北)에서 자살하였다. 복록연(福祿宴)의 주인공인 주상순(朱常洵)은 신종(神宗)의 세 번째 아들로 1601년 복왕(福王)으로 봉해졌다. 그의 아들이 남명(南明)의 홍광제(弘光帝)인 주유송(朱由崧, 1607~1646)으로 1645년 청군의 남경(南京) 공격 때 사로잡혀 1646년 북경(北京)에서 피살되었다.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복록주(福祿酒)는 『명사』 「이자성전」에 실려 있는 “낙양성이 함락되자 복왕 주상순도 해를 입었다. 이자성의 병사들은 주상순의 피와

사슴의 피를 섞어 맛보았는데 그것을 복록주라고 불렀다.”(『明史』「李自成傳」: “[洛陽]城遂陷,福王常洵遇害,[李]自成兵[朱常]洵王血,雜鹿醢嘗之,名福祿酒”)라는 대목에 출처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86년 하남(河南) 맹진(孟津) 남마둔향(南麻屯鄉) 묘괴촌(廟槐村)에서 주상순묘지(朱常洵墓志)가 출토되어 『명사』에 기록된 복록연이나 복록주의 존재는 이자성군의 난폭함을 과장하기 위해 꾸며낸 전설이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나라 멸망의 동요】

명나라 말년에 동요가 있었는데 ‘소매 위에서 말이 달리고 입 속에서 연기가 나는 자가 천자가 된다’고 하였다. 청인의 의복은 소매가에 모두 말발굽 형상을 만들고, 담배를 피우기 좋아하기 때문에 입 속에서 과연 연기를 낸다. 그래서 비결이 맞았다고 한다. 지금 노구교(蘆溝橋)의 삼문(三門)이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모두 맞았기 때문에, 태극문(太極門)을 장래의 비결로 삼는다 하는데 혹 그러할는지 모르겠다.

[聞見雜記(上): 明季有童謠曰,袖上走馬,口中生烟者爲天子,清人衣服袖口,皆作馬蹄形,喜吸南草,故口中果能生烟,其讖乃驗云,今以蘆溝橋三門,大明大清皆符,故以大極門爲將來之讖云,豈或然耶.]

(8) 몽골팔기(八旗)와 맹기제도(盟旗制度)

몽골팔기와 맹기제도는 만주족과 몽골을 하나로 이어주는 군사시스템이자 행정조직이다. 이갑의 여행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으로 맹기제도 10건, 몽골관료와 이번원 5건, 기타 1건 등 모두 16건이 수록되어 있다. 몽골의 팔기제도나 이번원의 설치나 조직, 관작 및 품급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언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두 설명을 생략한다.

먼저 맹기제도 10건부터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청대의 몽골방어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형세는 또 이것과 반대이다. 영고탑과 심양을 저희들의 중

심지로 믿고 우리 동방은 내지로 취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한 나라로 간주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그들 스스로 동북은 다시 다른 걱정이 없다고 여겨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지를 고치지도 않는다. 비록 [방비할] 뜻이 있다고도 말해지나 방어는 아주 소략하다. 영고(寧古)와 오랄(烏喇)에는 주둔한 군사가 아주 적다. 심양에서 관할하는 군사도 3000명에 지나지 않으며, 산해관은 수백 명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성지에는 갑군(甲軍) 수천 명을 두어서 장경(章京)과 성수위(城守尉)의 부름에 대비할 뿐인데 더러는 역참(驛站)의 장정 수만큼도 못하다.

[聞見雜記(上): 然今之形勢則又反於是,寧古·瀋陽特作渠之心腹,我東則非但待之如內服,自是弱國,視之若無,自以爲東北則更無他虞,全然拋棄,城池之不修,雖曰有意,而防守之道,亦甚疏虞,寧古烏喇宿兵甚少,瀋陽所管兵不過三千,山海關不過數百,其餘城池則不過置甲軍數千,名以備章京及城守尉使喚而已,或不如驛站壯丁之數矣.]

위의 기록은 동양사에서 가장 민감한 지대였던 동몽골 및 만주가 청조에 들어와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이 지역이 바로 청나라 맹기제도의 기본 근거지역이기도 하다. 이갑의 기록은 당시 청조가 조선을 미래의 적으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몽골인과 만주인은 팔기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팔기제도의 선임규정과 각종의 차역(差役)도 청인과 똑같다. ... 남자는 귀천을 물론하고 거의 다 기(旗)에 속한다. 정예한 자는 모두 병적에 예속되며 노약자는 모두 나라의 부역에 종사한다. 각기(各旗)에 만일 인원수의 결원이 있으면 반드시 같은 기에 소속한 사람을 뽑아 올려 보충한다. 그리고 대대로 승계토록 하여 혼잡을 막는다.

[聞見雜記(下): 八旗之制,選任之規,各項差役,一如清人 ... 凡男丁勿論賤,大半屬於旗下,精銳皆隸兵籍,老弱皆服國役,各旗若有闕額,則必以共同旗所屬人陞補之,世世相襲,毋得混雜.]

【팔기의 색깔과 황제 친위군】

팔기제도는 정람기(正藍旗)·남기남상(藍旗藍裳), 정홍기(正紅旗)·홍기홍상(紅旗紅裳), 정황기(正黃旗)·황기황상(黃旗黃裳), 정백기(正白旗)·백기백상(白旗白裳)인데, 네 색깔에 또한 각각 태두리가 있으니 이것이 사양(四鑲)이다. 사색(四色)의 기(旗)는 사방(四方)을 본 따 만든 것이다. 기독(旗纛)도 본기색(本旗色)을 따른다. 상삼기(上三旗)는 천자(天子)의 친위군인데 내무부에서 관할한다. 하오기(下五旗)는 제왕에게 나누어 예속시킨다.

[聞見雜記(下): 凡八旗之制,正藍旗藍旗藍裳,正紅旗紅旗紅裳,正黃旗黃旗黃裳,正白旗白旗白裳,四色亦各有鑲,是爲四鑲,蓋以四色之旗,應四方而設也,旗纛亦照本旗色,上三旗,即天子親軍,管於內務府都虞司,下五旗,分隸諸王.]

【팔기의 지휘통솔체제】

매기(每旗)에는 각각 도통(都統)·부도통(副都統)·장경(章京)·효기(驍騎)·발집(撥什) 등 관원을 두어 위아래가 서로 통솔되고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유지된다. 그것을 합하면 중외(中外)의 여러 군대가 한 장수에게 통솔되고 나누면 한 장교가 거느리는 것이 각각 부곡(部曲)이 된다. 군사를 따로 징발할 일이 있으면 따로 대장(大將)을 정하여 각기(各旗)의 병정을 조달하여 예속시킨다. 일이 끝나면 그 군사는 다시 본기(本旗)로 돌아간다. 명나라 초년의 군제는 오도독부(五都督府)가 병적(兵籍)을 관장했으나 징발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고, 병부(兵部)는 징발을 관장하나 병을 통솔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병권을 독점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중엽 이후로는 여러 번 변경하여 홍무(洪武) 때 정한 제도를 준수하지 못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의 법은 그 교훈에서 뜻을 얻은 것 같다.

[聞見雜記(下): “每旗,各設都統·副都統·章京·驍騎·撥什等官,使之上下相統,大小互維,合之則中外諸軍,統於一將,分之則一校所領,各爲部曲,如有發兵之事,別定大將,調取各旗兵丁以屬之,罷還則其兵復歸本旗,按明初軍制,五都督府,雖掌兵籍,不得與於調發,兵部雖得調發,亦不得與於治兵者,所以戒專

戎也,中葉以後,屢致變更,洪武定制,不能遵守,而清人此法,似得其遺意矣.]

이같은 팔기제도의 병적관리나 병권 등에 대해서 명나라의 제도를 참조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 청조의 팔기제도는 원나라의 군제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 많다. 필자는 팔기제도의 시스템이 군사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하나로 접목된 몽골제국의 군사시스템인 아오로그(A'urug)와 매우 유사한데 주목하고 있다. 아오로그 제도는 군대유지 및 병사의 조달에 국가의 돈이 안 들어가는 혁신적인 군사시스템으로 몽골특유의 열린 군사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어거데이칸 때에는 한군(漢軍)에게도 확대 시행되었으며 코빌라이카간 때에는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아오로치(A'urugchi, 輿魯赤)를 둘만큼 중시되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연관성에 대해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팔기의 급여】

사방에서 관리로 있는 자로 본적지에 돌아올 힘이 없으면 모두 여비를 주어 본토로 귀환시켜 살게 한다. 오직 각 기(旗)의 인원과 봉천판적(奉天版籍)인 자는 모두 기한을 정하여 돌아가도록 한다. 8기의 군사들에게는 매달 초하루에 은(銀) 3냥을 준다.

[聞見雜記(下): 凡宦於四方者,無力回籍,則皆許給盤纏,安押於其土,惟各旗人員及身隸奉天版籍者,皆定限催回,八旗諸軍,每朔給銀三兩.]

【경성팔기】

대개 경성(京城)에 항상 주둔하는 군사가 3만인데 모두 팔기에 속하며 5성(城)을 나누어 분장한다.

[聞見雜記(上): 蓋京城恒留兵三萬,皆屬八旗,分掌五城.]

【한군팔기】

전투가 벌어지면 한군(漢軍)을 선봉에 세워 반드시 죽음의 격전지에 배치한다. 그러나 전투에서 승리해도 한군의 상은 가장 박하다.

[聞見雜記(下): 有戰則驅漢軍於先鋒,必置死地,戰勝則漢軍之賞最薄.]

【변방의 팔기 몽골병】

무릇 각성(各省)의 큰길에는 모두 돈대를 설치하여 수자리 사는 병사를 둔다. 변방 지방에는 몽골 병정이 지키며 정찰한다. 긴급한 일이 있으면 봉화를 올려 신호한다. 도적이 이르면 자리(蓆)를 걸고 포를 쏘는데 도적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자리를 걸고 쏘는 포의 수자를 조절한다. 긴급하면 역마를 통해 보고하도록 한다.

[聞見雜記(上): 凡各省孔道,俱設墩臺,置以戍夫,邊外地方,蒙古兵丁哨探防守,以司偵瞭,遇有警急,舉烟爲號,寇至則掛蓆放砲,隨寇之多少,加減掛放之數,緊急則亦令按遞馳報.]

【팔기의 사냥】

봉성(鳳城) 이후 처음으로 큰 마을을 보았다. 약 40~50의 인가가 있었다. 요동관원(遼東官員)이 연산관(連山關)에서부터 갑군 100명을 거느리고 교체하여 호위하였다. 모두 준마를 타고 있는데 혹 총검을 가진 이도 있고 매를 들거나 개를 끌기도 하며 가는 곳마다 사냥을 하였다. 매우 흥미로운 광경이다. 이날 40리를 갔다.

[1777년 12월 3일: 鳳城之後,始見村之大,約爲四五十人家,遼東官員,自連山關,率甲軍百名,交遞護行,而皆乘駿馬,或持銃劍,臂鷹牽狗,到處行獵,見之,頗豪爽矣,是日行四十里.]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팔기들의 사냥모습이 아주 생생한 필치로 실려 있는데 이갑이 본 것도 역시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만주팔기로 편입된 몽골인과 조선인】

저 사람들은 외방의 작은 오랑캐로서 하루아침에 천하를 통합한 뒤에, 주객의 형세가 다르고 많고 적은 것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하여 몽골과 포로로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을 만주인이라고 통칭하여 청나라 병사와 함께 편제하여 팔기를 만들었다. 한인 병사는 모두 녹기

(綠旗)로 칭하여 보졸만 두어 각기(各旗)에 편입하였다. 각 성의 모든 병제도 매우 잘 정돈하였다. 장백산 밑에서 일어난 작은 무리에게 이런 역량과 재질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하였겠는가.

[聞見雜記(下): 渠以蕞尔外夷,一朝統合天下,深知主客勢殊,衆寡不侔,乃以蒙古及我人被擄者,通稱滿人,與清兵共編爲八旗,漢兵則皆稱以綠旗,只作步卒,分編於各旗各省,凡百兵制,極其纖悉,誰謂長白山下崛起之一小醜,乃有此等力量才具耶.]

다음은 몽골관료와 이번원에 대한 기록으로 4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원(理藩院)의 설치와 몽골통치】

대개 청나라의 관제란 명나라의 법을 따른 것이다. 각 아문에 모두 만주 관리리를 두고 그 권한을 총괄하여 천하를 나누어 다스리는데 이 작호(爵號)·직임(職任)이 중국의 제도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청나라 조정에서는 또 따로 내무부를 두어 만주인을 다스리고 이번원에서는 몽골을 담당하는데 중국과는 원래 서로 관계가 없다. 소위 내대신(內大臣)이란 그들의 만주출신의 대신들이다. ... 내무부는 청나라 초년에 설치하였다. 부(府)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과 재용(財用)의 출입, 제사(祭祀)·연향(宴享)·선복(饔服)·사여(賜予)·형법(刑法)·공작(工作) 등의 일을 모두 관장하며 궁(宮)과 부(府)가 일체가 되게 만든다. 실로 이번원(理藩院)과 똑같다. 이번원은 오로지 몽골을 관할하고 내무부는 오로지 만주를 관할하는데 다른 부원(府院)에 비교하면 책임이 유별나다. ... 관작의 칭호·형벌과 상사(賞賜)·출척(黜陟)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번원과 내무부의 소관이다. 각부(閣府)·사원(寺院)·직성(直省) 등의 여러 아문(衙門)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주 달라서 마치 두 나라의 제도와 같다.

[聞見雜記(下)蓋清國官制,實遵皇明之法,各衙門皆設滿官,以摠其權,使之分理天下,此則爵號職任,無非華制,而清國朝廷則亦自別設內務府治滿人,理藩院掌蒙古,元不與中國相干,此所謂內大臣者,卽渠滿州之大臣也 ... (聞見雜

記(上))內務府,清初設置,凡府大小諸事及財用出入,祭祀宴享,饗服賜予,刑法工作等事,皆令摠理,俾宮府一體,實與理藩院爲表裡,蓋理藩院則專管蒙古,內務府,則專管滿州,較他府院,責任自別 …(聞見雜記(下))至於官爵稱號,刑賞黜陟,理藩院・內務府所管,與閣府寺院直省該衙門,設法自別,便是兩國.]

【이번원의 조직과 직무】

[청나라에서는] 특별히 이번원을 설치하여 이들을 다스린다. 상서(尙書) 및 좌우시랑(左右侍郎)을 두었는데 육부(六部)의 제도와 같다. [관리는] 모두 청인이나 몽골인으로 임명하며 출척(黜陟)・상벌(賞罰)・조회(朝會)・왕래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번원은 몽골부족들에게] 각기 그 [지정된] 땅(유목지)을 준수하도록 한다. 연초에는 직무를 맡들어 말을 공납한다. 청리사(淸吏司)에 속한 것은 4개로 훈구(勳舊)・빈객(賓客)・유원(柔遠)・이형(理刑)이며 각부의 해당 낭중(郎中)・원외(員外)・주사(主事)가 일을 나누어 처리한다.

[聞見雜記(下): 特設理藩院以領之,置尙書及左右侍郎,一如六部之制,皆以清人或蒙人爲之,以掌其黜陟賞罰朝會往來之事,使各守其地,歲時奉職貢馬,其屬淸吏司有四,曰勳舊,曰賓客,曰柔遠,曰理刑,各該郎中員外主事分理.]

【관작제도】

대개 공을 세운 자 및 근친 혹은 나라를 들어 복종한 자는 모두 친왕(親王)・군왕(郡王)・패륵(貝勒)・패자(貝子)・진국(鎮國)・보국공(輔國公)에 봉한다. 그 녹봉은 모두 내왕(內王)[의 규정] 등에 따르며 소속 백성은 모두 팔기에 나누어 예속시킨다. 각항(各項)의 방식 같은 물자는 모두 내관(內官)[의 규정]에 따른다. 직책의 명칭은 모두 몽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문] 글자만으로는 [그 뜻을] 추측할 수가 없다. 제왕(諸王) 가운데 지위가 높은 자가 화석친왕(和碩親王)이다. 각라(覺羅)란 종실(宗室)의 칭호이다. 복금(福金)은 종실 부인의 칭호이다. 탑포낭(塔布囊)은 지위가 원외랑(員外郎)의 밑인데 봉물(捧物)을 [관장하는] 관원이다. 장경(章京)은 초관(哨官)의 칭호이다. 매륵장경(梅勒章京)은 부도통(副都統)이다. 패륵

(貝勒)은 몽골말로 큰 것을 패(貝)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 매륵(梅勒)은 부도통(副都統)이고 패륵(貝勒)은 대도통(大都統)인 것 같다. 고산항로(固山項魯)는 도통(都統)의 칭호이고 우룩장경(牛魯章京)은 참령장관(參領將官)의 칭호이다. 발십고(撥什庫)는 소위 보고(甫古)라는 것으로 10인의 장이다. 이 밖에 백길(白吉)·발륵(字倫)·구살(九薩)·액진(額眞) 등의 명칭이 대단히 많으나 다 기록하기가 불가능하다.

[聞見雜記(下): 凡以功以親及或學國輸服者,皆封親王郡王貝勒貝子鎮國輔國公,其秩俱照內王等,其屬皆分屬八旗,其各項坐褥等物,俱照內官,而其職號皆因其話而稱之,俱不可以文理推解,諸王之位高者,爲和碩親王,曰覺羅者,即宗室之稱也,曰福金者,宗室夫人之稱也,曰塔布囊者,官在員外郎之下,即捧物之官也,曰章京者,哨官之稱也,曰梅勒章京者,即副都統也,曰貝勒者,蒙語稱貝爲大云,然則梅勒爲副都統,貝勒似是大都統也,曰固山項魯者,都統之稱也,曰牛魯章京者,參領將官之稱也,曰撥什庫者,即所謂甫古十人之長也,曰白吉,曰字倫,曰九薩,曰額眞等,名目甚多,不能盡錄.]

【몽골어 상주문의 만주어 번역】

또 경성과 외방의 주본(奏本) 가운데 만주문으로 된 것은 곧장 올리고 한문과 몽골문은 모두 해당 부원(部院)에서 만주어로 번역하여 내각으로 보낸다. 내각에서는 통정사(通政司)로 보낸다. [황제에게] 보내진 주문들은 [결재] 후 다시 통정사로 내려오는데, 통정사는 이를 내각에 보내 각 해당 부(部)·원(院)에서 반포하게 한다.

[聞見雜記(上): 凡京外奏本,滿文直爲進奏,漢文及蒙古文,皆自該部院翻以清書,送於內閣,則自內閣送於通政司,投進入奏後,復下通政司,出付內閣,使頒各該部院.]

다음에 기타항목으로 소개하는 것은 청조의 일반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는 봉인(封印)제도와 주변제국의 언어를 전문 통역하는 관청인 사역관(四譯館)이다.

【봉인(封印)제도】

또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도 모두 정해진 곳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찍는 것과 같지 않다.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필첩식(筆帖式)이 반드시 모년 모월 모일 어떤 문서 제 몇째 줄 아무 곳에 도장 한번을 찍었다고 기록한다. 소위 봉인(封印)하는 법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2월 2일에 봉인하여 정월 21일이 되어야 개인(開印)한다. 그 사이는 백색 문서이며 모두 실행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개인(開印)하는 시기가 되면 백관이 모두 관복을 입고 아문에 나가서 비로소 인봉(印封)한 것을 열고 문서를 처리한다고 한다.

[聞見雜記(上): 其間則凡百文書,皆不得舉行,及至開印之期,百官皆公服,親詣衙門,始開印封,酬應文書云.]

【청대의 사역관(四譯館)】

예부의 주객(主客)·청리(淸吏) 두 사(司)는 천하의 조공·접대·사여(賜與)를 분장하고 아울러 회동관을 관장한다. 소위 연경의 회동관이라는 것은 요나라·금나라 때부터 이미 그 칭호가 있었다. 명나라 때에는 사이관(四夷館)이 옥하교(玉河橋) 서쪽에 있었다. 청인들은 이를 그대로 따라 순치(順治) 초년에 사역관(四譯館)을 설치하고 여러 나라의 통역관을 모두 그곳에 예속시켰다. 그 편액은 달단(韃靼)·여직(女直=女眞)·회회(回回)·면전(緬甸: 미얀마)·백역(百譯)·서번(西番: 티베트)·고창(高昌: 투루판)·서천(西天: 인도)·팔백(八百)·섬라(暹羅: 태국)·조선(朝鮮)까지 합하여 모두 11관으로 한림원(翰林院)에 예속시켰는데 뒤에 달단·여진 두 관을 없앴다.

[聞見雜記(下): 禮部主客淸吏兩司,分掌天下朝貢,接待賜與,並提督會同館,所謂燕京會同館,自遼金已有其號,皇明時則四夷館在玉河橋之西,淸人仍之,順治初設四譯館,諸國通官皆屬焉,其額曰韃靼,曰女直,曰回回,曰緬甸,曰百譯,曰西番,曰高昌,曰西天,曰八百,曰暹羅,并朝鮮凡十有一館,使之統隸翰林院,後減韃靼女直二館.]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백역(百譯)은 백이(百夷)의 오기이며 백이는 『원사』에 등장하는 금치백이(金齒百夷)로서 오늘날 운남성(雲南省)의 소수민족인 태족(傣族)에 해당한다.[※원대 및 명대의 百夷에 대해서는 杜若, 「元明之際金齒百夷服飾·禮俗·髮式的變革 - 兼述兩本《百夷傳》所記“胡人”風俗對金齒百夷的影響 - 」 『思想戰線』1996-5; 于秀情, 「明朝經營百夷研究」(2003년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및 「元朝經略金齒百夷研究」 『民大史學』4, 2000 ; 陸韜, 「元代西南邊疆與麓川勢力興起的地緣政治」 『中國邊疆史地研究』2008-3 등을 참조.] 팔백(八百)은 태족(傣族)의 일부로 원나라 때인 1331년 팔백등처선위사도원수부(八百等處宣慰司都元帥府)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사이관은 최초 명나라 영락(永樂) 5년(1407) 설치했으며 그 중 달단관(黠鞬館)은 명과 북원 및 여진의 교섭사무 문서의 번역을 담당했다. 원나라의 통치를 거치면서 적잖은 여진인들이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 명대에 들어와서도 일부 지역의 여진족들은 몽골인의 영향을 받아 여진문자(女眞文字)를 잊어버리고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지역의 여진인들은 점차 모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명나라와 교류할 때 공식문서에 몽골어로 사용했다. 여진인 사이의 몽골어 해독능력은 명나라 영종 9년(1444) 여진부(女眞部)가 명나라에게 몽골문자로 된 칙서를 내려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이에 명나라 조정은 1444년부터 신종 31년(1603)에 이르기까지 양측에 오가는 공식문서에 몽골어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달단관은 명나라와 여진의 왕래 문서 중 몽골어로 된 문서들을 한자로 번역하는 책임을 맡았다. 물론 여진문자를 사용한 문서들은 여진관에서 한자로 번역했다.[※명대 여진인들의 몽골어 문서 사용에 대해서는 烏云高娃, 「明四夷館“黠鞬館”研究」 『中央民族大學學報』2002-4를 참조.]

(9) 몽골인과 티베트불교(라마교)

북경을 오가는 조선사절단들은 누구든지 라마교 사원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라마교 사원에 대한 기록이 거의 모든 여행기에 존재하는데 이갑의 여행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몽골의 라마교를 가장 먼저 접하고 기록

을 남긴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갑의 여행기에는 몽골인과 라마교 관련기록으로 라마교사원 및 승려 관련 3건, 청조의 불교정책 관련 1건 등 모두 4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실승사의 정경】

맑음. 해가 높이 솟은 뒤 출발하여 외성(外城) 5리 쯤 정도 나아갔다. 칸(汗:Khagan)의 원당(願堂)이 있는데 절 이름은 보승(寶勝)이다. 정문은 잠그고 열지 않았다. 서장관과 함께 협문(夾門)으로 해서 들어갔다. 누런 집의 수놓은 기둥이며 금빛 벽과 푸른 기와에 눈이 부셨다. 제도가 아주 크고 미려했다. 전문(殿門)에는 해월상휘(海月常輝:바다에 뜬 달이 항상 빛난다)의 네 글자로 편액을 달았다. 안에는 공양대를 놓고 큰 금불상 3개를 안치하였는데 모두 누런 비단으로 만든 가사를 입혔다. 공양대에 놓인 공양식기도 극히 화려하다. 그 뒤의 좌우 감실(龕室)에는 각각 작은 금부처 9상을 안치하였다. 공양대 아래 동쪽과 서쪽에도 또 금부처 5상이 있고 좌우 붉은 기둥에는 금으로 용을 조각하였다. 18감실은 금으로 도금하여 온 전각이 모두 금빛이었다. ... 섬돌 서쪽에 2층 높은 누각이 있는데 조각한 난간과 색칠한 기둥, 아름다운 문지방, 비단 창문 등이 지극히 영롱하다. 또 무지개 층계다리가 있으나 문을 닫아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들건대 누각 안에 칸의 화상이 있어 들어가 볼 수 없다고 한다. 뜰 앞에 오래된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섞어 심었는데 가지와 줄기가 얽히고 구부러져 정취가 있어 보인다. 뜰의 동쪽과 서쪽에는 비석 2개가 있다. 동쪽 것은 해서(楷書), 서쪽 것은 만주어로 되어 있다. 해서 비에는 승덕(崇德) 3년에 세운 것이라고 써어 있다. 3리를 지나니 숲이 울창하고 누런 집이 은은하게 보이는데 마치 궁궐과 같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칸의 무덤인데 이름은 소릉(昭陵)이라고 했다.

[1777년 12월 9일: 晴,日高而行出,外城五里許,有汗之願堂,寺名寶勝也,正門鎖而不開,與書狀由夾門而入,黃屋繡楹,碧瓦金壁,眩日耀日,制度極爲壯麗,殿門揭海月常輝四字之扁,內設卓子,安大金佛三像,而皆着黃錦袈裟,榻前供養

器皿,極其華奢,其後左右龕,各安小金佛九像,卓下東西,又有立金佛五像,左右紅柱,金刻龍像,十八龕,以金塗之,一殿皆是金彩 … 塔之西,有二層高樓,鏤檻文櫺,雕櫺綺窓,尤極玲瓏,樓有虹梯,而門閉不許入,聞樓中有汗之畫像,人不得入見云,庭前雜植老松側柏,枝榦盤屈,殊覺婆娑有趣也,庭之東西,有二碑,東則楷書,西則胡書,楷碑題以崇德三年立云,行過三里,林木叢鬱,黃屋隱映,儼似宮闕,人稱汗墓,名曰昭陵云.]

위의 기록에서 보승(寶勝) 실승(實勝)의 오기이다. 실승사에 대해서는 각종 여행기에 전문적인 기록이 많으며 이미 필자가 전에 자세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실승사의 몽골승려】

몽골 승려 50인이 번갈아 절 안에서 숙직하는데 입은 옷이나 쓴 모자를 보아 모두 노란 색을 숭상하는 것 같다. 밤에는 불감(佛龕) 아래에서 그대로 잔다.

[1777년 12월 9일: 蒙古僧五十人,輪直寺中,所着之帽與衣,皆尚黃色,夜輒露宿於佛龕之下.]

【청조황제 원당(願堂)의 주관자는 몽골 라마승】

남화승(南華僧)이라는 불리는 자들이 즉 몽골 승려들이다. 모두 황제의 원당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치스럽고 횡포함이 아주 심하다.

[聞見雜記(上): 稱以南華僧者,即蒙古僧也,皆主皇帝願堂,故豪橫尤甚.]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남화승(南華僧)은 라마승(喇嘛僧)의 다른 표현이다.

【청대의 불교정책】

순치(順治) 초년에, 따로 사묘(祠廟)를 세우거나 사적으로 승니(僧尼)에게 도첩(度牒)을 주는 행위를 모두 금지령을 내려 엄하게 단속하였다. 그리하여 사사로이 머리를 깎은 16세 이상인 자는 죄를 물어 환속시켰다. 원

당을 설치한 것은 모두 명나라의 옛 제도를 따른 것이다. 경사(京師) 안팎에서 사사로이 신상(神像)을 만들고, 염불을 하며 목탁을 치고 경쇠를 울리며 시주를 모집하는 행위도 모두 금하였다. 강희(康熙)는 “사원을 세우면 밭과 집을 널리 차지하여 민전(民田)이 점점 열리지 않고, 유랑민이 모두 승도(僧道)로 들어가게 된다. 도망자와 범죄자들도 모여드는 소굴이 된다”고 말하면서 순치(順治) 때의 금령을 거듭 반포했다. 그러나 옹정(雍正) 때에는 아주 심히 숭봉하여 사관(寺觀) 중에 훌륭한 이름이 있는 것은 수리하고 고치지 않은 것이 없어 단청이 일신 되었다. 도로에서 본 것만 해도 곳곳마다 수리했는데 북진(北鎭)·동악(東岳)에 소모한 것이 수천만 금도 넘을 듯하다. 그리고 간혹 새로 세운 절도 있었다. 또 대신(大臣)과 유보(留保)를 강남으로 보내어 10만 금으로 금산사(金山寺)를 개수(改修)한다고 하니 공역(工役)의 크고 많음을 상상할 만하다. 승도(僧道)에도 과거가 있다. 즉 승록사(僧錄司)에서 경사에 있는 승려를 뽑아 예부로 보내면, 예부에서 문제를 내어 본경(本經)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경전을 암송하는 자 10인 내지 20인을 이부(吏部)로 보낸다. 그러면 이부에서는 이들을 좌우선세(左右善世)·좌우천교(左右闡教)·좌우강경(左右講經)·좌우각의(左右覺義) 등의 직책에 임용한다. 도록사(道錄司)에서의 도사 선발도 승록사의 경우와 같으며 선발된 자들을 좌우정(左右正)·좌우연법(左右演法)·좌우지령(左右至靈)·좌우지의(左右至義) 등의 직책에 임용한다.

[聞見雜記(上): 順治初別建祠廟及私度僧尼,皆設禁嚴,飭私剃十六歲以上者,治罪還俗,雖置願堂,皆因明之舊刹,京城內外私設神像,念誦梵呪,擊梆鳴磬,以募化緣者,亦皆禁之,康熙則以爲寺院之設,廣占田廬,以致民田日漸不闢,游民皆入僧道窩藏,逃亡不法,萃爲淵藪,亦申順治之禁令矣,雍正時頗甚崇奉,寺觀之名以壯者,無不修治,丹雘一新,雖以道路所見言之,在在繕修,北鎭東岳之所糜費,不啻累千萬金,間或有新建之寺,又遣大臣留保於江南,以十萬金改修金山寺云,其工役之浩多可想也,凡僧道亦有科,僧錄司選在京僧人,送於禮部,則禮部出題考試本經,以典諳者或十或二十,送於吏部,左右善世,左右闡教,左右講經,左右覺義等任,以此揆補,道錄司選道士,亦如僧錄司例,左右正及左右演

法,左右至靈,左右至義等任,亦以此揆補.]

위의 기록은 청조의 일반적인 불교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즉 이갑의 불교관련 기록은 청조의 불교정책이 중원과 몽골에 달리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증이다. 이 기록은 역으로 청조가 몽골에 라마교를 권장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좋다.

(10) 몽골관련 기타 기록

이갑의 여행기에는 몽골과 관련된 기타기록으로 러시아 관련 1건, 러시아와 조선 관련 1건 등 모두 2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몽골의 별종: 대비달자 명칭의 유래】

대비달자는 러시아(鄂羅斯)이다. 몽골의 별종으로 나라가 사막 바깥 지극히 먼 땅에 있다. ... 사람들이 모두 코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코가 큰 몽골인(大鼻獃子)”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聞見雜記(下): 大鼻獃子,即鄂羅斯,蒙古之別種,國在於沙漠外絕遠之地 ... 人皆鼻大,故我國號之以此.]

【옥하관(玉河館)의 러시아인: 러시아와 조선의 숙소분쟁】

[옥하교(玉河橋)]다리 남쪽에 옥하관(玉河館)이 있는데 순치 초년에 옥하(玉河) 서쪽 언덕 위에 세우고 우리나라 사신을 접대해 왔다. 근래에는 대비달자가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 청나라 사람도 감히 그 뜻을 어기지 못하여 우리 사신의 관소(館所)가 드디어 다리 남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1리쯤 가서 성 밑을 따라 조금 가면 남소관(南小館)이 있다.

[1777년 12월 27일: 卽玉河橋也,橋之南,有玉河館,順治初,設於玉河西岸上,以接我使,近來大鼻獃子,連爲來留於此,不肯往他所,清人亦不敢拂其意,遂移我使館所於橋南行一里許,遵城底而西行少許曰,南小館.]

러시아라는 나라가 동양에 처음 소개된 것은 13세기 몽골제국 때이다. 러시아의 본명은 **Россия(Russia)**이지만 몽골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음조화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뒤의 모음을 앞에 붙여 발음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몽골비사 262절에 등장하는 오로스(**Orus, Opoc**)의 복수형인 오로소드(**Orusud**)이다. 이것이 바로 한문표기 아라사(鄂羅斯)의 기원이다. 조선시대의 여행기에 묘사된 러시아는 ① 흑룡강 이북에 살고 있는 코가 큰 몽골의 별종 ② 거울과 타르박 가죽을 파는 사람들 ③ 큰 몸집의 개를 기르는 사람들 ④ 옥하관을 빼앗은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연행일기(燕行日記)』나 김경선(金景善, 1788~1853) 『연원직지(燕輶直指)』처럼 시대적으로 120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영토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묘사한 예도 존재한다.

4.1.3. 연행기사의 가치와 의미

이갑의 여행기에는 모두 102건에 이르는 문건잡기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박지원이나 홍대용, 김창업에 뒤지지 않는 열성적인 관찰자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몽골관계 기록을 분석해 보면 그 역시 당시 조선의 전형적인 사대부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피상적인 인식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몽골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의 몽골 인식은 역사적인 인식과 군사적인 인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역사적인 인식을 대표하는 것은 청나라의 기본적인 제도가 원나라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의 원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는 직접 언급이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종합적인 면으로 볼 때 【원대의 변발호복】 항목처럼 긍정적인 인식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갑의 몽골인식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정치적인 방면 즉 군사방면에 서의 인식이다. 그것을 입증해주는 부분이 바로 서부몽골의 준가르 제국에 대한 기록들과 【태극달자(太極撻子)의 역사와 위상】 【제14왕 윤정의 몽골부인

목순공주(穆順公主)】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또 그는 몽골인들의 지위나 직위 등에 대해서도 세밀히 관찰하고 있다. 즉 그의 몽골인식은 서호수처럼 본질을 본 것이 아니라 박지원과 같이 청나라를 뒤집어엮을 미래의 주도세력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부족의 복속상태: 미래의 주인공은 몽골이다】 에서도 잘 입증되는 이갑의 이러한 인식은 당시 조선 선비들이 지닌 국제 정치정세의 감각이나 파악정도를 알려주는 한 예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갑의 여행기에 나오는 몽골관계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갑의 몽골인식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으며 또 어떠한 방면에 관심이 있는가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그의 몽골인식은 군사적인 방면을 통해 몽골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 박명이라는 몽골학자를 통해 문화적인 인식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갑의 여행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병자호란 이후 주변정세 특히 몽골의 정치정세 변동에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도 적극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최덕중,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병자호란 이후 거의 모든 조선사신단은 예외가 없을 정도로 몽골의 군사적·정치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 이러한 조선사신단의 몽골 동향 탐문으로 인해 조선사신단을 대상으로 정보를 파는 일종의 정보 브로커집단도 존재하고 있다.

이갑의 여행기에 수록된 태극달자(太極獃子), 목순공주(穆順公主) 등의 문건은 당시 조선사신단이 수집한 정보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주고 있다. 정보 브로커집단을 통해 수집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이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지적처럼 조작된 것이다. 즉 정보 브로커들에게 조선사신단이 사기를 당한 피해 사례이자 증거자료이다. 이러한 가짜문서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의 몽골에 대한 정보력이나 분석능력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 사신단이 입수한 몽골관련 정보의 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는 모든 여행기에 등장하는 관련부분을 세밀히 비교하고 연구해야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이갑의 여행기 및 이전에 분석한 바 있는 최덕중, 박지원, 서호수의 여

행기를 종합해 볼 때 조선의 지배층들은 군사적인 면에서 청조를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몽골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관심은 몽골의 세력이 급격히 쇠퇴한 건륭 후기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조 시대 여행기의 곳곳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병자호란 이후 조선시대의 몽골인식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사적인 관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뜻밖에도 역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대청제국의 본질이 만·몽 연합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내부구조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 조선시대의 사신단들 만큼 대청제국의 성격이 만·몽 연합통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의 여행기들은 1911년 청조의 붕괴 후 내·외몽골이 한족정권의 중화민국에의 합류를 거부하고 독립의 길을 모색했던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4.2.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의 곡운집(谷雲集) 「잡문(雜文)」에 수록된 김승경사실(金勝京事實)의 분석

4.2.1 김수증(金壽增)의 약력과 17세기 차하르몽골(Chakhar Monggol)의 중요기록 김승경사실

김수증은 1624년(인조2)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였던 아버지 김광찬(金光燦), 어머니 연안김씨(延安金氏) 김부인(金球의 딸)의 장남으로 4월 14일에 태어났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장손인 그는 어려서부터 김상헌의 가르침을 받았다. 1633년(인조11) 10세 때 어머니의 상을 당했고, 1650년(효종1) 27세 때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1652년(효종3)년 29세 때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었으며, 이해 조부 김상헌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문은 동생 김수흥(金壽興, 1626-1690)과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1659년 1차 예송 논쟁 이후 조정의 요직을 역임하고 1663년 김상헌의 석실서원(石室書院)이 사액서원이 되는 등 일시 권력과 영예를 누렸다. 이후 그는 형조정랑(刑曹正郎),

공조정랑(工曹正郎),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 등을 역임하였으며 석성(石城)과 평강(平康)의 현감(縣監)을 지냈다. 1668년(현종9) 2월 아버지의 상을 당했다. 1670년(현종11) 47세 때 춘천(春川)에 복거(卜居)할 땅을 마련하고 농수정사(籠水精舍)를 지었다. 그가 오늘날 강원도 화천 화악산(華嶽山) 일대를 택해 30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의 문집에 수록된 병정피란사실(丙丁避亂事實)에서 병자호란 때 그의 일가가 안동, 춘천 등지로 피란했다는 기록을 참조할 때 당시 그곳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를 화악산을 곡운(谷雲)이라 이름 붙였다. 1672년(현종13) 안악군수(安岳郡守)로 있다가 황해도 관찰사 최관(崔寬, 1613~1695)이 부임하자 해임되었다. 1673년(현종14) 50세 때 성천부사(成川府使)가 되었다. 그러나 1674년 갑인예송(甲寅禮訟)의 결과 1675년(숙종1) 남인(南人)이 집권하여 동생인 김수홍, 김수항과 송시열(宋時烈)이 유배되자 성천부사를 사직하고 춘천(春川) 곡운(谷雲)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그 곳에 곡운정사(谷雲精舍), 농수정(籠水亭) 등 몇몇의 건물을 짓고 곡운구곡(谷雲九曲)을 비롯한 인근 산천을 음미하며 서화(書畫)에 몰두하였다. 1680년(숙종6)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동생인 김수항이 유배에서 풀려나자 이해 회양부사(淮陽府使)가 되어 금강산을 유람하고 기문을 지었다. 1683년(숙종9) 청풍군수(淸風郡守)가 되었으며 1686년 사직하였다. 1687년(숙종13) 2월 부인 조씨(曹漢英의 딸)의 상을 당하다. 1689년(숙종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동생 김수항이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었다. 그러자 다시 벼슬을 버리고 곡운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1690년(숙종16) 동생 김수홍도 유배지 장기(長鬐)에서 병사하였다. 1694년(숙종20) 셋째아들인 김창직(金昌直, 1653~1702)이 지평(持平)이 되자 시종신(侍從臣)의 아버라는 이유로 가선(嘉善)에 올랐다. 손녀(아들 金昌國의 딸)가 숙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寧嬪 金氏가 되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가 되었다. 1697년(숙종23) 74세 때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공조참판(工曹參判)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1701년(숙종27) 3월 4일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은거할 때 상수학(象數學)을 연마하여 조경에 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상을 피하는 분위기가 아주 짙었고 때론 도가(道家)적인 취향마저 나타냈다. 글씨에도

능하였는데 특히 전서(篆書)와 팔분체(八分體)에 능했다.

그의 문집에는 곡운집(谷雲集)이 전하는데, 1711년 조카인 김창흡(金昌翕, 1653 ~ 1722)의 산정(刪定)을 거친 가장초고(家藏草稿)를 손자 김치겸(金致謙)과 경상도관찰사 이의현(李宜顯)이 1711년(숙종 37)에 대구감영(大邱監營)에서 간행하였다.

17세기 차하르몽골(Chakhar Monggol)의 중요기록인 김승경사실이 수록된 그의 문집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두(書頭)에 김창흡의 서(序)가 있고 권1~2는 시(詩) 부문으로 도합 547수가 실려 있다. 이곳의 시는 1675년(숙종1) 송시열과 동생 김수항이 유배되자, 청천부사를 사직하고 강원도 화천의 곡운(谷雲)으로 퇴거하여 주위의 자연을 읊은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연작(連作)이 많다. 권3은 서도산정사기후(書陶山精舍記後) 등 가기(家記) 12편 및 잡록(雜錄) 16조, 기(記) 9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4는 기(記)의 계속으로 화산기(火山記), 한계산기(寒溪山記) 등 10편이 실려 있다. 기(記)는 대부분 산천을 유람한 기행문인데 이중 곡운기(谷雲記), 화음동지(華陰洞志), 유지당기(有志堂記), 무명와기사(無名窩記事), 송풍정기(松風亭記) 등은 곡운 지방에 대한 기행문이다. 권5는 서(書)와 제문(祭文) 부문으로 서(書) 43편, 제문 5편이 실려 있다. 권6은 상지(狀誌)와 잡문으로 망실숙인조씨행상(亡室淑人曹氏行狀), 망손오일행록(亡孫五一行錄) 등 상지 4편, 잡문 14편이 실려 있다. 권6의 잡문에 실려 있는 것 중 당시 조선선비들의 동아시아인식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법성전(法性傳), 김승경사실(金勝京事實)이다.

법성전(法性傳)은 <법성(法性) 표류여행기(1654~1656)>란 명칭이 더 어울리는 흥미진진한 여행기이다. 법성은 성주(星州) 사람으로 1616년 태어났고 17세 때 가야산 해인사에서 출가, 지리산 쌍계사를 중심으로 원근의 산천과 대소 사찰을 모두 왕래하였다. 이렇게 각 지역의 사찰을 편력하던 중 배를 타고 부산에 가다가 폭풍을 만나 일본까지 표류하게 되었는데 표류하는 동안 호인(胡人) 및 미지국인(未知國人) 등의 선박들을 만나 쌀과 불상 등을 주어 목숨을 빌었고 울릉도, 북해(北海), 가리도(加里島), 혈도(穴島), 여위도(如渭島) 등을 거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표류기에는 당시 일본의 실상이 간략하게나마 묘사되어 있다.

김수증은 법성의 호방하고 방달한 여행편력을 듣고 매월당(梅月堂)을 떠올리며 견문이 좁아 편협한 선비보다 월등하다고 평하고 있다.

김승경사실(金勝京事實)은 17세기 조선에서 태어난 어느 한 몽골군의 이야기이다. 이 여행기는 몽경(蒙京)에 대한 묘사 등 17세기 차하르몽골(Chakhar Monggol)에 대한 직접 목격기와 체험기로 청대초기 차하르 몽골연구의 귀중한 사료이다. 김승경은 1625년(인조 3)에 태어나 정축년(1637, 인조 15)에 몽골군의 포로가 되어 차하르몽골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전사가 되어 외몽골과 전투에 참가하는 등 몽골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그리워 1663년(현종 4) 심양으로 와서 1664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여행기는 크게 차하르몽골의 지세, 성곽, 궁궐, 초목, 동식물, 유목, 풍속 등에 대해 소개한 부분과 당시 차하르 몽골의 보르니(Burni, 布爾尼) 친왕이 심양과 북경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선에도 영향을 있으리라고 국제 정세를 전하는 두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1675년 3월 차하르의 보르니 친왕의 반란 후 차하르 몽골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이 여행기의 존재는 비록 간략하다고 하나 세계적인 사료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김수증이 이 여행기를 채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여행기의 주인공 고향과 가까운 곡운에 살았기 때문이다.

4.2.2 17세기 조선에서 태어난 어느 한 몽골군의 이야기 김승경사실의 내용 분석

김승경(金勝京) 여행기는 병자호란 때 몽골군에게 포로가 되어 20년간 몽골군으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17세기 조선에서 태어난 어느 한 몽골군”의 이야기이다. 이 여행기는 병자호란 때 몽골군에 포로로 잡힌 조선인들이 만주인에 잡힌 것 못잖게 매우 많았다는 것, 몽골군에 포로로 잡힌 조선인들의 상황을 말해준다는 점, 1636년부터 1663년 전후의 만주·몽골의 정치정세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 소개하는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으로,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원문】 김승경사실(金勝京事實)

金勝京者,金城縣民也,生於天啓乙丑,丙子之亂,避兵于五申山金化,丁丑正月,爲蒙兵所擄,由鐵嶺而行,渡豆滿江,越三日,從白頭山北,行二十餘日,渡兀來江,又十餘里,至女眞地,又三日,過長城,又兩月餘,到蒙古地,時是年端陽後也,其地野多山少,其國有內外城郭,其城有九門,門外有市,過九門方達內城,城頭四門建層閣,每夕舉火吹角,其宮闕,蓋以彩瓦,其閭閻,僅千餘區,草屋少而瓦屋多,其餘皆毳幕,不定厥居,其木多黃榆·白楊,其草多韭草·甘草,無葛,馬食韭草,牛充薪,其菜有西瓜·眞瓜,大於我國東瓜,又有蘿菔·茄子·菘菜·苾·瓢,其穀有黍,五月始種,八月便收,且有木麥·山稻·菽豆等種,其酒有燒酒,其禽有鵝·鴨·鷄·雉·鷹·鶴,其魚有錦鱗·無鱗魚,以羅乘夜取雉,以麻繩截江而漁,其畜有牛·羊·橐駝,貧富以此爲等差,富者馬畜,彌山蔽野,多則馬三四千匹,牛八九百,羊累千頭,貧亦不下馬數百匹,勝京亦畜馬三十四,牛三十,羊數百,駝四頭,其獸有各種,距蒙京三日程,有獨山周可數十里,築垣爲苑,畜養鹿·豬·諸獸,飼以黍,蒙王有時出獵于此,他人不敢射,有江在蒙京,七八日程,達于遼河,入于海,室屋之材,皆浮于此,入于蒙京,其法殺人者不償命,只籍沒財產,給於被殺人妻子,若無財產者,亦償命,其王服于清汗,清汗之妹,爲其王子婦,故欲攻瀋陽,而以其子婦之故,未果,早晚必有侵伐之役,若先擊瀋陽,轉攻北京,則可無朝鮮赴援之患,自中論議蓋如此云,勝京入其國,隸於小酋,我國人被虜者甚多,有海西人女子被虜者,年十六,小酋使之作配,生二子一女,女與妻死已九年云,曾隨小酋,出征他部,自蒙京西北行兩月餘,至大元獯子其國有三部,又有毛明干部落,在北二十日程,勝京身有戰痕,乃大元獯子所射云,勝京久在異域,不禁鄉井之思,思欲歸骨故丘,癸卯十月,託以出獵,騎馬挾弓矢,向日邊而行,經一月,馬不行,棄馬徒步,十二月,到瀋陽,接于我國被虜人家,其人安州吏也,留住二年,其人給與一馬,先是,陽德人驪州人,有被虜於蒙古者,逃來于漢人家,勝京與之招引偕行,甲辰三月,離瀋陽,五月,到昌城,七月,發昌城,八月,到金城縣,兒時去鄉,今已二十餘年,某水某丘,依稀記得,其母沒纔數年,其父猶生存,兄弟無故,初不省識,聞其前後辭說,相持痛哭.

【번역】 김승경 이야기

김승경은 금성현(金城縣) 사람으로 천계(天啓) 을축년(乙丑, 1625년)에 태어났다. 병자호란 때(1636년 12살) 금화현(金化縣)에 있는 오신산(五神山)으로 난리를 피해 숨었다. 정축년(丁丑, 1637년) 정월에 몽골병에게 사로잡혔다. 철령(鐵嶺)을 경유하여 [끌려]갔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넜다. 3일이 지나 백두산(白頭山) 북쪽으로 나아갔다. 20여일을 가서 올래강(兀來江)을 건넜다. 다시 10여리를 가서 여진(女眞) 땅에 이르렀다. 다시 3일을 가서 장성(長城)을 넘었다. 또 2달여를 가서 몽골 땅에 이르렀다. 때는 5월 5일 단오가 지난 후이다. 그 땅은 들이 많고 산은 적다. 그 나라는 내외에 성곽이 있다. 그 성에는 아홉 개의 문이 있다. 성문 밖에는 시장이 있다. 아홉 문을 지나면 내성(內城)에 도달한다. 성곽의 위(城頭) 네 개의 문에는 누각(層閣)을 세웠다. 매일 저녁에 횃불을 켜고 나팔을 불었다. 궁궐은 채색된 기와(푸른색)를 씌웠다. 민가는 단지 천여 호(戶)인데, 초가집은 적고 기와집이 많다. 그 나머지는 모두 게르(Ger)로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는다. 나무는 대부분 황유(黃榆: 참느릅나무)와 백양(白楊: 울리야스)이다. 초지에는 부추(韭草)와 감초(甘草)가 많으며 씹은 없다. 말은 부추를 먹는다. 소똥(牛矢)으로 똥감을 충당한다. 채소에는 수박(西瓜)과 참외(眞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동과(東瓜)보다 크다. 또 무(蘿蔔), 가지(茄子), 배추(菘菜), 줄풀(苳), 작은 박(瓢)이 있다. 곡식에는 기장(黍)이 있다. 5월에 파종하여 8월에 수확한다. 또 메밀(木麥), 밭벼(山稻), 큰 콩(菽豆) 등의 종류가 있다. 술에는 소주(燒酒: 아리히, Arkhi)가 있다. 날짐승에는 오리(鴨), 닭(鷄), 꿩(雉), 매(鷹鷂)가 있다. 물고기에는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그물로 밤에 꿩을 잡는다. 삼꾼으로 강을 막아 고기를 잡는다. 가축에는 소, 양, 낙타가 있다. 빈부에 따라 이 숫자는 차등이 있다. 부자들이 키우는 말이 산과 들에 가득하다. [가축이] 많을 경우 말 3천~4천 마리, 소 8백~9백 마리, 양이 몇 천 마리이다. 가난한 자들도 말 수백 마리 밀로 내려가지 않는다. 김승경 역시 말 30마리, 소 30마리, 양 수백 마리, 낙타 4마리를 키웠다. 그곳의 짐승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 몽경(蒙京)에서 3일 정도 떨어진 곳에 독산(獨山)이 있는데 주위가 수 십리에 이른다. 담을

짙아 울타리로 삼고, 사슴이나 돼지 등 각종 들짐승을 가두어 키운다. 기장으로 사료를 준다. 몽골왕(蒙王)은 때때로 이곳에 사냥하러 온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동물을 썩어서 죽일 수 없다. 몽경(蒙京)에는 강이 있는데 칠팔일 걸려 요하(遼河)에 도달한다. 그리고 [요하와 함류해] 바다에 들어간다. 가옥(室屋)의 목재는 모두 이곳에서 따워 몽경(蒙京)에 들어간다. 그 법에 살인자는 목숨으로 배상하지 않는다. 단지 재산만 몰수하여 죽은 사람의 처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재산이 없으면, 목숨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 왕은 청나라의 칸에 복속한다. 청나라 칸의 누이가 그 왕의 며느리가 되었다. 이전 심양(瀋陽)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 며느리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조만간에 반드시 공격의 역(役)이 있을 것이다. 만약 먼저 심양(瀋陽)을 공격하면 이어서 북경(北京)을 공격할 것이다. 즉 그렇다면 조선은 [청조를] 구원하는 걱정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중론들이 대개 이와 같다고 말한다. 김승경이 그 나라에 들어가 작은 두목에게 예속되었다. 포로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황해도 여자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16세였다. 작은 두목이 그녀를 [김승경에게] 배필로 주었다. 2남 1녀를 낳았는데 딸과 마누라는 9년 전에 죽었다고 한다. 일찍이 작은 두목을 따라 다른 [몽골]부로 출정을 나갔다. 몽경(蒙京)으로부터 西北으로 2달여를 가면 칼카몽골(大元纒子, Khalkha Mongol)에 이른다. 그 나라는 3부(三部)로 되어 있다. 또 마오밍간(毛明干, Magu Minggan, 毛明安)부락이 북쪽으로 이십일 거리에 있다. 김승경은 몸에 전투의 상처가 있는데, 칼카몽골(大元纒子)이 쏜 화살에 입은 상처라고 한다. 김승경은 오랫동안 이역에 있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고향의 언덕에 뼈를 묻고자 했다. 1663년 10월, 사냥한다고 핑계를 대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에 올랐다. 해가 뜨는 곳으로 향해 갔다. 1달이 지나자 말이 더 이상 가지 못했다. [그래서] 말을 버리고 걸어갔다. [1663년] 12월에 심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잡혀온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안주(安州)의 아전인데 [이곳에] 2년간 머물고 있었다. 그에게서 말 한필을 얻었다. 이보다 먼저 양덕(陽德)사람과 여주(驪州)사람이 몽골군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는데 몰래 도망쳐 한인(漢人)의 집으로 왔다. 김승경은 그들을

불러 같이 떠났다. 1664년 3월 심양(瀋陽)을 떠나 5월에 창성(昌城)에 도달하고 7월에 창성(昌城)을 떠나 8월에 금성현(金城縣)에 도착했다. 어릴 적에 고향을 떠나 지금 벌써 20년이 되었다. 무슨 강, 무슨 언덕만을 어슴프레 기억할 뿐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아직 생존해 있었다. 형제들은 모두 무사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서로 붙들고 통곡했다.

5. 결론

몽골과 건주여진은 주자학을 시대이념으로 소중화의 세계를 꿈꾸었던 조선 사대부들에게 대외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실제적인 나라들이다. 본 연구는 연행록 170편, 문집 1101개 및 기타 저작 26개를 대상으로 몽골과 건주여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화연구의 사례로 실제로 몽골군이 되어 활약했던 조선인 김승경(金勝京) 이야기와 이갑의 연행기사(燕行記事)를 선택해 조선선비들이 대청제국의 성격과 내부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선 선비들의 대외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오랑캐라는 용어의 정체와 개념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조선선비들이 사용한 이민족의 보편적인 칭호는 이적(夷狄)이며, 오랑캐는 병자호란 이후 건주여진을 가리키는 역사용어임이 나타났다. 즉 이 용어는 건주여진 이외의 다른 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조선선비들은 각 민족마다 모두 특정한 표기를 사용하여 대상 및 개념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170개 연행록에서 몽골은 73개, 건주여진은 32개 여행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점유비율은 몽골이 43%, 건주여진이 19%로 나타난다. 또 시대별로 살펴볼 경우 몽골의 경우는 35% → 40% → 57%, 건주여진의 경우는 6.5% → 31% → 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1101개 문집에서 몽골은 470개, 건주여진은 560개에 수록되어 있으며 점유율은 몽골이 42.7%, 건주여진이 50.9%로 나타난다. 또 시대별로 살펴볼 경우 몽골의 경우는 37% → 44% → 56%, 건주여진의 경우는 39% → 59% → 6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시대적인 저작인 기타 저작(일록, 총서) 26개에서 몽골은 23개, 건주여진은 20개에 수록되어 있으며 점유율은 몽골이 88%, 건주여진이 77%로 나타난다. 여행기와 문집, 기타 저작에 등장하는 이 비율은 조선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즉 조선의 지배층들은 주자학적 질서를 통치와 인식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방면에서는 문화와 군사를 분리해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문집에서 몽골과 건주여진이 동시에 언급된 경우는 첫째시기가 108개, 둘째시기가 144개, 셋째시기가 83개 등 총 335개이며, 총 점유율은 30.4%이고 시대별 점유율은 21.4% → 35.3% → 45.1%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조선선비의 대외인식을 반영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시대가 내려갈수록 몽골과 건주여진을 동시에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주변세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대를 나타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건주여진의 경우 문집에서는 출현비율이 시대가 늦어질수록 높아지는 데 반해, 연행기의 경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연행록은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으며, 문집은 역사의 기원에 대한 관심고조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타 저작에 속하는 일록이나 총서에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시기에 쓰인 전쟁기록이나 여행기에 몽골과 건주여진이 하나의 동맹세력이나 서로 다른 세력으로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그렇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임진왜란 때인 신충일(申忠一)의 건주문견록(建州聞見錄, 1595)이나 정묘호란 직전 이민환(李民奩)의 책중일록(柵中日錄, 1618~1620)에 몽골과 건주여진이 군사동맹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고대일록(孤臺日錄)에는 임진왜란 때 최초로 참가한 명나라의 기병대가 몽골의 용병부대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의 지배층들이 병자호란 이후 강력한 군사동맹세력으로서의 몽골과 건주여진을 주목하고 그 대처를 강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여섯째, 김승경(金勝京) 이야기와 이갑의 연행기사(燕行記事)를 분석해보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몽골과 건주여진에 대해 역사·문화적인 인식과 군사적인 인식으로 나누어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 조선시대의 몽골인식은 모두 군사적인 관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뜻밖에도 역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대청제국의 본질이 만·몽 연합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내부구조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의 연행록들은 1911년 청조의 붕괴 후 내·외몽골이 한족정권의 중화민국에의 합류를 거부하고 독립의 길을 모색했던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현재 동아시아는 역사논쟁의 시기라 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 간에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황국사관 등 심히 우려를 낳는 역사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역사사실에 대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북방민족 인식은 조선시대의 인식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인식의 바탕을 이루는 연행록이나 문집 등의 기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조선선비들이 바라본 동아시아 인식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시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문집, 연행록, 총서나 일록 등에 기록된 몽골 및 건주여진의 기록에 대한 정리 및 분석 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권인용, 「명중기 조선의 입명사행-소세양의 『부경일기』를 통하여」 『명청사연구』 19, 2003
- _____, 「명중기 조선의 중계변무와 대명외교-權機의 조천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45, 2005
- 김경록, 「조선초기 對明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 _____, 「조선초기 통사의 활동과 위상 변화」 『한국학보』 101, 2000
- _____, 「仁祖代 對淸關係」 『공사논문집』 56-1, 2005
- _____, 「조선후기 『同文彙考』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 _____, 「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 _____, 「조선시대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2006
- _____, 「조선초기 吏文의 편찬과 對明 외교문서의 성격」 『이화사학연구』 34, 2007
- _____, 「조선후기 대중국 변무 연구」 『공사논문집』 58-1, 2007
- 김경미, 「소현세자의 ‘청’ 체험과 문화수용」, 『한국역사문화』 10, 2006.
- 김구진, 「조선전기 한-중 관계사의 시론-조선과 명의 사행과 그 성격」 『홍익사학』 4, 1990
- 김남운, 「병자호란 직후(1637~1644) 朝淸 관계에서 ‘淸譯’의 존재」 『한국문화』 40, 2007
- 김문식, 「소현세자의 외교활동」, 『선비문화』 4, 2004
- 김용덕, 「소현세자연구」 『사학연구』 18, 1964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서울, 혜안, 2007
- 남은경, 「심양일기연구-소현세자, 봉림대군의 심양체험을 중심으로」 『동양고전

연구』22, 2005

민두기, 「열하일기에 비친 중국 통치의 제양상」 『중국근대사연구』 서울, 일조각, 1973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연행록선집』전12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9

박성주, 『고려·조선의 遣明使研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박원길, 「서호수의 연행기에 나타난 몽골관계기록의 분석」 『한·몽 역사학자들의 동북아역사인식』동북아역사재단, 2008

_____, 「서호수의 『연행기』에 기록된 청대 내몽골 25부 51기의 고찰」 『북방문화연구』1, 2009

_____, 『조선과 몽골 - 최덕중, 박지원, 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난 몽골인식』서울, 소나무, 2010

박원호,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서울, 일조각, 2002.

_____, 『최부 표해록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방기철,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서울, 국학자료원, 2010

夫馬進, 「일본 현존 조선연행록 해제」 『연행사와 통신사』 서울, 신서원, 2008

서인범, 「명대의 遼東都司와 東寧衛」 『명청사연구』 23, 20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선집(上·下)』서울, 대동문화연구원, 1962

이경구, 「조선 후기 주변 인식의 변화와 소통의 가능성 -18세기 연행록과 북학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3, 2009

이경수,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의 은둔시(隱遁詩)」 『강원문화연구』제25집, 2006

이석호, 『국역 심양일기』 서울, 대양서적, 1975

임기중, 『연행록전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_____, 『연행록 연구』서울, 일지사, 2002

임기중·부마진 편, 『연행록전집 일본소장편』 서울, 동국대학교 문학연구소, 2001

임유경, 「서호수의 연행기 연구」 『고전문학연구』28, 2005

-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I,II)』서울, 태학사, 2012
- 장 걸, 「저자미상의 연행록 고증」『동아시아 역사속의 중국과 한국』서울, 서해문
집, 2005
- 장정란, 「소현세자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교회사연구』9, 1994
- 전해중, 『한중관계사 연구』서울, 일조각, 1970
- _____, 「청대 한중관계의 일고찰」『동아문화의 비교사적 연구』서울, 일조각,
1976
- 정영문, 『조선시대 사행록의 텍스트와 콘텍스트』서울, 학교방, 2011
- 정은주, 「조선시대 明清使行 관련 繪畵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정하영 등 역, 『심양장계』서울, 창비, 2008
- 조규익 편, 『연행록연구총서』10권, 서울, 학교방, 2006
- 최강현, 「韓中 使行文學 연구-심양일기에 나타난 인물교류와 의식에 관하여」,
『한국사상과 문화』4, 1999
- _____, 「18세기 후반 조선 지식인 박지원의 대외인식: 열하일기에서 본 건륭연간
의 중국」『이대논총』61-1, 1992
- _____, 「淸廷에서의 소현세자」『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서울, 이대출판부,
1997
- _____, 「18세기 말 동서양 지식인의 중국인식 비교」『동양사학연구』59, 1997
- _____, 「18세기 후반 연행록을 통해본 조선지식인들의 대중국인식」『국사관논
총』76, 1997
- 최소자정혜중·송미령,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서울, 혜안, 2007
- 한명기, 「17·18세기 한중관계와 인조반정-조선후기의 “인조반정 辨誣” 문제-」『한
국사학보』13, 2002
- _____, 「명청교체기 동북아 질서와 조선 지배층의 대응」『역사와 현실』37, 2000.
- 후마 스스무(정태섭 옮김), 『연행사와 통신사』서울, 신서원, 2008

■ 해외 문헌

- 邱瑞中, 「昭顯沈陽日記與明清決戰-燕行錄的史料价值之二」 『中國語文學論集』 32, 2005
- 金啓琮, 『清代蒙古史札記』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0
- 劉家驢, 「朝鮮世子等入質瀋陽」 『清朝初期的中韓關係』 文史哲出版社, 1986
- 刘 静, 「从燕行录看18世纪中国北方市集-兼论中朝文化交流与文化差异」 『北京社会科学』2006-3
- 滿洲國 蒙政部總務司調查科, 『蒙古地名の解説』, 新京, 1935
- 滿文老檔研究會, 『滿文老檔』 東京, 東洋文庫, 1955
- 夫馬進, 「林基中-夫馬進 編 『燕行錄全集日本所藏編』」 『東洋史研究』61-4, 2002
_____, 「日本現存燕行錄解題」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42, 2003
- 須佐嘉橘 譯, 『蒙古游牧記』 東京, 開明堂出版部, 1939
- 楊海英, 「朝鮮通事古爾馬渾(鄭命壽)考」 『清史論叢』 2006
- 王振忠, 「朝鮮燕行使者所见十八世纪之盛清社会—以李德懋的入燕记为例文」 『哈佛燕京图书馆所藏朝鲜资料研究』Studies on the Korean Materials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Yenching Library Studies, No.3, 2004
- 殷梦霞, 于浩 选编, 『使朝鮮錄(上,下)』 北京, 北京图书馆出版社, 2003
- 李雲泉 等编, 『朝貢制度史論(中国古代对外关系体制研究)』 北京, 新華出版社, 2004
- 張存武, 『清代中韓關係論文集』 台北, 商務出版社, 1987
- 田川孝三, 「瀋館考」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大阪, 屋號書店, 1934
- 田村實造 外編, 『明代滿蒙史料—明實錄抄(蒙古篇)』 京都大学, 1954 - 1959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上·中·下)』 北京, 光明日报出版社, 1985
- 包文漢, 朝克圖 整理, 『蒙古回部西藏王公表傳(第一輯)』 呼和浩特, 內蒙古大学出版社, 1998
- 包文漢, 陶繼波 整理, 『蒙古回部西藏王公表傳(第二輯)』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8

- 包文漢 整理,『清朝藩部要略稿本』哈爾濱,黑龍江教育出版社,1997
- 何芳川,「華夷秩序論」『北京大學學報』1998-6
- 邢亦塵,『清季蒙古實錄(上·中·下)』呼和浩特,內蒙古社會科學院蒙古史研究所,1981
- 馬汝珩·馬大正,「論羅卜藏丹津叛亂與清政府的善後措施」『新疆大學學報』1980-3
- 馬連龍,「論羅卜藏丹津叛亂的前因後果」『青海社會科學』1993-1
- 湯代佳,「試析羅卜藏丹津“叛亂”之原因」『青海民族研究』1998-4
- 趙心思,「羅卜藏丹津反清與麗江的改土歸流—試析雍正初麗江改土歸流的主要原因一」『西藏大學學報』2008-1
- 孫雲軍,「論羅卜藏丹津叛亂原因」『東京文學』2008-9
- Д.Дашням,『Халхын сайн ноён хан Намнансүрэн』УБ, 1990
- 準噶爾史略編寫組,『準噶爾史略』北京,1985

Abstract

Nowadays East Asia becomes field of ‘war of history’ between Korea, Japan, China, and Mongolia to the extent to be ‘the time for arguments on history.’ Worrying views of history, such as Northeast Project (東北工程) by China or imperial view of history in Japan, are shown off. The situation comes from the difference of viewpoint on and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facts in the past. Specifically, China constructed theory of its territory and ethnicities as ‘unified multi-ethnic country’(統一的 多民族國家) and created an artificial concept of ‘Zhonghwa people’ (中華民族) through North Project about Mongolia in 1985.

According to this view of history, China implemented National History Correction Project (國史修正工程, 2005~2015) as rewriting all of history of China and surrounding ethnicities. As the result, they declared Baekdu Mountain as the holy mountain of China and Jusen Gurun. And they regard the independence of Outer Mongolia in 1911 as that without logical legitimacy, and also ancient history of Korea on the north of Han River as the history of local self-government of China. Most historians recognize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Mongolia and Jusen Gurun for refuting the theory of Chin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how bureaucrats or intellectuals, who ruled Choseon Dynasty, did recognize East Asia and Jusen Gurun from 15th century to 19th century. The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overall study of records about Mongolia and Jusen Gurun in documents or travel notes on the time. The recognition on East Asia in Chosun Dynasty can be classified as that 1) from the earliest era of Choseon through Imjin War (1392~1600), 2) from the time around Jeongmyo War through the era of King Gyeongjong (1601~1724), 3) from the era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through the last period of Choseon (1725~1890). On this research, 170 of travel notes, 1101 of document collections, and 26 of other writings are analyzed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at that time, and of Choseon’s intellectuals’ recognition on them with the focus on the relation with Mongolia and Jianzhou Jusen (Jusen Gurun).

There are found 73 (43%) of Mongolia-related, and 32 (19%) of Jusen Gurun-related records in 170 of travel notes. Furthermore, 470 (42.7%) of Mongolia-related, and 560 (50%) of Jusen Gurun-related records are found in 1101 of document collections. These figures show the recognition of Choseon’s intellectuals on East Asia well in

detail. That is, they saw military affairs as differently with cultural aspects in reality although their ruling and recognition is based on the doctrines of Chu-tze (朱子學) from China. And we introduce Story of *Kim Seung-gyeong* (金勝京傳) – the story of a Mongolian soldier born in Choseon of 17th century, and *Records of Travel to Yanjing* (燕行記事) written by Lee, Gap(李理, 1737~1795).

Mongolia-related and Jusen Gurun-related records in document collections or travel notes in the era of Choseon are detailed evidences which reveal that Mongolia and Jusen Gurun are different from Hanzhu (漢族) of China in their origin and ethnic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especially focuses on how Choseon's intellectuals comprehended the characteristics of Jusen Gurun after 1636. On that point, this research has the meaning of clarifying the illusion of China's theory of 'unified multi-ethnic country' and the contradiction embedded in China's Northeast Project.

Keyword : Worrying views of history, such as Northeast Project (東北工程), Unified multi-ethnic country'(統一的 多民族國家), *Records of Travel to Yanjing* (燕行記事)